



한 눈에 보는 사회

2011 아시아/태평양판



OECD/Korea Policy Centre
Health and Social Policy Programme

한 눈에 보는 사회 2011 아시아/태평양판



OECD/Korea Policy Centre
Health and Social Policy Programme

본 보고서는 OECD 사무총장의 책임 하에 출판되었습니다. 본 보고서에 언급된 논의들이 OECD 또는 OECD회원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본 문서와 여기에 포함된 지도는 영토, 도시 또는 지역의 이름과 국경 및 경계, 영토의 주권이나 그 지위에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인용하여 주십시오 :

OECD (2011), Society at a Glance: Asia/Pacific 2011,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9789264106154-en>

본 출판물의 원본은 아래와 같은 제목으로 영문으로 발간되었습니다.

Society at a Glance : Asia/Pacific 2011

본 출판물의 저작권은 OECD에게 있습니다.

본 한국어판 번역출간물은 OECD대한민국정책센터와 프랑스 파리의 OECD와의 계약에 의해 출판되었으며 이 번역출판물의 품질 및 원본과의 일치여부는 OECD대한민국정책센터의 책임사항입니다.

한국어판 서문

OECD대한민국 정책센터 (www.oecdkorea.org)는 OECD와 대한민국 정부간에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여 설립된 국제협력기구로서 OECD의 주요정책과 문제의식을 아시아-태평양 지역 비회원국과 공유하고 이들 국가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사회정책본부에서는 보건, 사회복지, 연금 등 사회정책에 대해 OECD에서 발간하는 주요 자료들을 한국어판으로 번역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간한 *Society at a Glance Asia/Pacific 2011* 한국어판은 사회정책본부의 이은영 연구원의 협조와 함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원종욱 박사님께서 번역에 대해 감수해주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서문

이 보고서는 OECD가 2년에 한번씩 발간하는 사회지표 개요보고서인 한 눈에 보는 사회 : 아시아/태평양 판 (Society at a Glance : Asia/Pacific)의 두 번째 판이다. 이 보고서는 사회적 웰빙의 현황과 추세에 관한 정량적 증거 요구가 증가하면서 출간하게 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첫번째 판에 포함되었던 일부 지표들을 업데이트하고 몇 가지 새로운 지표들을 추가하였다. 그 외에도 이번 판에서는 “한 눈에 보는” 간행물 시리즈의 기본틀로 돌아가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지표의 수를 25개로 줄였고 표현도 짧고 간결하게 하는데 특별히 신경을 썼다. 도표와 박스는 직접적이고 단순하게 만들었으며 고도로 표준화했다. 요즘처럼 정보가 풍부해지는 시대에는 이러한 접근방식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이번 2011년 보고서에는 비교 가능한 자료들이 나와있는 36개국을 다루고 있다. 참고로 2009년 판에서는 25개국을 다루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무급노동에 대해 한 장을 따로 할애하였다 (제1장). 또한 독자들이 사회지표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가이드와 (제2장) 한 눈에 보는 사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요약 (제3장)을 싣고 있다. 이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지표를 포함해 모든 지표에 대한 좀더 상세한 정보는 OECD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www.oecd.org/els/social/indicators).

이 보고서는 Simon Chapple이 작성했다. 이 보고서가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OECD 사회정책국 안팎의 많은 이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 보고서를 완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 Alexandra Bychkova, Michael De Looper, Angelica Del Pero, Pauline Fron, Maxime Ladaique, Luca Lorenzoni, Marlène Mohier, Andrew Reilly, Kim Robin 이 귀중한 도움을 주었고 Monika Queisser OECD사회정책 국장이 보고서 작성을 감독했다.

목차

약어 및 기호 표시	7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9
제1장. 아태지역 사람들의 시간사용 현황	11
시간사용이 중요 사회지표인 이유	12
시간 사용 현황의 국가간 비교 시 유의할 점	12
조사관련 국가별 사안	15
노동시간	16
자유시간	18
결론	22
주	23
참고문헌	23
제2장. OECD 사회지표의 해석	25
사회지표의 목적	26
OECD 사회지표의 프레임워크	26
지표의 선정과 세부내용	28
본 보고서의 구성	31
제3장. 한 눈에 보는 사회 : 개요	33
제4장. 일반지표 (GE)	37
GE1. 1인당 GDP	38
GE2. 출산율	40
GE3. 결혼과 이혼	42
GE4. 이민	44
GE5. 부양률	46

제5장. 자활지표 (SS)	49
SS1. 고용	50
SS2. 실업	52
SS3. 교육	54
SS4. 조기교육	56
SS5. 교육비 지출	58
 제6장. 형평성지표 (EQ)	61
EQ1. 빈곤	62
EQ2. 소득불균형	64
EQ3. 성비	66
EQ4. 연금	68
EQ5. 사회적 지출	70
 제7장. 보건지표 (HE)	73
HE1. 기대여명	74
HE2. 영아사망률	76
HE3. 식수와 위생	78
HE4. 성인신장	80
HE5. 의료비지출	82
 제8장. 사회통합지표 (CO)	85
CO1. 삶의 만족도	86
CO2. 신뢰수준	88
CO3. 사회적 행동	90
CO4. 자살	92
CO5. 투표율	94

약어 및 기호 표시

아태지역 국가 ISO 코드

아르메니아	ARM
아제르바이잔	AZE
방글라데시	BGD
부탄	BTN
브루나이 다루살람	BRN
캄보디아	KHM
중국	CHN
피지	FJI
홍콩 (중국)	HKG
인도	IND
인도네시아	IDN
카자흐스탄	KAZ
북한	PRK
키르기스스탄	KGZ
라오스	LAO
마카오 (중국)	MAC
말레이시아	MYS
몰디브	MDV
몽골	MNG
미얀마	MMR
네팔	NPL
파키스탄	PAK
파푸아뉴기니	PNG
필리핀	PHL
사모아	WSM
싱가포르	SGP
스리랑카	LKA
타지키스탄	TJK
태국	THA
동티모르	TLS
통가	TON
베트남	VNM

아태지역 OECD 회원국 ISO 코드

호주	AUS
일본	JPN
한국	KOR
뉴질랜드	NZL

아/태 지역국가는 OECD 회원국인 호주, 일본, 한국, 뉴질랜드를 포함한 모든 국가를 의미한다.

기호 표시

… : 자료 없음.

(\) 국가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내림차순으로 열거할 때 범례에 표시.

(/) 국가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름차순으로 열거할 때 범례에 표시.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www.oecdkorea.org)는 OECD와 대한민국 정부 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설립한 국제협력기구이다. 본 센터는 이전에 운영되고 있던 네 개의 한국센터들을 통합하여 2008년 7월 7일 설립되었으며 네 개의 센터 중 하나가 2005년에 설립되었던 사회정책센터이다.

센터의 주요 역할은 OECD 회원국의 국제 조세, 경쟁, 공공 관리 감독 체계 및 사회정책 부문의 국제기준과 정책들을 연구하고 아시아 지역의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에게 연구결과를 전파하는 것이다. OECD대한민국 정책센터 사회정책본부는 OECD 회원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비회원국들 간의 정책대화와 정보공유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사회정책본부의 주요 연구 분야는 사회보장 통계(ILO, ADB와 협력), 의료비 지출 및 재정 통계(APNHAN, WHO와 협력), 연금정책(세계은행과 협력)의 세 가지이다. 이를 위해 센터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국제 회의, 세미나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으며 국내의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정책 포럼도 진행하고 있다.

제 1 장

아태지역 사람들의 시간사용 현황

시간사용이 중요 사회지표인 이유

특별 구성된 이번 장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의 시간사용 패턴을 살펴보고 이를 OECD국가들의 패턴과 비교하였다. 시간사용 중에서 특히 무급노동과 여가시간에 초점을 맞추고있다. 가정 내 무급노동은 요리, 청소, 쇼핑, 육아를 포함하며 이러한 무급노동은 가족의 웰빙에 크게 기여한다. 무급노동을 고려하지 않고 시장 소득 지표만을 살펴보는 것은 웰빙의 수준과 변화에 대한 부정확한 추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개 여성들이 무급노동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무급노동을 고려하면 여성들이 웰빙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알 수 있다. 사람들은 가정 내 무급노동 외에도 가정 외의 친지와 지역사회를 위해 중요한 무급 노동을 수행한다. 이웃 돕기, 노인과 장애인 돌보기, 자선활동 지원, 이민자 돕기, 스포츠 팀 훈련 및 학교 운영 활동 등의 자원봉사 역시 사회적 웰빙에 기여하지만 전통적인 경제 지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전통적 웰빙 지표는 자유시간과 여가시간의 양에 대한 측정도 간과한다. 여가시간은 당연히 웰빙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시간사용 현황의 국가간 비교 시 유의할 점

시간사용에 관한 통계자료는 사람들이 구체적인 기간-대개 24시간-동안 시간을 어떻게 할애해 사용하는가를 정량적으로 요약한 것이다. 시간사용 통계자료는 사람들이 수행하는 활동의 유형과 각 활동 별로 지속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자신의 활동에 대한 응답자의 설명은 코드화되고 체계적으로 합쳐져 “직장에서 소요하는 시간” “가사일에 소요되는 시간” “여가활동에 소요하는 시간” 또는 “개인 관리 (personal care)에 보내는 시간” 등 광범위한 범주로 분류된다. 이상적으로는 일년간 인구 샘플을 추출하면 주말과 공휴일, 계절적 영향까지 고려할 수 있다.

세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아시아/태평양 지역도 신뢰할만하고 비교 가능한 최신 시간사용 자료가 많이 나와 있지 않다. 시간사용 자료는 한 눈에 보는 사회 : 아시아/태평양 판에 포함된 36개국 중 12개국에 대한 자료만 확보되었다. 표 1.1은 조사가 가능했던 국가와 조사 시행일, 응답자 수, 자료 출처, 기타 자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소수의 국가에 대해서만 자료가 확보되었지만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4개국 중 3개국 – 인도, 중국, 파키스탄-은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시간사용 정보가 확보되어 있는 국가들은 스펙트럼이 광범위하다. 경제 발전의 수준이 서로 달라 이 중에는 선진 산업 경제국도 포진해 있고 중국, 인도 등 대규모의 신흥 경제국, 구 소련연방국가, 그리고 캄보디아와 파키스탄처럼 농업 부문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세계 최빈국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지리적 분포 역시 다양하다.

표 1.1. 확보된 시간사용 조사자료

	조사년도	샘플크기	조사유형	연령범위 (나이)	출처	기타 특징
아르메니아	2008	알 수 없음	알 수 없음	15-80	UNECE 통계국 데이터베이스, 성별 통계 데이터베이스	연도나 인구를 대표하지 않음
아르메니아	2004	235명, 60가구	다이어리 2개, 주중용 1개와 주말용 1개	15-80	아르메니아 통계청 아르메니아 TU 시범 조사 2004	연도나 인구를 대표하지 않음
호주	2006	6,961명, 3,643가구	이틀 연속, 다이어리	>15	호주 통계청, 시간사용조사	
캄보디아	2003, 11-2005, 1	2,000가구	가구조사에 다이어리 시트 포함	> 5	캄보디아 통계청 www.nis.gov.kh/index.php/ statistics/surveys/cses	
중국	2008	37,142명, 16,661가구	주중1일+주말1일	15-74	중국 통계청, 시간사용조사	연도를 대표하지 않음
인도	1998, 7-1999, 6	18,591가구	1주-인터뷰 방식	>6	인도 정부, 통계부	
일본	2007	18,291명, 3,866가구	알 수 없음	>10	통계청 & 통계연구교육 연구소, 시간사용 및 여가활동 조사 (설문지 B)	연도를 대표하지 않음
카자흐스탄	2006	알 수 없음	알 수 없음	20-74	UNECE 통계국 데이터베이스, 성별 통계 데이터베이스	
한국	2004	12,750가구	이틀 연속, 다이어리	>10	통계청, 시간사용조사	연도를 대표하지 않음
키르기스스탄	2005	알 수 없음	알 수 없음	20-74	UNECE 통계국 데이터베이스, 성별 통계 데이터베이스	
몽골	2000	2,753명, 1,086가구	24시간 다이어리	>12	NSO, UNDP, 시간사용 통계 시범조사, 2000.	연도와 인구를 대표함
뉴질랜드	1998, 7-1999, 6	8,532명	이틀 연속, 다이어리	>12	뉴질랜드 통계청, 시간사용조사	
파키스탄	2007	19,380가구	24시간 다이어리	>10	파키스탄 정부 통계국, 연방 통계청, 2007시간 사용조사, 2009, 4	연도와 인구를 대표함

그러나 여기에서 사용된 시간사용 자료의 국가간 비교에 대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하나는 자료 취합 방법에 관한 것이다. 시간사용 자료는 조사와 다이어리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취합된다. 조사는 정해진 기간, 예를 들어 지난 24시간 동안 특정 활동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소비했는지 묻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 활동을 간과할 위험이 있으며 정해진 기간 중 고정된 스케줄에 따라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왜곡 보고될 가능성이 있다 (Ilahi, 2000). 한편 다이어리 방식은 응답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현장 조사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게 된다. 대체로 지난 24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이 다이어리 방식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활동의 나열에 중점을 둔다. 이 방법은 좀더 세부적이기 때문에 비용도 더 들고 응답자의 시간도 더 많이 소요되지만 비 반복적인 활동도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응답자가 다수 활동 (multiple activity)과 동시발생 활동을 혼동할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육아는 가장 흔한 다수 활동이기 때문에 과다 보고되는 경향이 크다 (Ilahi, 2000).

자료적용 범위의 차이 역시 국가간 비교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연간 시간 배분이 일정하지 않음을 감안하면 특히 농업중심 국가의 경우 자료 취합 시기에 따라 시간사용 데이터의 비교성이 왜곡될 수 있다

(Ilahi, 2000). 예를 들어 중국과 일본, 한국, 뉴질랜드, 아르메니아와 몽골의 경우 한 달 이하의 기간 동안 조사가 실시되기 때문에 샘플 자료는 일년을 대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조사가 봄에 이루어지는 국가도 있고 (중국, 몽골, 뉴질랜드), 가을에 이루어지는 국가도 있다 (한국, 일본, 아르메니아). 파키스탄의 경우 연중 4분기에 걸쳐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시간사용 패턴에 계절적 변수가 있음이 관찰되었다. 캄보디아와 호주의 경우 조사기간이 1년 또는 그 이상이기 때문에 계절변수 문제를 피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왜곡의 유형은 조사대상 일 수에 관련한 것이다. 호주와 한국, 뉴질랜드에서는 연속된 이틀에 대해 다이어리를 작성하도록 한다. 하지만 이 방법은 주중과 주말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파키스탄의 경우에는 응답자들에게 24시간 동안의 활동에 대해서만 묻는다. 하지만 주중 다이어리 대상 일의 비율 분포를 보면 일요일만 제외하고 주중 모든 요일이 대체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파키스탄에서 일요일은 일반적으로 근로일로 인식되지 않음을 반영한다. 근로일의 시간 배분만 살펴보는 조사는 비 근로일도 포괄하는 조사와 비교하기 어렵다. 전자는 노동에 대한 여성의 기여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성들이 주로 수행하는 무급/비 시장 노동은 주말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United Nations, 1995).

중국의 시간사용조사는 주중 하루와 주말 하루에 대해 다이어리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몽골의 경우 일주일의 7일을 다섯 부분으로 나누었다 (일요일, 월요일, 화/수요일, 목/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동일한 수의 가구를 선정해 각각의 요일그룹에 대해 응답하게 했다. 다시 말해 응답자의 3분의 2는 2개 요일에 대해 다이어리를 작성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3개 요일의 다이어리를 작성하도록 한 것이다. 호주에서는 휴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에 공휴일과 방학기간을 반영한 비율을 담고 있는 13일씩 네 개 기간을 정의했다.

지리적 대상범위 역시 중요한 사안이다. 조사 대상범위가 전국단위가 아닌 경우 조사 대상 지역은 그 국가를 대표하지 못할 수도 있다. 좀더 일반적으로 말해서 평균값은 도시지역과 시골지역간 격차 등 국가 내 차이를 보여주지 못할 수 있는데 개발도상국의 경우 이러한 격차가 특히 크게 나타난다. 파키스탄의 오지에 위치한 일부 지역은 시간과 비용, 접근성의 제약 때문에 조사에 포함될 수 없었다. 그러나 배제된 인구수는 전체 인구수의 3%에 불과하다.

또 다른 고려사항은 실제 어떤 인구집단을 다루고 있는가이다. 사실, 유급 노동이나 여가활동에 소요된 평균 시간은 조사 대상 인구 연령에 따라 분명히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자료는 20세에서 74세까지의 인구를 대상으로 한다. 반면 캄보디아의 데이터는 5세 이상의 인구를 대상으로 한다. 전자의 경우 75세 이상 인구를 배제하고 있다는 것은 이 인구집단을 포함한 경우에 비해 유급노동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캄보디아의 경우 유급노동에 소요된 평균 시간은 성인 인구가 포함되는 경우 보다 낮아질 것이며 앞의 두 개 국가의 경우는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조사결과는 동시발생 활동을 기록하는지의 여부, 만약 기록한다면 그 기록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자료는 사람들이 한번에 한가지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도록 코드화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동시발생 활동에 대해서도 알 수 있도록 설계된 별도의 질문들이 조사에 포함되는데 (예 : 요리를 하면서 TV 시청, 아이를 돌보며 다림질) 이는 “주” 활동과 “부차적” 활동 간의 구분을 허용한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접근방식의 한가지 한계는 “주” 활동은 꼼꼼하게 추적되는 반면 “부차적” 활동은 대개 간과된다는 점이다. 부차적 활동 측정값의 비교성은 해당 활동이 예컨대 세탁기에서 건조기까지 세탁물을 옮기는 활동처럼 한번에 몇 분밖에 걸리지 않는 활동이 일관성있게 보고되어 이들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의

비교 가능한 측정값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인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이것은 응답자가 자신의 활동을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의 단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시간 길이는 호주, 뉴질랜드의 5분부터 일본의 15분까지 다양하다.

자료 취합 방법의 차이나 조사 대상범위 또는 응답자의 연령 차이를 감안한 조정이 불가능했으므로 결과를 볼 때 이러한 매우 제한적인 비교성의 한계를 감안해야 할 것이다. 활동의 범주가 여기에서 사용된 모든 출처에서 동일하게 분류되지 않았지만 일관성을 위해 다섯 개 범주로 분류했다. 1) 시장 노동 (Market work) 및 학습활동, 2) 비 시장노동 (Non-market work), 3) 여가활동, 4) 개인관리 (personal care), 5) 기타가 그것이다. 몇몇 국가 (몽골, 파키스탄, 인도)의 경우 시간사용 통계를 위한 UN 시범 국제 활동 분류 (UN Trial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Activities for Time-Use Statistics, ICATUS (United Nations, 2009)) 기준을 사용했기 때문에 일관성을 위한 조정이 덜 필요했다.¹

“시장 노동 및 학습활동” 카테고리의 경우 시장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일들이 포함되었다. 학습활동 또한 포함되어 학교에서 보낸 시간, 숙제, 자습, 직업 교육에 소요된 시간 등을 기록하도록 했다. ICATUS 용어를 따라 이 카테고리에서는 기업을 위한 고용, 주 생산활동 (비 기업용), 소득을 위한 서비스 및 기타 상품의 생산 (비 기업용), 모든 학습활동을 포함한다. “비 시장노동 (Non-market work)”은 반복적인 가사일과 관리 (예: 요리, 세탁, 애완동물 돌보기, 쇼핑, 정원손질), 돌봄 (집안식구 및 기타), 자원봉사활동을 포함한다. “여가활동”은 취미, 스포츠활동, 사회 또는 문화 행사에의 참여, 언론매체 이용 및 사교활동을 포함한다. “개인관리”는 수면, 식사, 기타 가정 내 의료 및 개인 서비스 (위생, 멋내기, 병원진료 등)를 포함한다. “기타”는 종교활동, 시민의 의무, 불특정 활동 및 이동이 다른 카테고리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이동까지 포함한다.² 일부 국가에서는 여가활동과 개인관리 (수면시간 포함)의 유형에 관해 좀더 상세한 정보가 나와있기 때문에 좀더 세부적인 활동 유형들이 고려될 수 있다.

조사관련 국가별 사안

категори를 세계적인 표준화 차원에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시간 분배에 관한 조사를 시행할 때에는 각 사회 별로 표출되는 독특한 문화적 특징들이 존재한다. 국민의 상당수가 농부이고 문맹률이 높으며 동일한 시간에 맞춰 움직이지 않는 사회의 경우 국민들의 규칙적인 생활리듬이 시계처럼 조율되어 있는 부유한 산업 사회와는 시간 개념이 다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시간 사용 조사가 설계된 방식이나 작성된 다이어리로부터 카테고리가 조직, 구성된 방식 자체도 아태 지역 내 국가간의 문화차이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을 제시한다.

국가별로 특징적인 활동의 내용은 시간사용조사 카테고리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인도의 1998-99 시간 사용조사를 보면, (연료로 사용함) 소동 케익 만들기 카테고리가 있다. 이 활동은 주 생산활동 내 축산이라는 하위 카테고리로 기록되어 있다. 또 다른 인도 특유의 활동은 “대화, 잡담, 다툼”인데 놀랍게도 이 활동은 “개인관리 및 자기관리” 범주에 속해 있었다. 실제로 인도인들은, 특히 시골지역에서 이러한 활동에 상당한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이 활동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자들이 주 7시간인데 비해 남자들은 평균 거의 주 8시간에 달했다 (United Nations, 2000). 국가간 비교 시 일관성 유지를 위해 여기에서는 대화, 잡담, 다툼 활동을 여가활동 카테고리인 “사교활동”으로 분류했다.

무엇이 여가활동이고 무엇이 무급노동인지에 관한 국가간 구분이 늘 뚜렷한 것은 아니었다. 일본 통계청은 몇 가지 활동에 대해 그것이 가사의 일부인지 여가활동 활동인지에 대해 구분했는데 이를테면 “과자 만들기”

와 “취미로 과자 만들기”를 구분하는 식이었다. 그 외에도 일본은 다른 국가와 달리 “애완동물 돌보기”와 “개 산책시키기”를 여가활동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다른 국가들과 일관성있게 비교할 수 있도록 이러한 모든 “생산적 취미”는 “비 시장 노동” 카테고리에 포함시켰다.

아르메니아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자원봉사”는 “여가활동”으로 분류되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자원봉사활동에 소요한 시간에 관한 상세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좀더 광범위한 “여가활동” 카테고리로부터 “자원봉사”에 소요된 시간만을 계산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의 경우 여전히 자원봉사에 소요된 시간까지 여가활동시간에 포함되어 있다.

돌보기 활동의 의미도 국가별로 다양하다.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한국과 중국, 일본의 시간사용 조사에서는 가족구성원과 비가족구성원 돌봄 간의 구분이 없었다. 대신에 “가족 돌보기”라는 카테고리와 “타인 돌보기”라는 카테고리가 따로 있었다. 이들 3개 국가는 효를 장려하고 이에 제도적 정당성까지 부여하고 있는 유교 문화권 국가라는 점이 흥미로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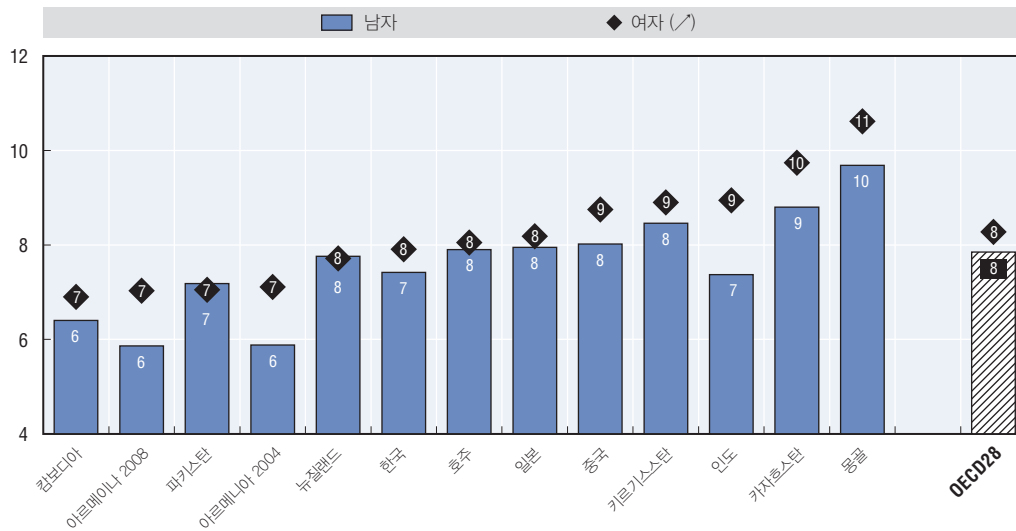
노동시간

모든 국가에서 남자와 여자 모두 하루 평균 350분, 대략 6시간, 다시 말해 하루의 4분의 1 이상 노동을 하고 있었다. 이는 깨어있는 시간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그림 1.1). 그러나 일에 소비하는 시간에 있어서는 국가 간에 차이가 존재했다. 몽골 사람들이 가장 오랜 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자는 하루 평균 581분 (거의 10시간), 여자는 637분 (거의 11시간)이었다. 캄보디아는 가장 짧은 노동시간을 보였으며 몽골에 비해 남녀 모두 평균 네 시간을 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는 384분, 즉 6.4시간, 여자는 414분, 즉 6.9시간). 캄보디아의 노동 시간이 짧은 것은 조사 대상 인구가 5세 이상이어서 상당수의 아동들이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사실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부유한 OECD 4개 회원국들은 순위가 중간 수준이었다. 아태지역 사람들은 OECD 평균보다 전체적으로 노동시간이 길었다.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총 노동시간이 더 길었으며 파키스탄과 뉴질랜드는 예외로 남자들의 노동시간이 조금 더 길었다.

이제 총 노동의 주요 하위 카테고리 중 두개의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시장 노동과 학습, 그리고 무급 노동을 각각 살펴보기로 한다. 시장 노동과 학습에 할당된 시간만 고려하면 몽골이 가장 시장화된 사회이고 그 뒤를 중국과 한국, 캄보디아가 있는 것으로 그림 1.2에 나타나 있다. 하위권에는 아르메니아, 호주, 뉴질랜드와 카자흐스탄이 있다. 아태지역의 모든 국가에서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더 많은 시장노동과 학습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노동 수행의 성별차이는 파키스탄에서 가장 컸고 몽골에서 가장 작았다. 그림 1.3은 무급노동에 관한 시간사용 정보를 보여주고 있다. 무급노동은 카자흐스탄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는데 남녀 공히 아태지역에서 가장 높았다. 캄보디아에서는 무급 노동이 매우 낮게 나타났고 정도는 덜하지만 한국에서도 낮았다. 파키스탄 남자들도 매우 적은 양의 무급노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많은 무급노동을 수행하지만 성별에 따른 격차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파키스탄에서 비교적 높았고 뉴질랜드에서 낮았다. 그림 1.2와 1.3은 파키스탄이 일의 구성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분화의 정도가 크고 뉴질랜드가 비교적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1. 총 노동시간은 몽골이 가장 길다.

국가/성별에 따른 하루 평균 총 노동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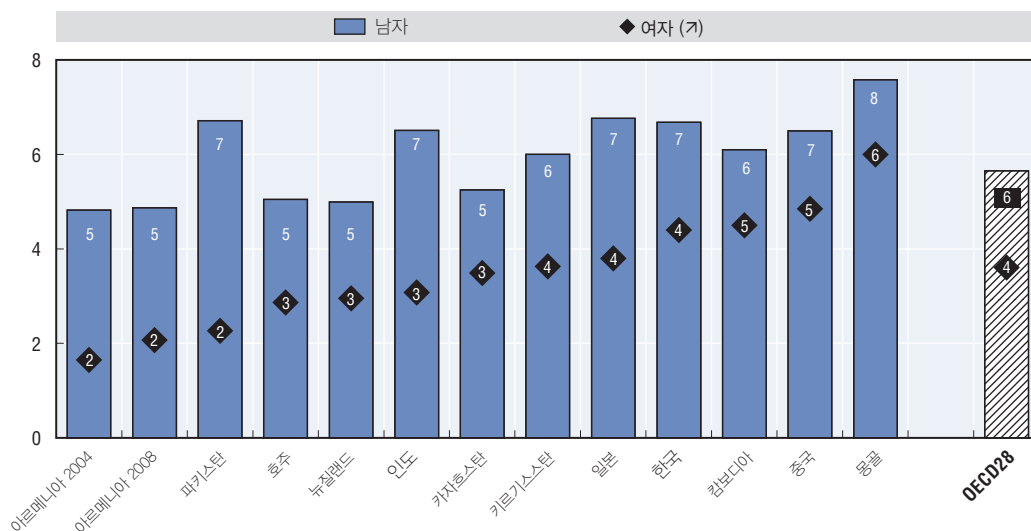
출처 : 사용 가능한 시간사용조사는 표 1.1 참조.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545996>

예상과 달리 OECD 국가의 여성들은 비 OECD 개도국과 비슷한 시간을 무급 활동에 소비하고 있었다. 산업국가의 경우 세탁기, 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의 보급과 전기, 수도와 같은 기본 서비스의 손쉬운 이용이 가사일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줄여주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2. 몽골이 시장 노동과 학습에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하루 평균 시장 노동과 학습에 소비된 시간, 국가별 및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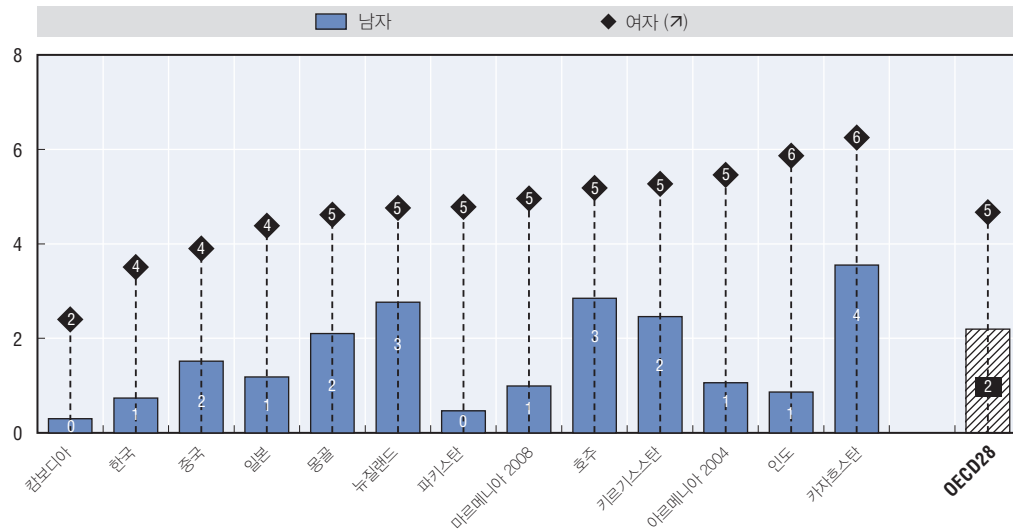


출처 : 사용 가능한 시간사용조사는 표 1.1 참조.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546015>

그림 1.3. 카자흐스탄 비 시장 활동에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하루 평균 비 시장/무급 노동에 소비된 시간, 국가별 및 성별



출처 : 사용 가능한 시간사용조사는 표 1.1 참조.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5460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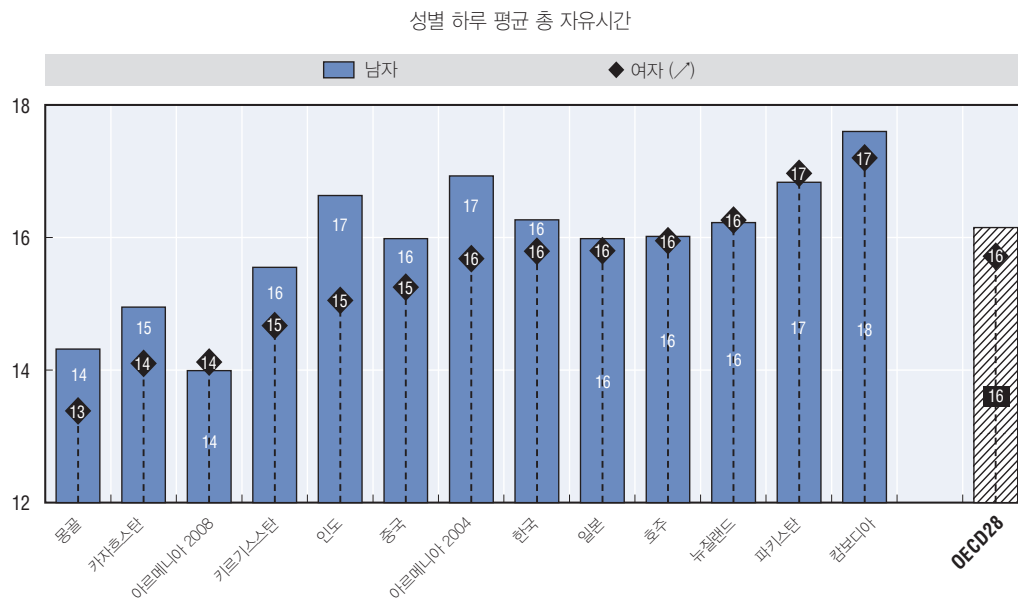
예를 들어 파키스탄과 캄보디아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여자들은 물을 길고 빨감을 모으는데 상당한 시간을 소비하고 있었는데 (Ilahi, 2000) 이는 선진국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활동들이다. 그러나 자료에 따르면 여자들이 무급노동에 소비하는 시간 자체는 샘플 국가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아시아의 OECD 회원국 여성들이 무급노동에 소비하는 평균시간은 하루 268분 (4.5시간)이나 OECD 평균은 220분 (3.6시간)이었다. 무급노동에 소요되는 시간은 OECD 국가와 비 OECD 국가간에 큰 차이가 없었지만 노동의 물리적 강도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물고기, 빨감 모아 나르기 등이 있으며 식품 가공도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노력의 강도 역시 시간사용조사에서 직접적으로 포착되지는 않았지만 감안해야 할 중요한 요인이다.

자유시간

자유시간은 노동하는데 소비하지 않는 모든 시간을 말한다. 자유시간은 개인관리와 여가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람들이 자유시간에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에 시간을 어떻게 할당하는가는 사람들의 기호와 다양한 사회 경제적 인센티브에 달려있다. 수면시간은 개인의 웰빙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수면은 개인의 생산성을 강화하고 효율성 강화에 반드시 필요하며 목표가 소득 극대화일 경우에도 필요한 요소이다. Biddle and Hamermesh (1990)에서 강조했듯이 많은 노동 경제 모델에서 수면을 고정된 생물학적 상수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론과 증거를 보면 수면시간은 다른 활동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인센티브에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수면은 여가활동과 같은 활동이며 개인적 기호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최근의 몇몇 연구에서는 수면을 여가활동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모든 수면 관련 활동을 여가활동으로 분류하고 있다(OECD, 2009, p. 22). 이미 언급했듯이 여가활동과 수면시간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웰빙에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여가활동시간과 수면을 사회적 지표로 보는 것은 유익한 제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캄보디아 (주 : 조사대상이 5세 이상)와 파키스탄 사람들은 자유시간이 가장 길었다 (그림 1.4). 캄보디아 인들은 하루 16시간 (1,000분) 이상이 자유시간인 반면 노동시간이 가장 길었던 몽골 사람들은 자유시간이 13시간 (800분)에 불과했다.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자유시간이 조금 더 길었는데 (그림 1.5) 이것은 여자들의 총 노동시간이 길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림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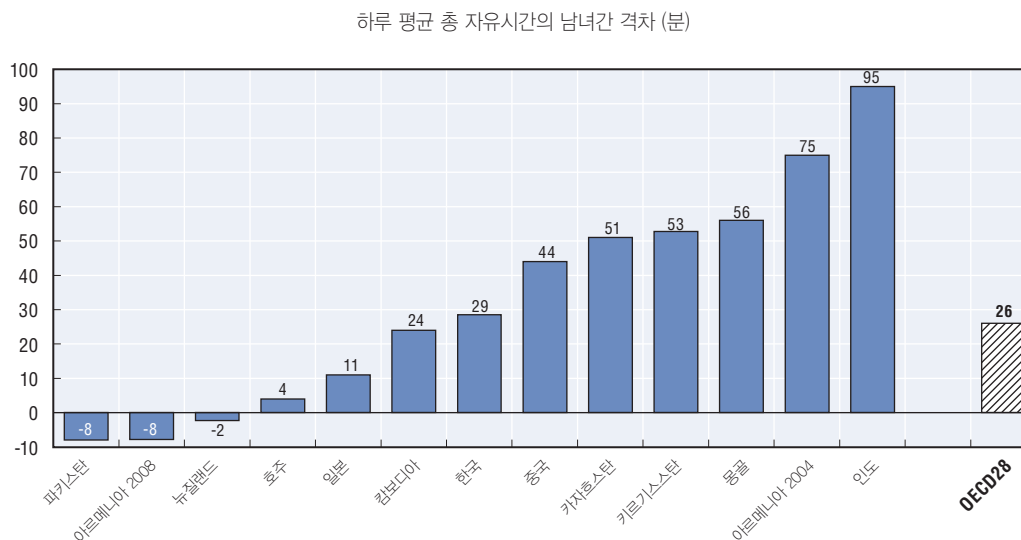
그림 1.4. 캄보디아 사람들의 자유시간이 가장 길다.



출처 : 사용 가능한 시간사용조사는 표 1.1 참조.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546053>

그림 1.5.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자유시간이 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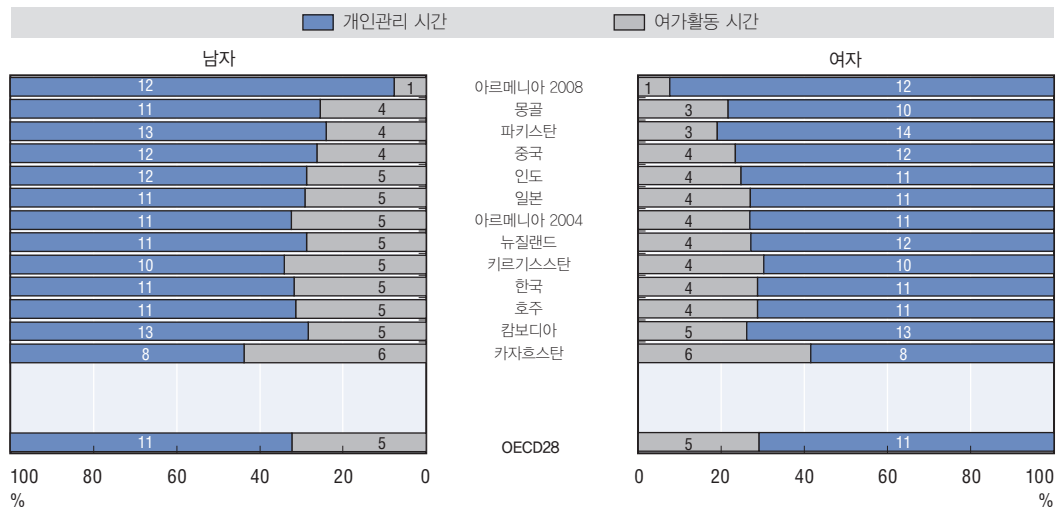
출처 : 사용 가능한 시간사용조사는 표 1.1 참조.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546072>

사람들은 실제로 자유시간에 무엇을 할까? 사람들은 대부분의 자유시간-절반을 훨씬 넘는 시간-을 개인 관리에 소비하고 있었는데 주로 수면시간, 2차적으로 식사에 할애하고 있었다 (그림 1.6). 자유시간의 구성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자유 시간 중 개인관리의 비중은 아르메니아에서 크게 높아 90% 이상이었고 카자흐스탄은 50%를 약간 넘는 낮은 비중을 보였다.

그림 1.6. 개인관리는 자유시간의 5분의 3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여가활동과 개인관리 시간 및 총 자유시간 중 비중



주 : 국가 순위는 여자들의 여가활동시간을 기준으로 책정.

출처 : 사용 가능한 시간사용조사는 표 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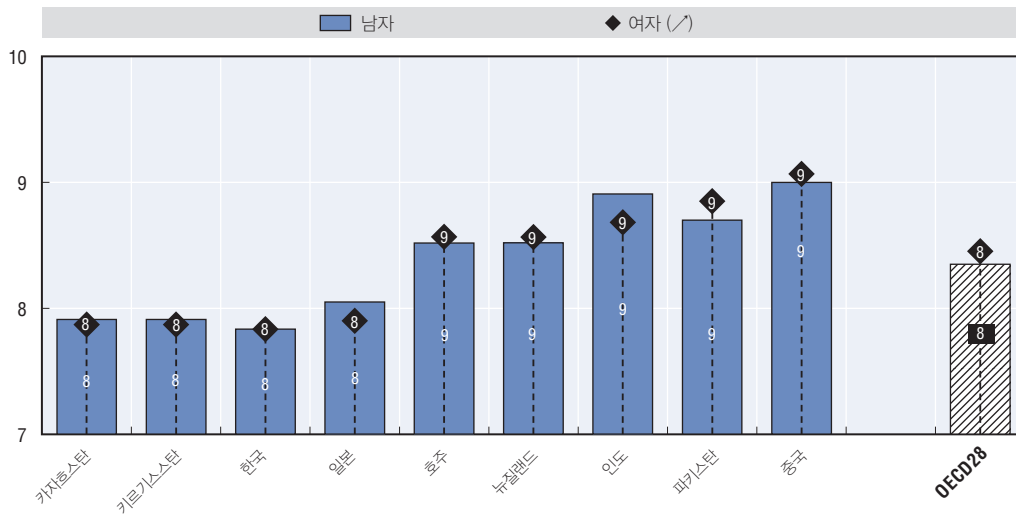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54609>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사람들은 자유시간의 최소 절반을 수면에 할애하고 있었다 (그림 1.7). 사람들이 개인관리에 가장 긴 시간을 소비하는 파키스탄을 제외하고 수면은 개인관리에 할애된 총 시간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수면 시간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간에 유사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1.7). 한국과 일본은 수면시간이 가장 적어서 24시간 중 8시간 미만이었다. 수면 시간은 호주와 뉴질랜드,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이 동일했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평균적으로 남자가 24시간 중 511분, 여자가 514분 (8시간 반)을 수면에 할애한 반면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의 수면시간은 남자가 475분, 여자가 472분 (약 8시간)이었다. 중국 사람들이 9시간 (남자 540분, 여자 544분)으로 가장 수면 시간이 길었다.

수면 시간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다. 평균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자유시간이 짧았지만 (노동시간이 길기 때문에), 수면시간이 더 적지는 않았다. 수면 시간의 남녀간 격차가 가장 큰 일본의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불과 10분 덜 자는 것으로 나타났다. Biddle and Hamermesh (1990)의 연구에 따르면 어린 자녀가 있으면 엄마들의 수면 시간이 줄어든다고 했다. 또한, 유급노동과 높은 학력이 수면 시간을 줄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 연구 모델을 보면 급여가 높을수록 수면시간이 짧았는데 이것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이에 따라 시간의 가치가 커질수록) 노동시장에서 소비하는 시간에 대한 동기부여가 커지기 때문이다. 이 효과는 여자들보다 남자들의 경우 훨씬 컸다.

그림 1.7. 중국인들의 수면시간이 가장 길다.

24시간 중 수면시간



주 : 국가 순위는 여자들의 수면시간을 기준으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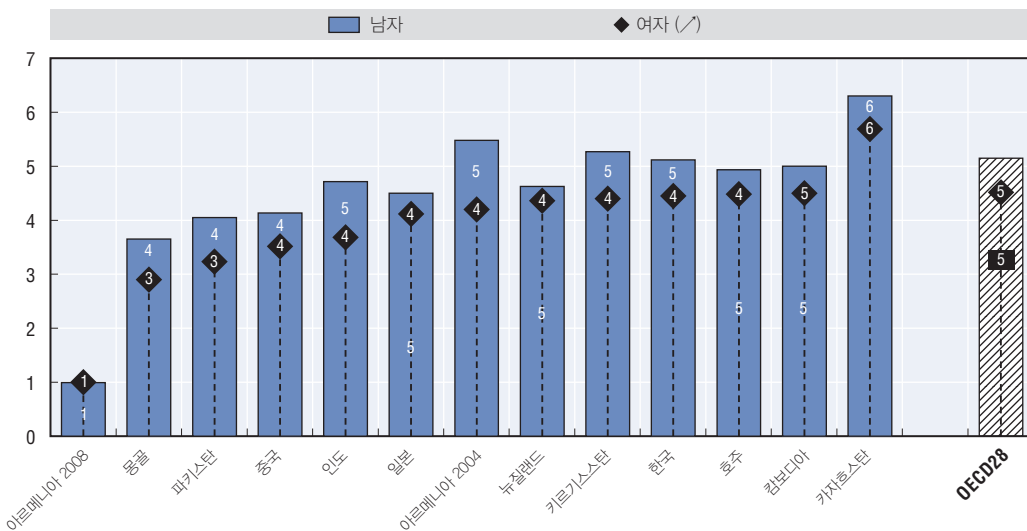
출처 : 사용 가능한 시간사용조사는 표 1.1 참조.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546110>

자유시간 중 개인관리 외에 다른 주요 구성요소인 여가활동을 살펴보면 아태지역 사람들은 시간의 10% 이상을 여가활동 활동에 소비하고 있었는데 (그림 1.8) 이것은 OECD 국가들보다는 낮은 비율이었다. 몽골 여자들이 하루 평균 3시간(174분)으로 여가활동에 가장 적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었고 카자흐스탄 남자들은 하루 6시간 (378분) 이상, 즉 하루 시간 중 27%를 여가활동활동에 소비함으로써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그림 1.8. 카자흐스탄 사람들의 여가활동 시간이 가장 길다.

하루 평균 여가활동시간, 국가별 및 성별



출처 : 사용 가능한 시간사용조사는 표 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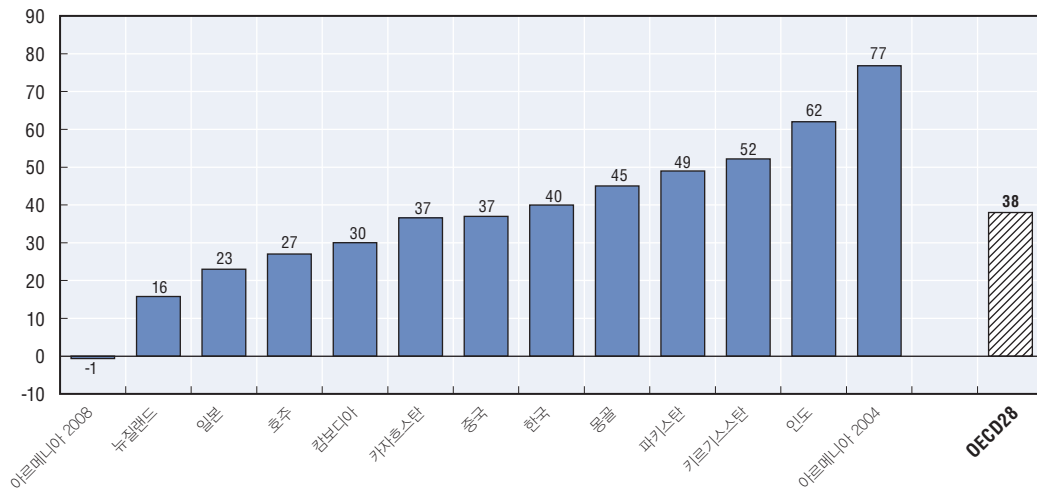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546129>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다른 국가에서 자원봉사를 비 시장노동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과 달리 카자흐스탄의 여가활동시간은 자원봉사활동 시간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 문제로 카자흐스탄의 여가활동시간이 부풀려졌을 수 있다. 그러나 자원봉사에 할애되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낮음을 감안하면 왜곡의 정도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³

남자는 여자보다 하루 평균 39분 정도 여가활동시간이 길었다 (그림 1.9). 성별에 따른 여가활동시간의 차이는 아르메니아에서 가장 커서 한 시간을 초과했다. 격차가 가장 작은 곳은 뉴질랜드로 16분이었다.

그림 1.9.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여가활동시간이 길다.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의 성별 격차 (분)



출처 : 사용 가능한 시간사용조사는 표 1.1 참조.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546148>

결론

신뢰할만하고 비교 가능한 자료가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의 시간사용에 관해 많은 부분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별 구성된 이번 장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총 노동시간과 자유시간이었다. 노동 시간의 유형과 지속시간에 있어서 국가별, 성별로 중요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대다수의 국가에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많이 일한다. 이러한 차이는 비 시장 무급노동에 소요되는 시간에 의해 발생되었다. 시간사용조사 자료는 여자들이 가사일과 돌봄활동을 수행하면서 부의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사람들이 자유시간을 다양한 활동에 할당하는 방식의 차이도 존재했지만 성별이나 지리적 패턴이 두드러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스포츠 활동에 소요된 시간, TV 시청 등 비활동적인 여가활동이나 수면에 소요된 시간은 자기개발 및 건강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람들이 참여하는 활동의 유형은 삶의 만족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 사람들은 수행하는 활동에 따라 만족감, 초조함, 긴장감 또는 보상을 경험하게 되며 이것은 사람들의 정신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독일인 응답자 625명을 살펴보면 야외 활동과 TV 시청에서 가장 즐거움을, 자원봉사와 노동에서 가장 뿌듯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White and Dolan, 2009). 각각의 일상적인 활동과 연계된 감정들은 사회와 개인에 따라 다양하겠지만 분명히 주관적인 웰빙과 연결되어 있다.

이 모든 요소들은 정부 기관이 공공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설계할 때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시간 사용의 성별에 따른 차이, 특히 이 장에서 설명했듯이 노동 시간의 차이는 노동 정책을 설계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 이 분야의 정책들이 성별에 따른 차이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시간 배분에 대해 파악하게 되면 정책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중시하는 정책입안자들은 사회를 좀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시간사용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모든 국가에 있어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요즘엔 드물지만 시간사용에 관한 종적 데이터는 과거와 현재의 시간사용 패턴을 비교할 수 있게 해준다. 게다가 시간사용의 국제적 비교는, 글로벌 차원에서 활동 카테고리를 조정하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연구원들이 각국의 사회 문화적 특성에 대해 좀더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정책에 관해 좀더 권장되는 방식으로 사고할 수 있게 한다.

주

1. http://unstats.un.org/unsd/methods/timeuse/icatus/icatus_2.htm.
2. 가능한 경우, 이동에 소요된 시간은 해당 이동이 연계된 활동의 범주로 분류된다. 그런데 이동의 목적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이동 시간은 “기타” 범주에 포함된다.
3. 평균적으로 비가구원 돌보기와 사회봉사에 할애된 시간은 하루 7분이다 (이 평균값은 9개국에 대해 계산되었으며 캄보디아와 카자흐스탄은 자료가 없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비 가구원 돌보기와 사회봉사 시간이 가장 많았던 뉴질랜드 (여자는 하루 35.5분, 남자는 28분)를 빼면 평균값은 하루 4분으로 줄어든다.

참고문헌

- Biddle, J.E. and D.S. Hamermesh (1990), “Sleep and the Allocation of Tim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8, No. 5, Part 1, October, pp. 922-943.
- Eun, Ki-Soo (2003), “Changing Roles of the Family and State for Elderly Care. A Confucian Perspective”, in V.L. Bengtson. and A. Lowebstein (eds.), *Global Aging and Challenges to Families*, Walter de Gruyter, New York, pp. 253-271.
- Fan, R. (2006), “Confucian Filial Piety and Long Term Care for Aged Parents”, *HealthCare Ethics Committee Forum*, Vol. 18, No. 1, March, pp. 1-17.
- Fuess, S.M. Jr. (2006), “Leisure Time in Japan : How Much and for Whom?”, *IZA Discussion Paper*, No. 2002, Bonn, March.
- Ilahi, N. (2000), “The Intra-household Allocation of Time and Tasks : What Have We Learnt from the Empirical Literature?”, *Policy Research Report on Gender and Development*, World Bank Working Paper Series, No. 13, June.
- Ironmonger, D. (1999), “An Overview of Time Use Surveys”, *International Seminar on Time Use Studies*, 7-10 December, Ahmedabad, India.

Kripke, D.F., L. Garfinkel, D.L. Wingard, M.R. Klauber and M.R. Marler (2002), “Mortality Associated With Sleep Duration and Insomnia”,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Vol. 59, pp. 131-136.

Morris, E. (2004), “Promoting Employment in Cambodia : Analysis and Options”, Cambodia Socio-Economic Survey, ILO Subregional Office for East Asia.

OECD (2009), Society at a Glance 2009, OECD Publishing, Paris.

Patel, S.R., N.T. Ayas, M.R. Malhotra et al. (2004), “A Prospective Study of Sleep Duration and Mortality Risk in Women”, Sleep, Vol. 27, No. 3, pp. 440-444.

Stiglitz, J., A. Sen and J.-P. Fitoussi (2007), “Report by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www.stiglitz-sen-fitoussi.fr.

United Nations (1995), Human Development Report,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United Nations (2000), “Country Report : India. Conducting the Time Use Survey–Indian Experience”, Gender Issues in the Measurement of Paid and Unpaid Work, Expert Group Meeting on Methods for Conducting Time-Use Surveys. 23-27 October, New York.

White, M.P. and P. Dolan (2009), “Accounting for the Richness of Daily Activities”, Psychological Science, Vol. 20, No. 8, August, pp. 1000-1008.

제 2 장

OECD 사회지표 해석

사회지표의 목적

한 눈에 보는 사회 2011 (Society at a Glance 2011)에서는 다음 두 질문에 관한 정보를 제시한다.

- 과거 및 다른 OECD회원국과 비교했을 때 각국이 성취한 사회적 발전은?
- 더 큰 발전을 위한 각 사회의 노력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가?

사회적 발전에 관한 첫번째 질문에 답하려면 과거부터의 광범위한 사회적 결과를 포괄하는 지표들이 필요하다. 사회발전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 뿐만 아니라 보건, 교육, 경제적 자원의 개선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모든 측면에 대한 지표들이 있어야 한다.

사회적 효과성에 대한 두번째 질문은 더욱 답하기 까다롭다. 각 사회는 정부 정책을 통해 사회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정책이 목표달성에 효과적인지 여부는 중요한 사안이다. 지표는 이러한 평가를 하는데 도움을 준다. 첫 단계는 여러 국가에서 결과를 바꾸기 위해 사용된 자원들을 비교하고 사회적 결과와 대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교가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포괄적 평가와는 거리가 멀지만 지표는 더 많은 평가 작업이 필요한 영역을 강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OECD 사회지표의 구성체계

본 보고서에 적용된 구성은 사회지표 전체를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지표만을 나열한 목록도 아니다. 이 체계는 다양한 분야의 정책 및 결과 평가에 관한 OECD사무국 내 다수 부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특히 환경 지표에 관한 OECD의 경험을 많이 참조하고 있다. 이러한 지표는 “압력-상태-대응”(PSR)이라는 체계*로 조직되어 있다. 본 체계에서 인간의 활동은 환경에 압력을 행사하며 이것은 환경적 조건 및 자연 자원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이러한 변화에 대한 사회적 대응을 촉발한다. PSR 체계는 이러한 순차적 연결을 강조하며 이것은 의사결정권자들과 일반대중이 간과하기 쉬운 상호 연계성을 강조해준다.

본 보고서에서는 사회지표에 대해 유사한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지표는 그 성격과 해당 정책 분야라는 두 가지 영역으로 분류되었다. 첫번째 영역은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뉜다.

1. 사회적 맥락 (Social Context) 변수는 직접적인 정책 목표는 아니지만 사회정책의 맥락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총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정책 목표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예컨대 보건, 조세 또는 연금정책 대응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환경에 관한 유의미한 정보가 된다. 다른 지표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맥락 지표의 추이도 “좋다” “나쁘다”로 불확실하게 해석할 수 없다.

* PSR 체계 자체는 UN 지속가능 개발 위원회에서 사용한 “DSR (추진력-상태-대응)” 모델과 유럽 환경청에서 사용한 “DPSIR (추진력-압력-상태-영향-대응)” 모델을 만든 접근방식을 응용한 것이다.

2. **사회적 지위 (Social status)** 지표는 정책이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사회적 결과를 설명한다. 이들 지표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태를 보여준다. 이상적으로는 선정된 지표들은 쉽고 명확하게 해석되는 것들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모든 국가는 높은 빈곤율보다는 낮은 빈곤율을 원할 것이다.

3. **사회적 반응 (Societal response)** 지표는 사회가 사회적 지위 지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사회적 반응은 정부 정책 지표를 포함한다. 그 외에도 비 정부기구, 가족, 좀더 광범위한 시민사회의 활동도 사회적 반응과 연관되어 있다. 사회적 반응 지표를 사회적 지위 지표와 비교하면 정책의 효과성을 우선 파악할 수 있다.

사회지표들이 위의 세 그룹으로 분류되지만 맥락과 지위 카테고리 사이의 구분은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출산율을 낮추는 것이 중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정책 목표가 될 수 있지만 호주 같은 국가에서는 낮은 출산율이 사회정책의 맥락의 일부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가족 붕괴가 어떤 국가에서는 공공정책의 실패로 간주될 수 있지만 또 어떤 국가에서는 명백한 정책적 우려사안이 아닐 수도 있다.

여기에서 사용된 사회적 맥락,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반응 지표의 중요한 한계점은 이들 지표가 국가적 차원에서 제시된다는 점이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상당한 정도의 연방제가 시행되는 회원국들의 경우 지표들이 맥락과 결과, 사회적 대응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이유로 연방 내 각 지역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 제시된 지표를 고려할 때에는 이러한 한계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OECD 프레임워크의 두번째 영역은 광범위한 해당 정책 분야에 따라 지표가 분류되었다. 네 개의 사회 정책 목표가 사회적 지위 및 사회적 대응 지표를 분류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1. **자활 (Self-sufficiency)**은 사회정책의 근본적인 목표이다. 자활은 사람들의 적극적인 사회적, 경제적 참여와 일상 활동에서의 자율성 보장을 통해 촉진될 수 있다.
2. **형평성 (Equity)**은 사회정책의 또 다른 오랜 목표이다. 형평성의 성과는 사람들과 가족들의 자원접근성 측면에서 주로 측정된다.
3. **보건 (Health)**은 보건의료시스템의 근본적인 목표인데 보건수준을 향상시키려면 그것의 사회적 결정 요인에 좀더 광범위하게 초점을 맞춰 보건수준을 사회정책의 중심 목표로 만들어야 한다.
4. **사회통합 (Social Cohesion)**은 국가 사회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사회통합의 의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광범위한 사회현상을 통해 사회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통합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정도에서 좀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지표의 선정과 세부내용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사회지표를 취합하고 생산하는 방식에 있어 서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보고서를 위한 지표를 선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고려했다.

- 국가간 지표를 비교하기 위해 최소한 어느 정도의 비교성이 필요한가? 본 보고서에서는 다루고 있는 각 분야 별로 가장 비교하기 쉬운 정보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제시된 지표들은 “절대적인” 비교성이 존재하는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래도 독자들은 사용된 자료의 성격과 비교성의 한계점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
- 최소한 몇 개국의 자료가 제시되어 있는가? 본 보고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의 대다수에 대해 나와 있는 지표들만 포함하고 있다.
- 국가차원에서 어떤 분류를 사용해야 하는가? 사회지표는 국가 차원에서 사람들의 연령, 성별, 가족유형 등 사회적 하위 범주 별로 결과를 분류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분류는 실용성을 고려하여 대상 지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다.

제 4장부터 8장까지는 핵심 근거를 설명하고 있다.

개별 지표들은 사회정책의 여러 영역에 관련된 경우가 있다. 다시 말해 하나 이상의 카테고리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움없이 일상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사회통합, 자활, 그리고 보건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지표들을 가장 관련성이 큰 것으로 간주되는 범주에 포함시켰다.

본 보고서에서 각 지표에 연결된 코드(예 : GE1)는 정책분야에 연관시키기 위한 것이며 (하단 표 참조) 지표에 붙은 숫자는 교차 참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사용된 지표의 명칭과 코드는 이전에 발간된 한 눈에 보는 사회 : 아시아/태평양 판과 다를 수 있으나 앞서 다루어진 영역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기울였다.

일반지표 (GE)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대응 지표를 비교할 때에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들에 비교해 저조하다’ 또는 ‘한 국가가 특정 영역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의미로 보면 쉽다. 이러한 평가를 좀더 광범위한 맥락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국민소득수준은 OECD 회원국 별로 차이가 있다. 소득과 건강 간에 관련이 있다면 부유한 국가는 사회적 대응에 관계없이 빈곤한 국가보다 건강 상태가 좋을 것이다. 보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소득증가에 따라 높아진다면 (실제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부유한 국가는 빈곤한 국가보다 보건분야에 더 많이 지출할 것이다(국민소득 대비 비율 기준). 이러한 관찰결과와 보건수준과 의료비지출 지표에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책적 영향을 고려할 때에는 자료 이면의 일반적 맥락을 염두에 두어야 함은 확실하다.

출산율, 결혼, 이혼, 이민, 부양률 등을 포함하고 있는 일반지표 (GE)는 본 보고서의 다른 지표들에 대한 일반적인 배경정보를 제공한다. 1인당 GDP는 그 자체로 사회적 결과이며 그 사회의 평균적인 물질적 웰빙을 나타낸다.

표 2.1. 일반지표 (GE)

GE1. 1인당 GDP
GE2. 출산율
GE3. 결혼과 이혼
GE4. 이민
GE5. 부양률

자활지표 (SS)

많은 이들에게 유급 고용 (SS1)은 소득, 정체성, 사회적 상호작용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제도 역시 근로자들의 기여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유급고용을 촉진하는 것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우선과제가 되고 있다. 실업상태 (SS2)라는 것은 일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부양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미이다. 교육 (SS3)은 인적자원축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더 나은 교육은 현재와 미래에 좀 더 오랜 기간동안의 자활 및 유급고용을 가능하게 해준다. 조기 교육 (SS4)은 어머니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앞으로의 학습의 토대가 된다. 교육 지출 (SS5)은 자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수행하는 주요 사회적 대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표 2.2는 OECD 회원국이 그동안 국민들과 그 가족들의 자활촉진이라는 목표 달성에 있어 성공적이었는지를 평가하는데 가장 유의미한 사회적 지위 및 사회적 대응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표 2.2. 자활 지표 (SS)

사회적 지위	사회적 대응
SS1. 고용	
SS2. 실업	
SS3. 교육	
SS4. 조기교육	
SS5. 교육지출	
EQ1. 빈곤	EQ5. 사회적 지출
EQ2. 소득 불균형	

주 : 이탤릭 체로 된 지표는 다른 섹션에 제시되어 있지만 자활 평가에도 관련있는 지표임.

형평성 지표 (EQ)

형평성은 여러 측면을 갖고 있다. 결과의 형평성뿐 아니라 사회 서비스 및 경제적 기회에 접근성과도 관련되어 있다. 정확히 무엇이 공평하고 정당한 기회의 분배를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분분하다. 뿐만 아니라 형평성의 모든 측면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 형평성 지표는 재정 자원의 불평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빈곤 (EQ1)은 사회 최하층의 형평성을 고려하는데 있어 자연스러운 출발점이 된다. 여기에서는 빈곤의 절대적 지표가 사용되는데 아태 지역 국가 중 상당수가 매우 빈곤하기 때문이다. 절대적 빈곤 지표 외에 분포 범위 전반의 상대적 불평등 지표도 고려된다 (EQ2). 일부 대규모 아태지역 국가에서는 남아와 여아의 생존 기회의 차이도 중요한 특성이며 이러한 것들은 남녀 비율 (EQ3)의 고려로 다뤄진다. 연금제도의 적용 범위와 노령연금소득 대체율은 사회가 노인들을 얼마나 공정하게 대우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표 2.3. 형평성 지표 (EQ)

사회적 지위	사회적 대응
EQ1. 빈곤	EQ5. 사회적 지출
EQ2. 소득 불균형	
EQ3. 남녀비율	
EQ4. 연금	
SS1. 고용	HE5. 보건 지출
SS2. 실업	
SS3. 교육	

주 : 이탤릭체로 된 지표는 다른 섹션에 제시되어 있지만 형평성 평가에도 관련있는 지표임.

(EQ4). 많은 아태지역 국가들은 다양한 비상사태에 대비해 자원을 재분배하고 보장하는 사회 보호 제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개입은 공공 사회 지출 (EQ5)에 의해 요약된다.

보건지표 (HE)

사회현상과 건강상태와의 연관성은 크다. 실제로 학력신장과 공중보건 지표, 의료서비스의 높은 접근성, 의료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은 기대여명 (HE1)에서 알 수 있듯이 건강수준의 유의미한 개선에 기여해왔다. 기대여명의 개선은 영아 사망률 (HE2) 감소를 상당부분 반영한다. 식수와 위생 (HE3)은 많은 아시아/태평양 국가에서 중요한 공중보건 사안이며 질병의 전염을 통해 기대여명과 영아 사망률 양쪽 모두에 상당한 연관성을 가진다. 성인의 신장 (height)은 누적된 순 영양상태 및 아동기 전반에 걸친 성인들의 질병 부담을 나타낸다 (HE4). 의료비 지출 (HE5)은 건강상태에 대한 보건의료제도 정책대응의 일반적이고도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때때로 보건문제는 실업, 빈곤, 주택부족과 같은 보건 정책의 범위를 넘어선, 상호 연관된 사회적 상황에 뿌리박혀있는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보건당국 개입의 효과성은 지출수준 그 자체 보다는 낮은 건강보험 적용범위나 공동납부의 역할 등과 같은 의료혜택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보건의료제도의 다른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표 2.4. 보건지표 (HE)

사회적 지위	사회적 대응
HE1. 기대여명	HE5. 의료비 지출
HE2. 영아 사망률	
HE3. 식수와 위생	
HE4. 성인 신장	
	EQ5. 사회적 지출

주 : 이탤릭 체로 된 지표는 다른 섹션에 제시되어 있지만 보건 평가에도 관련있는 지표임.

사회통합지표 (CO)

많은 국가에서 사회통합 촉진을 중요한 사회정책의 목표로 여긴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수용되는 정의가 없기 때문에 적합한 지표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한 눈에 보는 사회 : 아시아/태평양 판에서는 사회

통합에 관해 새롭고 개선된 지표를 찾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한 눈에 보는 사회에서 채택한 접근 방식은 시민들이 사회적 삶에 참여하고 그들의 일상 활동으로부터 만족을 얻는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나 사람들을 사회적 소외의 위험에 몰아넣는 다양한 병리현상과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 또는 사회적 갈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통해 사회통합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었다.

삶의 만족도는 좋은 가족관계와 좀더 광범위한 사회에 대한 신뢰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CO1). 타인에 대한 신뢰라는 일반지표 (CO2)는 경제적, 사회적 교류가 용이하여 웰빙을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집단 행동을 촉진하는 정도를 나타낼 수 있다. 친 사회적 행동은 자신의 돈이나 시간을 기부하거나 낯선 사람을 돕는 등 사회의 긍정적 기능에 기여하는 행동이다. 비리 등 반 사회적 행동은 그 반대의 행동을 의미한다 (CO3). 자살은 개인적 붕괴의 증거일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사는 사회적 맥락의 악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CO4). 높은 투표율은 한 국가의 정치체제가 높은 수준의 참여로 이루어져 그 효과성이 증진되고 그 정당성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CO5).

표 2.5. 사회통합지표 (CO)

CO1. 삶의 만족도
CO2. 신뢰수준
CO3. 사회적 행동
CO4. 자살
CO5. 투표

본 보고서의 구성

본 보고서의 4장부터 8장까지 다루고 있는 다섯 영역에서는 다섯 가지 지표를 각각 한 장에 담아 도표들과 함께 설명을 담았다. 도표와 설명 모두 어느 정도 표준화된 형식을 따르고 있다. 설명은 해당 지표를 포함시킨 이유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설명과 도표 모두 가장 최근의 헤드라인과 지표, 데이터를 담고 있으며 국가별 순위가 등수별로 나와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지표의 변화는 오른쪽 도표에 반영되어 있다. 25개 지표마다 표준화된 도입부와 도표를 실은 것은 독자가 쉽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변화를 측정할 기간은 부분적으로는 자료의 한계에 따라 결정한 경우도 있었지만 이상적으로는 1) 사회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비교해보기 위해 지난 세대에 걸친 변화 또는 2) 최근의 부정적인 경제상황이 사회 지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연구할 수 있도록 현재의 경제 위기 기간 중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지표와 변화를 다루고 난 후에는 흥미로운 지표의 대안적 분류 또는 다른 사회적 결과나 정책과의 관계를 다룬다. 각 지표를 다룬 장의 “정의와 측정방법” 부분은 사용된 자료의 정의와 잠재적 측정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도움이 될만한 참고문헌을 담은 경우도 있다.

제 3 장

한 눈에 보는 사회 : 개요

한 눈에 보는 사회 2011 : 아시아/태평양 판에서는 아래 제시된 25개 사회적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간략한 요약에 제공하면 유용할 것 같아 한 눈에 보는 사회 : 개요를 마련했다. 한 눈에 보는 사회 2009에서는 표를 통해 요약이 이루어졌다. 그 표에는 각 장 당 두 개의 지표가 들어갔는데 이 지표들은 각각의 연역적 중요성을 기준으로 회원국들과의 논의를 통해 선정했고 성과가 상위 두 개 십분위에 속하면 “초록색 동그라미”, 중간 여섯 개 십분위는 “노란색 삼각형”, 하위 두 개 십분위는 “빨간색 다이아몬드”로 표시한 바 있다.

이와 유사하게 이번 보고서에서는 아래와 같이 “신호등” 방식이 사용되었으나 모든 관련 지표를 포함한 것이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다. 25개 지표 중 일부는 배제되었는데 명확하게 해석 (예컨대 값이 크면 바람직한 것이고 값이 작으면 바람직하지 않은 것)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었다. 일반지표 (GE)의 경우 가구소득만 명확한 해석이 가능했기 때문에 다른 지표들은 배제했다. 그 외에도 사회적 대응 지표 (교육, 사회적 지출과 보건지출)도 빠졌는데 그것은 이들 지표가 정책상 고려사항이지 사회적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표의 변화에 대해서도 비슷한 신호등 방식의 표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자료 관련 이유 때문에 사용하지 못했다. 우선, 수준 자료와 비교해 변화 자료가 빠져 있는 국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표가 요약에 비해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변화는 일관된 기간에 걸쳐 고려될 수가 없었다. 사실, 어떤 기간의 변화들을 비교해야 할 지가 명확하지 않다. 변화가 천천히 일어나는 일부 지표의 경우 단기간에 빠른 변화를 보이는 지표들보다는 더 오랜 기간을 선택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부 지표가 빠지면서 25개 사회지표 중 18개만이 표 3.1에 요약되어 나타나 있다. 동그라미는 상위 두 개 십분위, 삼각형은 중간 여섯 개 십분위, 다이아몬드는 하위 두 개 십분위를 나타낸다. 국가별 지표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빈칸으로 남겨 두었다.

국가별 비교 측면에서 표 3.1의 의미와 해석에 대해 몇 가지 경고를 해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국가마다 정책의 우선순위가 다르다. 여기에서 고려되고 있는 사회적 결과보다는 경제적 결과 (인플레이션, GDP, 재정적 균형 등)에 더 우선순위를 둘 수도 있다. 이 경우 표 3.1에 붉은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회적 결과는 해당 국가가 다른 분야에서의 성공을 위해 기꺼이 치르고 있는 대가일 수도 있는 것이다. 또는, 사회적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라고 한다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결과를 “동그라미”로 만들기 위해 많은 “다이아몬드”를 기꺼이 맞바꾸는 것을 감수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고려되지 않은 다른 사회적 결과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그 결과에 더 큰 우선순위를 둘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 나오는 다이아몬드, 삼각형, 동그라미는 단순히 국가별로 어떤 결과를 선호하느냐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여기 등장하는 패턴들은 사회적 결과가 현재 또는 최근의 정책 환경보다는 비교적 천천히 변화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결과간의 선택적교환 (트레이드오프)는 정책 선택과는 관련이 없는 사회적, 또는 문화적 차이 때문에 국가별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는 해당 정책 노력을 위한 결과를 좀더 쉽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이유 때문에 초록색 또는 빨간색 지표의 수를 더하는 방식과 같은 통합적 사회 지수로 각국의 성과를 순위 매기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표 3.1.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의 사회적 상황 개요

"동그라미" (●)는 상위 2개 심분위에 속한 국가, "다이아몬드" (◆)는 하위 2개 심분위, "세모" (▲)는 중간 6개 심분위에 속한 국가들이다.

OE1	SS1	SS2	SS3	SS4	EQ1	EQ2	EQ3	EQ4	HE1	HE2	HE3	CO1	CO2	CO3	CO4	CO5
인당 GDP (2009 USD)	고용률 (%)	실업률 (%)	평균 교육기간	조기교육 참여율 (%)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인구비율 (%)	지니계수 (%)	성비 (0-4세 인구) 여아 100명당 남아 수	연금가입율 전체 노동력 중 비율	출생 시 기대여명 총인구, 년	영아사망률 (출생 아 천명당) 남녀	위생시설을 확보한 인구 비율 (%)	10단계의 행위점수	타인을 신뢰하는 사람 비율 (%)	세계기부 지수 점수 (0점-1점)	10만명당 사상건 수	투표율 (%)
2008	2009	2009	2010	2000년대 중반	2000년대 중반	2000년대 중반	2000년대 중반	가장 최근 연도	2008	2008	가장 최근 연도	가장 최근 연도	가장 최근 연도	2009	2000년대 중반	가장 최근 연도
아르메니아	▲	◆	●	▲	▲	◆	◆	▲	▲	▲	▲	◆	▲	▲	●	◆
호주	●	▲	●	●	●	●	▲	●	●	●	●	●	●	●	▲	●
아제르바이잔	▲	▲	▲	▲	●	●	▲	▲	▲	▲	◆	▲	▲	▲	●	●
방글라데시	◆	●	▲	▲	◆	●	●	◆	▲	▲	▲	▲	▲	◆	▲	●
부탄	▲	▲	●	●	▲	▲	●	◆	◆	▲	▲	●	●	●	▲	▲
브루나이 다루살람	●	▲	▲	▲	●	●	▲	▲	●	●	●	●	●	●	●	●
캄보디아	◆	●	▲	▲	▲	▲	◆	●	▲	◆	◆	◆	●	◆	◆	▲
중국	●	●	▲	▲	●	●	◆	●	▲	▲	▲	◆	●	◆	◆	●
피지	▲	◆	●	▲	●	◆	▲	●	▲	▲	●	●	●	●	●	●
홍콩 (중국)	●	▲	▲	▲	●	◆	◆	●	●	●	●	▲	▲	●	▲	●
인도	▲	●	◆	▲	▲	◆	◆	◆	◆	◆	◆	▲	▲	▲	◆	◆
인도네시아	▲	▲	◆	▲	▲	◆	◆	●	◆	◆	▲	▲	▲	▲	◆	▲
일본	●	▲	●	●	●	◆	▲	●	●	●	●	●	▲	▲	◆	▲
카자흐스탄	▲	●	▲	▲	▲	●	▲	▲	▲	▲	●	▲	●	▲	◆	▲
북한	●	●	●	●	●	●	▲	●	▲	▲	●	●	●	●	▲	●
한국	●	▲	●	●	●	●	◆	▲	●	●	●	●	▲	▲	◆	◆
키르기스스탄	▲	▲	▲	▲	▲	▲	●	▲	▲	▲	▲	▲	▲	▲	▲	▲
라오스	◆	●	◆	◆	◆	▲	●	●	◆	▲	●	▲	●	●	◆	●
마카오 (중국)	▲	●	▲	●	●	▲	▲	▲	▲	●	●	●	●	●	▲	●
말레이시아	▲	▲	▲	▲	●	▲	▲	▲	▲	▲	▲	▲	◆	▲	▲	▲
몰디브	▲	●	▲	▲	▲	▲	●	▲	▲	▲	●	●	●	●	▲	▲
몽골	▲	▲	▲	▲	▲	▲	▲	▲	▲	▲	▲	●	●	●	▲	▲
미얀마	◆	●	◆	●	●	●	●	●	◆	◆	◆	●	●	●	▲	●
네팔	◆	●	◆	●	●	●	▲	●	▲	▲	◆	●	●	▲	▲	●
뉴질랜드	▲	▲	▲	▲	▲	▲	▲	●	●	●	●	●	●	●	▲	▲
파키스탄	▲	◆	◆	●	●	●	▲	◆	▲	◆	◆	▲	▲	◆	▲	◆
파푸아뉴기니	▲	●	◆	●	●	◆	▲	●	▲	◆	◆	●	●	●	●	◆
필리핀	▲	▲	◆	▲	▲	▲	▲	▲	▲	▲	▲	▲	◆	●	●	◆
사모아	▲	▲	●	▲	▲	◆	◆	●	▲	▲	●	●	●	●	▲	▲
싱가포르	●	▲	▲	▲	●	◆	▲	●	●	●	●	●	◆	▲	▲	●
스리랑카	▲	◆	▲	▲	●	▲	●	▲	▲	▲	▲	◆	●	●	◆	▲
타지키스탄	◆	●	▲	▲	◆	▲	▲	●	▲	▲	▲	▲	●	▲	●	●
태국	▲	●	●	●	●	▲	▲	▲	▲	▲	▲	●	▲	▲	▲	▲
통가	◆	●	●	●	◆	▲	▲	●	◆	▲	▲	●	●	●	▲	●
동티모르	◆	●	●	●	◆	▲	▲	●	◆	▲	▲	●	●	●	▲	●
통가	▲	●	●	▲	▲	▲	▲	▲	▲	▲	▲	▲	●	●	▲	●
베트남	▲	◆	▲	▲	▲	▲	▲	▲	▲	▲	▲	▲	●	◆	▲	●

제 4 장

일반지표 (GE)

GE1. 1인당 GDP
GE2. 출산율
GE3. 결혼과 이혼
GE4. 이민
GE5. 부양률

GE1. 1인당 GDP

1인당 국내총생산(1인당 GDP)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경제적 성과 지표이다. 이 지표는 자국 내에서 생산되고 판매된 상품과 서비스의 합을 측정하여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평균 낸 값이다.

아태지역 내 국가별로 1인당 GDP의 차이가 크다 (패널 A, GE1.1). 이 지역에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와 가장 빈곤한 국가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호주의 1인당 GDP는 미얀마의 180배에 달한다. 아태지역의 OECD 회원국들은 브루나이, 싱가포르, 홍콩 (중국) 등 1인당 GDP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1인당 GDP가 매우 낮은 국가로는 티모르, 네팔,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이 있다. 아태지역 내 1인당 GDP 차이는 OECD 내 차이 보다 훨씬 더 크다.

1995년부터 2008년까지의 1인당 GDP 성장률도 큰 차이를 보였다 (패널 B, GE1.1). 연평균성장률은 브루나이의 경우 거의 -1% 정도였고 미얀마, 중국,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은 8%에 달했다. 신흥경제대국 인도 역시 선전했다. GDP 성장률이 가장 낮았던 6개국이 모두 섬나라-브루나이, 파푸아뉴기니, 피지, 일본, 통가, 뉴질랜드-라는 사실도 흥미롭다. 물론 이들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은 서로 차이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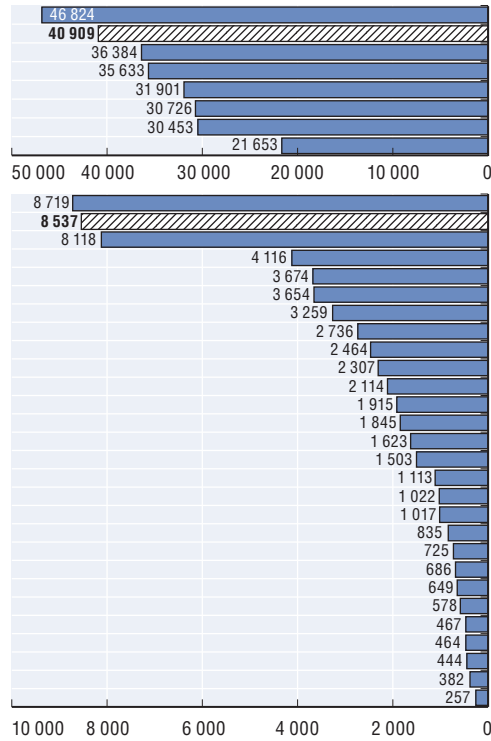
아태지역의 빈국들은 부국보다 성장속도가 빠른 경향을 보인다 (GE 1.2). 1995-2008년의 1인당 GDP 성장률과 1995년 1인당 GDP 수준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 지역에서는 빈국들이 부국들을 따라잡고 있으며 이는 GDP

수렴이라는 경제 이론의 증거가 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중국은 GDP 수준을 고려했을 때 예상보다 빠르게 따라잡고 있으며 네팔과 파푸아뉴기니는 예상보다 느린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파푸아는 수렴하지 않고 이탈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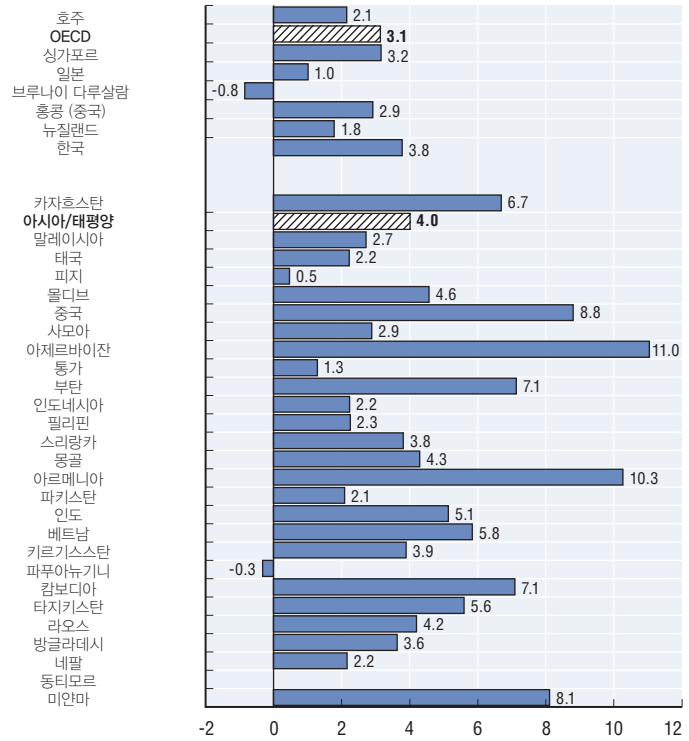
정의와 측정방법

국민계정체계 (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에서 제공하는 지표 중 1인당 GDP는 국가간 경제 규모를 비교하는데 가장 흔히 이용된다. 1인당 GDP는 2009년 USD로 표시한 국가의 GDP를 그 나라의 총 인구수로 나누어 계산됐다. 2009년의 USD를 사용한 것은 국내통화를 환산하여 국가간 비교를 가능케 하기 위함이다. 1인당 GDP의 연평균성장률은 국내통화로 나타낸 1인당 GDP를 사용해 계산했다. 자료는 2009 국제통화기금 세계경제전망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www.imf.org/external/pubs/ft/weo/2009/02/weodata/weoselco.aspx?g=2001&sg=All+countries)에서 가져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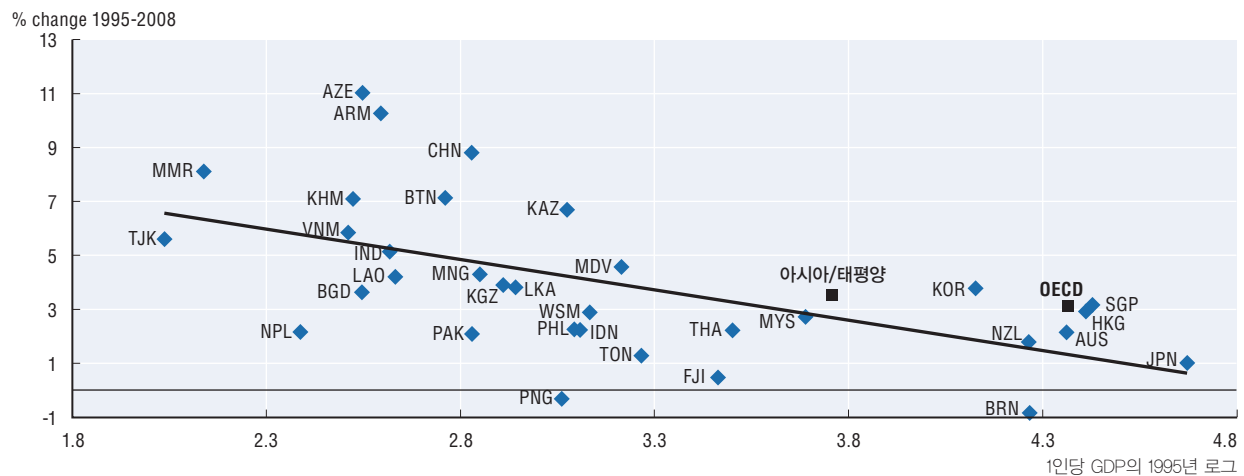
GE1.1. 1인당 GDP와 최근의 추이

패널 A. 현재 1인당 GDP (\), 2008 또는 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 2009 USD

패널 B. 1인당 GDP의 실질 연평균성장률 1995-2008



GE1.2. 아태 지역의 1인당 GDP는 수렴하고 있다.

출처: 2009 국제통화기금 세계경제전망 온라인데이터베이스(www.imf.org/external/pubs/ft/weo/2009/02/weodata/weoselco.aspx?g=2001&sg=All+countries).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546167>

GE2. 출산율

합계 출산율 (Total Fertility Rate, TFR)은 여성이 평생 낳게 되는 평균적인 자녀 수를 말한다. 인구는, 영아기와 아동기의 사망률을 감안해 합계출산율이 2를 약간 넘으면 인구대체 수준을 유지한다.

아태지역의 출산율은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GE2.1). 마카오 (중국)의 경우 여성들은 평균 1명 미만의 자녀를 낳는 반면 동티모르 여성들은 평균 6.5명의 자녀를 둔다. 출산율은 부유한 국가 (홍콩 (중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인도를 제외한 신흥국 (중국,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구 소련 국가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훨씬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동티모르, 파푸아 뉴기니, 통가, 사모아 등 태평양 도서국가와 파키스탄의 경우 출산율이 높다. OECD와 달리 아태 지역 국가의 과반수는 인구대체율을 초과하는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지난 30년간 출산율은 빠르게 하락했다 (GE2.1). 이미 인구학적 과도기를 거친 기타 OECD 국가들은 출산율이 연평균 1%로 느리게 하락했다. 출산율 하락 속도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서로 다른 인구학적 과도기 단계에 놓여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몽골, 베트남, 몰디브, 태국, 중국 등 출산율의 빠른 하락을 경험한 국가들은 현재 인구학적 과도기의 막바지에 접어들어서 2008년 출산율은 OECD 출산율과 거의 비슷하다.

많은 아시아 국가들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많은 부부들로 하여금 적은 수의 자녀를 원하도록 만들고 있고 출산조절은

이미 문화적으로 수용가능한 것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출산율 하락은 1970년대 초 시작된 중국의 한 자녀 정책 등 제한 정책을 통해 장려되기도 했다.

부유한 국가의 경우 낮은 출산율을 보인다 (GE2.2). 1인당 GDP와 여성 한 명당 출생아 수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의료비 지출 증가 (HE2참조), 기대여명 증가 (HE1 참조), 사망률 감소 (HE4 참조), 여성의 교육 및 노동 참여율 증가 (EQ2, SS1, SS3) 등 인간개발 (human development)의 개선은 출산율 감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출산율 감소가 생활 수준의 사회-경제적 개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빈국들은 OECD 국가들이 그랬듯이 소득 수준이 증가하면서 출산율의 감소를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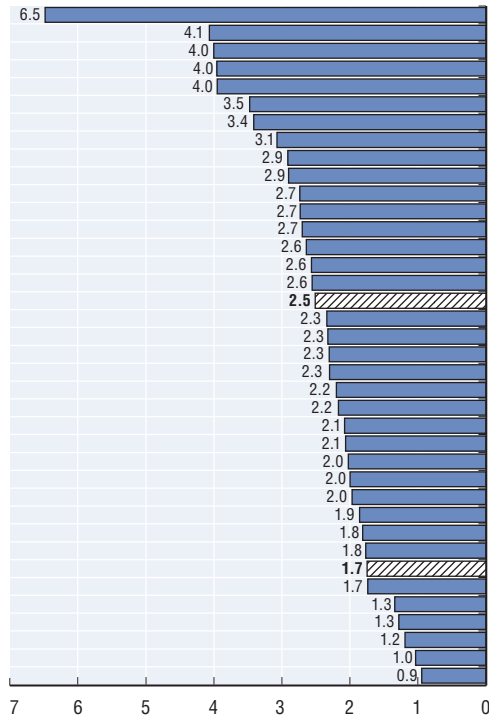
정의와 측정방법

특정년도의 합계출산율은 여성이 가임기가 끝날 때까지 생존하고 각 인생 단계에서 자녀를 출산할 확률이 현재의 일반적인 연령별 출산율을 따른다고 할 때 한 여성에게 태어날 자녀의 수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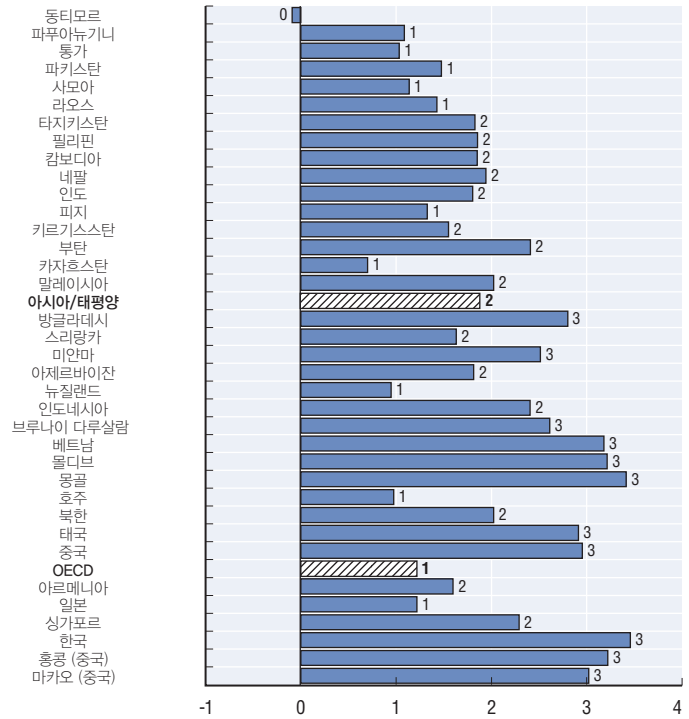
여기에 제시된 데이터는 세계은행의 세계발전지수(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2009, <http://devdata.worldbank.org/data-query>)에서 가져온 것이다.

GE2.1. 출산율과 그 변화

패널 A. OECD보다 높은 아태지역 출산율
합계출산율 (여성 한 명당 출생아 수) 200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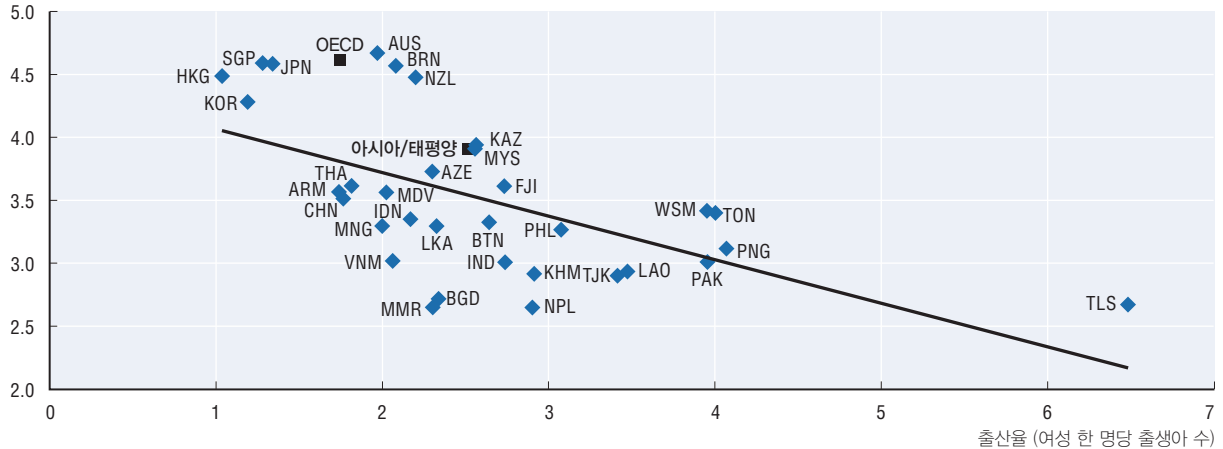


패널 B. 아태지역 출산율의 빠른 감소
연평균 감소율, 1970-2008



GE2.2. 부유한 국가일수록 낮은 출산율을 보인다.

1인당 GDP, 2008, USD (log)



출처 : 세계은행 세계발전지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2009, <http://devdata.worldbank.org/data-query>).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546186>

GE3. 결혼과 이혼

결혼과 이혼은 모든 아시아/태평양 국가에 있어서 근본적인 사회 체제인 가족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혼 뿐 아니라 성인간 결합의 형태로서의 결혼에 대한 문화적 태도와 접근방식은 아태지역 내에서도 국가마다 크게 다르다.

아태지역에서는 결혼율과 이혼율 모두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패널 A, GE3.1). 조혼인율 (Crude marriage rates)은 몰디브와 타지키스탄, 방글라데시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혼율이 가장 낮은 곳은 사모아, 마카오 (중국), 뉴질랜드, 호주, 태국이었다. 이혼율을 보면 몰디브의 조이혼율 (Crude divorce rate)은 아태지역 국가 평균의 세배였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타지키스탄, 몽골,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에서는 결혼율이 높은 반면 이혼율은 낮게 나타났다.

지난 20년간 이혼율보다는 결혼율의 변화가 훨씬 두드러졌다 (패널 B, GE3.1). 결혼율은 몰디브에서 가장 급격히 감소했는데 4퍼센트 포인트 하락했다. 동시에 몰디브의 이혼율 하락 역시 가장 빨라서 5퍼센트 포인트였다. 중국, 타지키스탄, 몽골에서는 결혼율이 크게 증가했다.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와 같은 부유한 국가들에서는 결혼율이 감소했다. 한국과 홍콩 (중국), 일본에서는 이혼율이 느리지만 확실한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는 1980년 이래 계속적인 증가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조이혼율의 경우 1980년부터 2004년 사이에 거의 두 배가 되었다.

가족 형태의 세대간 패턴 역시 아태 지역 내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GE3.2). 인도, 태국, 방글라데시의 성인들은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반면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낮았다. 이러한 차이는 문화적인 것과 복지상태의 규모에 의한 영향으로부터 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일부 가족 관계를 대체하고 있다. 주택공급과 주택시장의 성격도 일정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태국과 베트남은 예외) 성인 아들이 성인 딸보다 부모 집에서 거주하는 확률이 높았는데 이는 가부장적 전통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특히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에서 확실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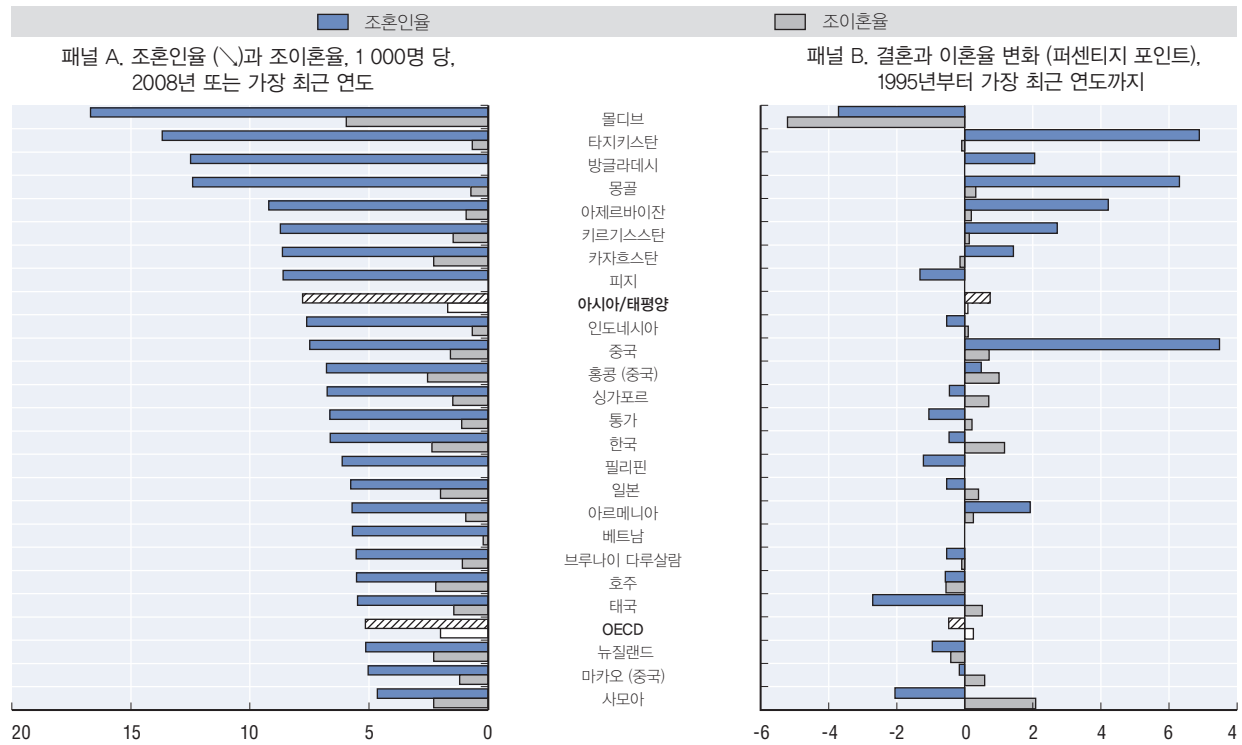
중국의 높은 결혼율은 중국 성인인구 중 기혼자 비율이 매우 높은 현상을 반영한다 (GE3.3).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패턴이 유사했다. 뉴질랜드, 호주 등 많은 나라에서는 동거가 일반적이었으나 그 외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별거 중이거나 이혼한 성인은 중국과 인도, 인도네시아에서는 드물었다.

정의와 측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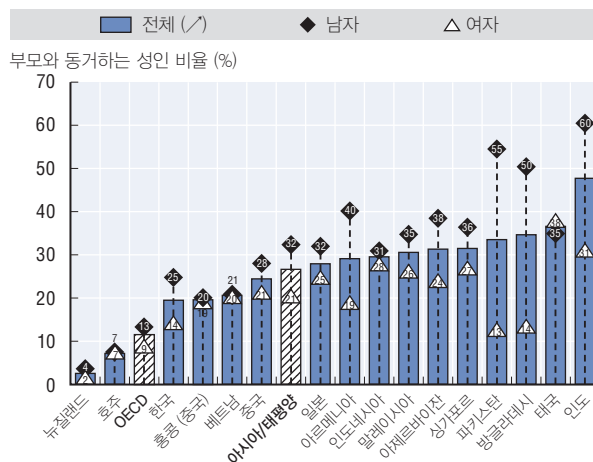
조혼인율은 매년 전체 성인 인구 중 혼인한 수의 비율로 계산한다. 마찬가지로 조이혼율은 전체 성인 인구에서 매년 이혼한 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조혼인율과 조이혼율 자료는 인구 천 명 당 숫자로 표현한다. 부모와 동거하는 성인들의 비율은 24세 이상 응답자 중 “부모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사람의 수를 24세 이상의 전체 성인 인구 수로 나눈 비율이다.

여기에 사용된 자료는 UN 경제사회처 통계국의 1997년과 2008년 인구통계 연감 (http://unstats.un.org/unsd/demographic/products/dyb/2000_round.htm)과 UN 경제사회처 인구국의 2008 세계 결혼 데이터 (www.un.org/esa/population/publications/WMD2008/WP_WMD_2008/Data.html)에서 가지고 왔다. 부모와 동거하는 성인들에 관한 자료는 세계 가치 조사 데이터베이스 (www.wvsevsdb.com/wvs/WVSanalyze.jsp)를 출처로 하고 있다. 국가별로 나와 있는 가장 최근의 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대상 기간이 1997년부터 2008년까지 분포되어 있다. 가능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제시된 가중치를 사용했다. 파트너의 지위 자료는 갤럽 세계 조사에서 인용된 것이다.

GE3.1. 결혼 및 이혼과 최근의 추이



GE3.2. 부모와 동거하는 성인



GE3.3. 일부 아태지역 국가에서의 파트너의 지위

성인 인구 중 비율 %	기혼 (\\)	동거인	별거나 이혼	사별	미혼	합계
중국	79	0	1	2	18	100
인도	75	0	1	3	21	100
인도네시아	72	0	1	6	21	100
일본	68	0	4	5	23	100
한국	63	0	1	3	34	100
호주	54	8	6	4	27	100
뉴질랜드	53	12	6	4	25	100

주: 일자는 결혼 자료를 참조했으며 이혼율 자료는 다를 수 있음.

출처: UN 경제사회처 통계국의 1997년과 2008년 인구통계 연감 (http://unstats.un.org/unsd/demographic/products/dyb/2000_round.htm)과 UN 경제사회처 인구국의 2008 세계 결혼 자료 (www.un.org/esa/population/publications/WMD2008/WP_WMD_2008/Data.html). 부모와 동거하는 성인에 관한 자료는 세계 가치 조사 데이터베이스를 출처로 함.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546205>

GE4. 이민

이민자들은 이주해 간 국가에 사회, 경제적 역동성과 상당한 긍정적 다양성을 제공한다. 아태지역의 많은 국가에서 숙련 인력들이 해외이민으로 이탈하는 문제는 당면한 정책사안이다. 필리핀과 사모아 등의 국가들은 소득을 이민자들의 송금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총 인구 중 해외 이민자의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인다 (패널 A, GE4.1). 싱가포르, 마카오 (중국), 홍콩 (중국)의 경우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해외 출생자들이다. 호주와 뉴질랜드 역시 이민자 비율이 상당히 높아 아태지역 다른 국가로부터의 높은 이주 비율을 반영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2005년 이민자가 총 인구의 0.05% 미만으로 무시해도 될만한 수준이었다. 이 지역의 다른 17개 국가에서도 해외 출생 인구 비율이 100명당 두 명 미만으로 미미했다.

대상 국가의 과반수는 순 이민이 마이너스로, 다시 말해 국민들이 국외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패널 B, GE4.1). 2000년과 2005년 사이 빈곤한 도서국가 (사모아, 통가, 피지, 스리랑카)와 구 소련국가 (타지키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에서는 해외이민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요 이민자 유입형태는 세가지 국가 유형으로 나타났다. 첫번째는 경제적으로 역동적인 국가-마카오 (중국), 싱가포르, 홍콩 (중국) 등이었다. 두번째는 호주, 뉴질랜드, 태국 등 비교적 부유한 국가들이었다. 세번째는 부탄과 티모르 등 정치적인 이유로 앞서 많은 이들이 해외 이민을 떠났던 국가들이었다. 그런데 순 이민율로는 필리핀 등 수천 명의 숙련된 노동자들이 매년 들어오고 나가는 등 대규모 유입과 유출이 모두 일어나는 국가의 이민 현황은 알 수가 없다.

총 인구 중 이민자의 비율은 부유한 국가일수록 높다 (GE4.2). 외국인 관련 법이 제한적인 일본과 한국을 제외하고 아태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은 해외 이민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국가는 총 인구 중 해외출생자 비율의 증가와 높은 이민율을 함께 경험하고 있다 (GE4.3). 사모아, 피지, 통가, 타지키스탄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이민으로 인해 많은 인구 유출을 경험하였지만 그와 동시에 이민자 유입 비율도 증가하여 같은 기간 피지의 경우 4퍼센트, 아르메니아는 75퍼센트만큼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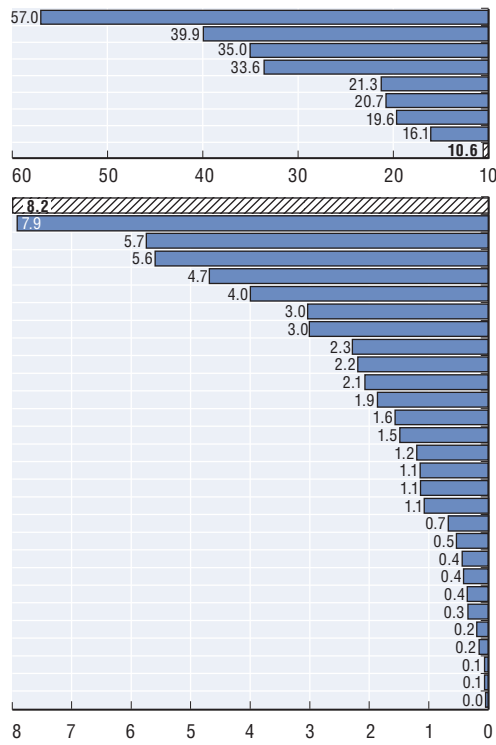
정의와 측정방법

출생지는 이주해 들어온 인구를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국제 이민자 수는 현재 거주하는 국가가 아닌 곳에서 출생한 사람들의 수로 거주국가의 총 인구 중 비율로 나타낸다. 순 이민율은 일정 기간 중 이주해 들어온 인구 수에서 이주해 나간 인구 수를 뺀 후 같은 기간 해당 거주국가의 인구수로 나눈 것으로 천 명당 순 이민자 수로 나타낸다. 유입과 유출 데이터가 일반적으로 비교 가능하지 않지만 순 이민 통계는 유출입 데이터로부터 비교불가성의 주요 출처, 즉 단기 이동을 “제외”한다. 하지만 이주해 들어온 인구와 이주해 나간 인구가 둘 다 많은 국가의 이민 현황은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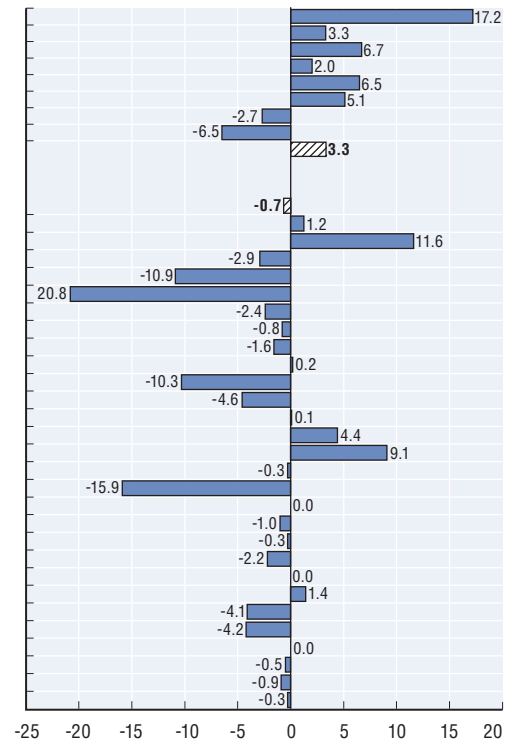
순 이민에 관한 자료는 UN 세계인구전망 데이터베이스 (2008, <http://esa.un.org/unpp/>)와 인구추계 중위가정에 기반한다. 이민자 수와 총 인구 자료는 세계은행 데이터베이스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SM.POP.TOTL>)를 출처로 한다 (그림 GE4). 아태지역은 총 인구 중 해외 이민자 비율에서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GE4.1. 이민

패널 A. 전체 인구 중 이민자 비율 퍼센트, 200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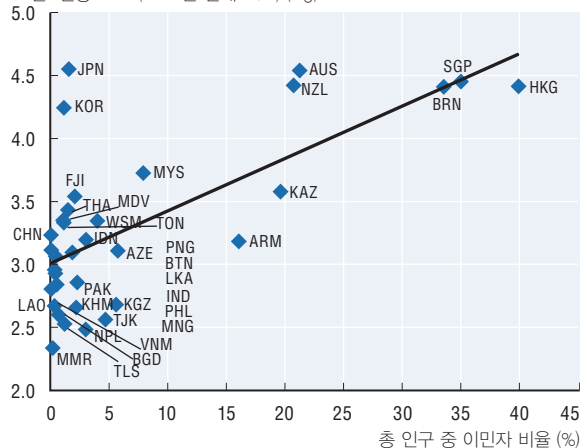


패널 B. 순이민율 2000-05, 인구 천명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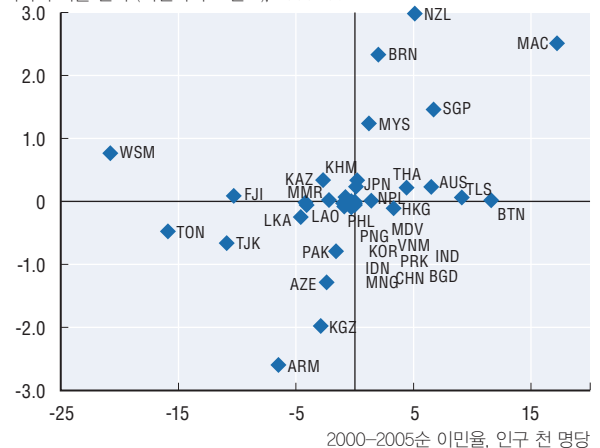
GE4.2. 부유한 국가일수록 인구 중 해외출생자 비율이 높다.

2005년 1인당 GDP (2009년 현재 USD) (log)



GE4.3. 이민율도 높고 해외출생자 비율도 증가한 경우

이미지 비율 변화 (퍼센티지 포인트), 2000-05



출처 : 순 이민 자료는 UN의 세계 인구 전망 데이터베이스 (2008, <http://esa.un.org/unpp/>)에서 가져왔으며 인구추계중위가정 자료에 기반하고 있다. 이민자 수와 총 인구 관련 자료는 세계은행 데이터베이스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SM.POP.TOTL>)에서 가져왔다. 그림 GE4.2 : 아태 지역 내 국가간에는 총 인구 중 이민자 비율의 차이가 크다.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546224>

GE5. 부양률

부양률은 아동 및 노인 등 경제 비 활동 인구 대비 경제활동 인구의 비율이다. 그러므로 부양률은 비 활동 인구를 경제적, 사회적으로 부양할 가능성이 있는 활동 인구 수를 대략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또한 인구의 연령 구조를 개략적으로 보여준다. 부양률의 변화는 사망률과 출산율에 따라 달라지며 정도는 달라지만 순 이민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아태지역에서는 국가별로 부양률의 차이가 크다 (GE5.1). 마카오 (중국), 홍콩 (중국), 싱가포르 같은 경우 피부양자의 수가 100명당 35명을 넘지 않는 반면 네팔, 라오스, 파키스탄은 피부양자 수가 거의 두 배로 백 명당 70명에 육박한다. 총 부양률은 OECD와 아시아 국가들이 두 명에 피부양자 한 명 꼴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피부양자들의 연령 구조는 OECD국가들과 비교해 개도국에서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총 부양률 중 유년부양비 (youth-dependency ratio) 비중이 큰 반면 OECD 국가의 경우 총 근로 인구 중 노인의 비율이 높다. 이것은 OECD 국가들이 기대여명도 길고 (HE1 참조) 출산율도 낮기 (GE3 참조) 때문인데 이로 인해 인구분포가 노인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그와 동시에 대다수의 국가에서 앞으로 부양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년간 일본을 제외한 아태지역 모든 국가에서 근로인구에 의존하는 피부양자 비율이 감소했지만 (그림 GE5.2) 이러한 추세는 이 지역 대부분 국가에서 부양률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반전될 것으로 보인다. 예측에 따르면 향후 40년간 그 변화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부양률 변화는, 특히 개도국에서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노인 부양률에 의해 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년간 부양률 감소는 1인당 GDP의 높은 성장률과 맞물린 것이었다. 그림 GE5.3에서 나타나듯이 연평균 부양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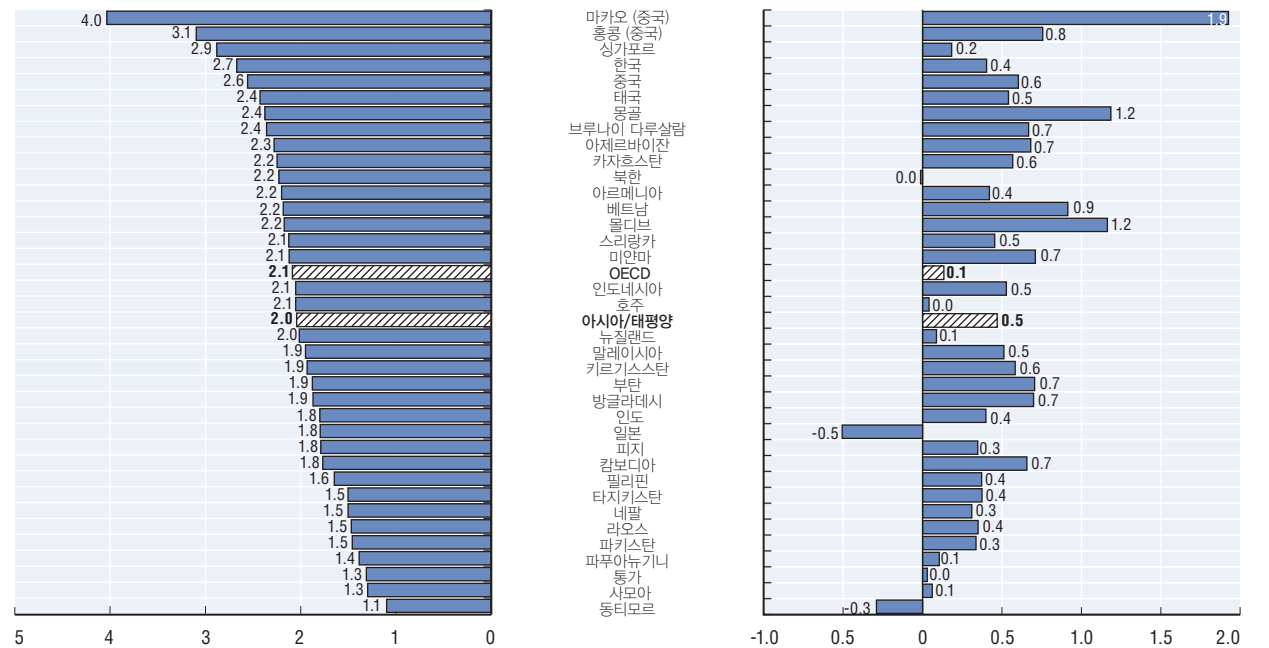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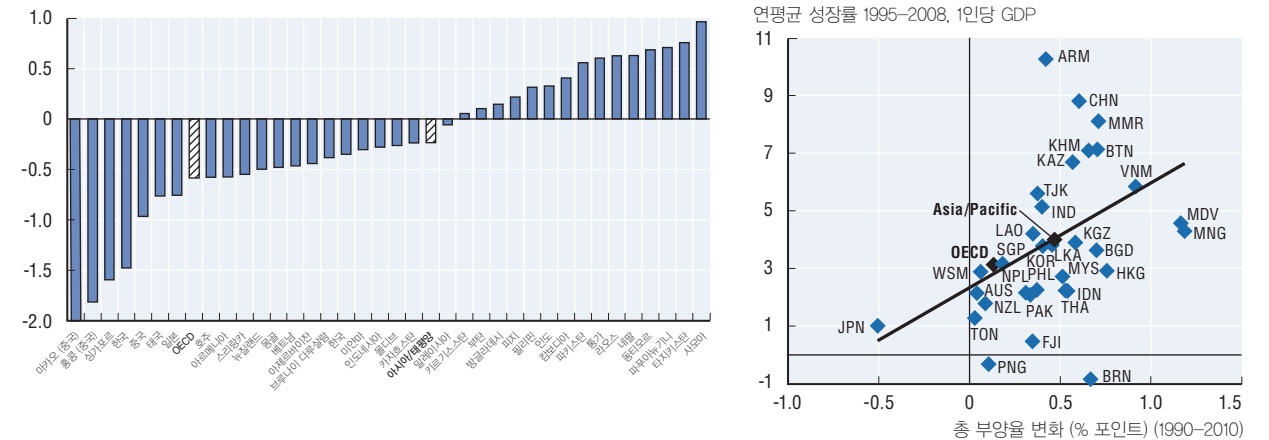
감소폭이 큰 국가들이 빠르게 성장해왔다. 다시 말해 중국, 베트남, 몽골, 인도와 같은 빠른 성장을 보이는 국가들이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근로인구의 증가로부터 혜택을 입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양률 추세가 향후 수년간 반전될 것을 감안하면, 부양의 짐이 무거워지면서 특히 중국과 한국의 경우 경제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10년부터 2050년까지 중국의 부양률은 1.6배, 한국은 2.3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와 측정방법

부양률은 아동과 노인 등 다른 이의 지원에 의존해 사는 사람 수 대비 스스로 부양하는 사람의 수를 계산하여 인구의 연령 구조를 측정한다. 부양률의 주요 지표는 15세 미만 및 65세 이상 인구 대비 15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 수이다. 15세 미만과 65세 이상 인구 대비 15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 비율은 경제활동 인구와 경제비활동 인구 사이의 비율로 읽을 수 있다. 모든 비율은 피부양자 한 명 당 근로연령 (15-64세) 인구 수로 표시한다.

자료는 UN의 세계인구전망 (World Population Prospects)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2009, <http://esa.un.org/unpp/index.asp?panel=2>)를 출처로 한다. 여기에서 사용된 연령-부양비 전망은 인구추계중위가정을 참조했다.

퍼센티지 포인트



제 5 장

자활지표 (SS)

SS1. 고용
SS2. 실업
SS3. 교육
SS4. 조기교육
SS5. 교육비 지출

SS1. 고용

고용은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소득을 제공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급 고용은 생계수단, 사회적 상호관계, 삶의 만족을 주는 원천이다.

아태지역에서 고용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태국과 중국이며 성인 열명당 일곱 명 이상이 고용상태이다 (패널 A, SS1.1). 반면 파키스탄과 스리랑카는 고용 상태에 있는 사람이 성인 인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아태지역 OECD 회원국 간에 고용률의 편차가 큰데 이것은 대체로 여성 고용의 차이 때문이다.

아태지역에서 2008년 위기가 고용률에 미쳤던 영향은 많이 완화된 상태이다 (패널 B, SS1.1). 고용률의 급격한 하락은 호주, 한국, 홍콩 (중국), 일본, 뉴질랜드 등 지역 내 부국에 집중되었다. 반면 여러 빈국에서는 위기 동안 고용률이 오히려 크게 증가했는데 특히 몽골, 인도네시아, 베트남이 그랬다.

남녀간 경제활동참가율은 아태 지역 내 국가간 차이가 크며 이것이 고용률 격차의 주요 동인이 된다 (SS1.2). 낮은 상대적 여성 고용은 패널 A, SS1.1에서 보듯이 총 고용률 차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구 소련국가와 뉴질랜드, 호주에서는 경제활동 참가율의 남녀간 격차가 10퍼센트 미만으로 작은 편이다. 일본과 한국에서는 남성 참여율이 여성 고용률에 비해 훨씬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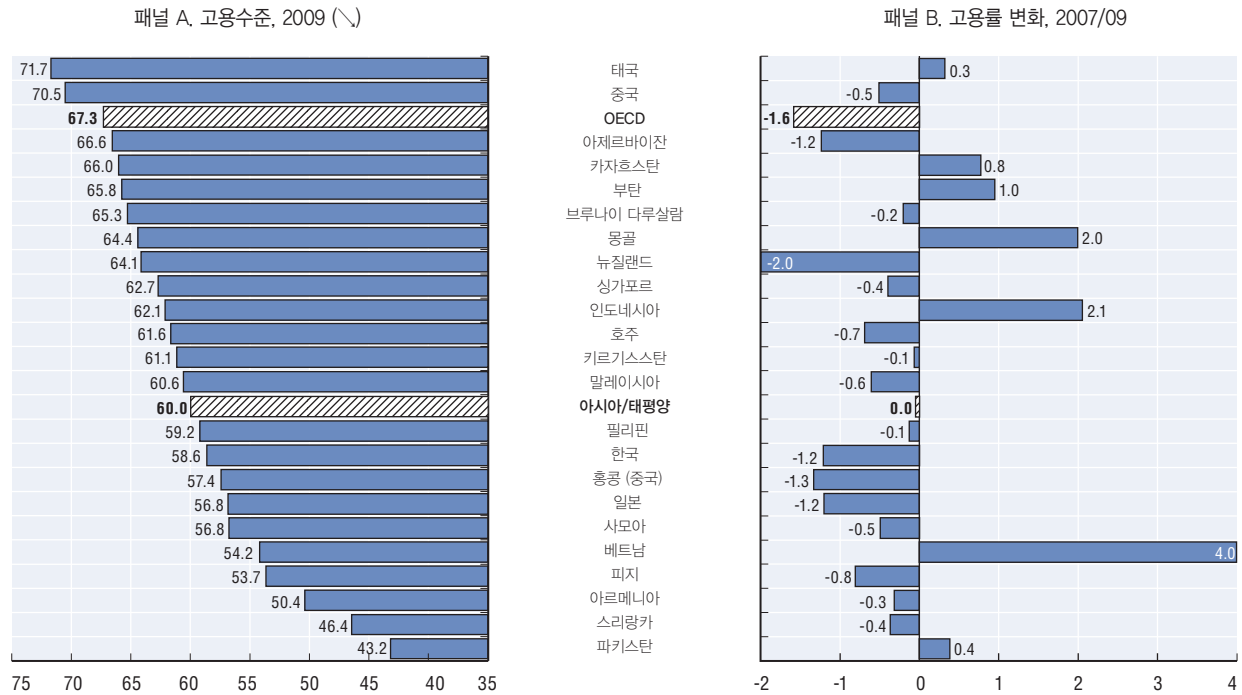
특히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전반적인 고용률이 낮은 국가에서는 참여율의 남녀간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참여율은 핵심 생산연령층보다 젊은이들이나 노인들에게서 낮게 나타난다 (SS1.3). 그러나 이러한 연령에 따른 격차는 국가마다 크게 다르다. 아제르바이잔, 한국, 싱가포르, 일본의 경우 젊은 근로자들과 핵심 생산층 근로자간 참여율의 격차가 크다. 파키스탄, 필리핀, 인도네시아에서는 노인들의 참여율이 핵심 생산층 근로자와 매우 비슷하다.

정의와 측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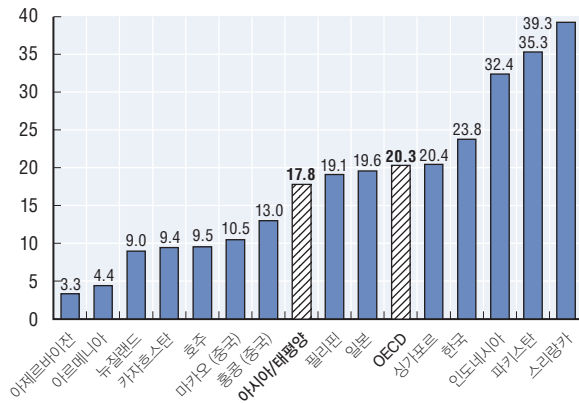
고용률은 15세 이상의 총 인구 대비 고용된 15세 이상의 사람 수의 비율이다. 헤드라인 고용률과 고용률 변화 자료는 2010 아시아 태평양 주요 지표, 아시아 개발은행 (8월), 고용률 및 경제활동 참가율로부터 발췌했다.

SS1.1. 부양률 수준 및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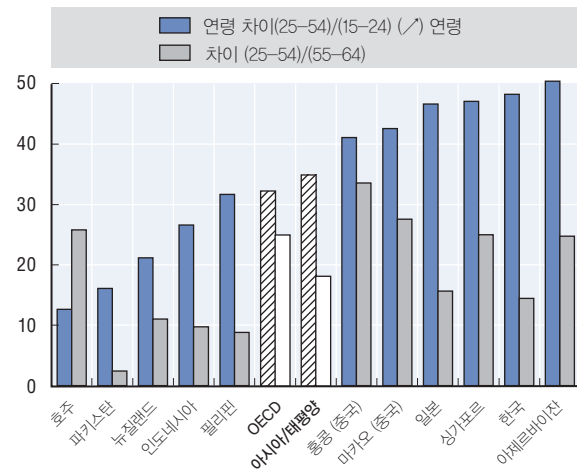
SS1.2.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 (남성-여성)

퍼센티지 포인트



SS1.3. 경제활동 참가율 연령 격차

퍼센티지 포인트



주 : 대상은 15세 이상 인구.

출처 : 아시아 개발은행 (www.adb.org), 2010년 아시아 태평양 주요 지표 (Key Indicators for Asia and the Pacific 2010), 국제노동기구 ILO LABORSTA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OECD 노동력 통계 데이터베이스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546262>

SS2. 실업

실업은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는 능력을 감소시키며 타인, 특히 국가 복지 체계나 다른 가족에게 의존하도록 만든다. 또한 실업은 상당한 심리적 비용을 초래해 삶의 만족감을 영구적으로 하락시킨다.

아태지역의 실업률은 비교적 낮은 편이다 (패널 A, SS2.1). 태평양 사모아 섬의 경우 2% 미만으로 특히 낮으나 또 다른 태평양 섬인 피지의 경우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태국과 타지키스탄도 실업률이 낮은 국가들이다. 키르기스스탄,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실업률이 높다.

OECD와 마찬가지로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업률이 높아졌다 (패널 B, SS2.1). 고용률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실업률의 급격한 상승도 호주, 홍콩 (중국),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부국에 집중되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경제 위기 기간 중 실업률이 하락했으며 그 외 다섯 개 국가도 정도는 덜했지만 실업률이 하락했다.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일반적으로 실업률이 높았다 (SS2.2). 그러나 말레이시아 등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성별 격차는 무시할만한 수준이거나 홍콩 (중국)처럼 그 반대인 경우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실업률이 높아질수록 성별에 따른 격차는 여성에게 크게 불리하게 나타난다. 파키스탄에서는 여성 실업률이 남성의 두 배였고 몰디브는 여성 실업률이 남성의 세 배 이상이었다.

청년 실업률은 항상 핵심 생산연령층 근로자들보다 높지만 때로는 노인들이 더 낮은 실업률을 보이기도 한다 (SS2.3). 스리랑카와 몰디브, 인도네시아에서는 경제활동 인구 네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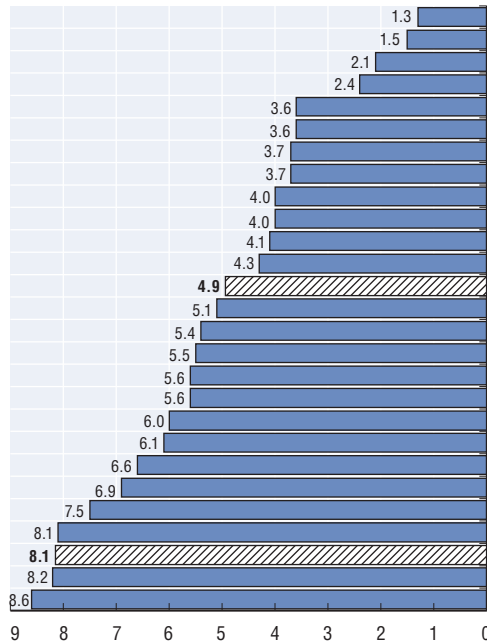
중 한 명 이상이 실업상태이다. 스리랑카와 인도네시아는 젊은 이들과 주 생산연령층 간의 실업률 격차가 커서 약 15퍼센트 포인트에 달했다. 어떤 경우에는 노인들의 실업률이 핵심 생산연령층보다 낮았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는 노인들의 실업률이 주 생산연령층보다 5퍼센트 포인트 이상 낮았다.

정의와 측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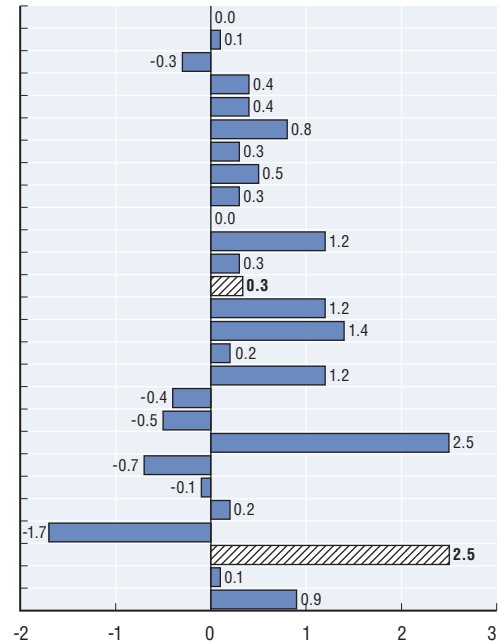
실업률은 고용상태이거나 적극적으로 구직하는 근로 연령인구 (15-64세) 대비 실업상태이고 적극적으로 직업을 찾는 사람들의 비율이다.

자료는 회원국의 노동력 조사를 통해 수집했다. 이들 조사에서 사용된 ILO 표준 용어에 따르면 실업자는 설문 기준이 되는 일주일 중 최소 한 시간도 일하지 않았으나 현재 일할 준비가 되어 있고 설문 전 4주간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한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신체적 장애 때문에 일할 수 없거나 구직에 성공할 거라는 희망이 없어서 적극적으로 구직하지 않는 사람은 실업인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SS2.1. 실업 수준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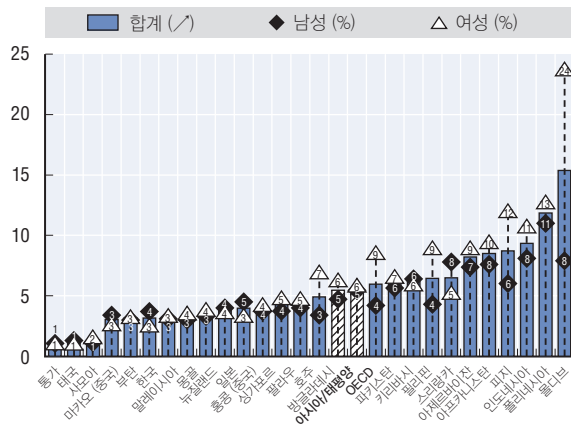
패널 A. 수준, 2009 (／)
퍼센티지

패널 B. 퍼센티지 포인트 변화, 2007/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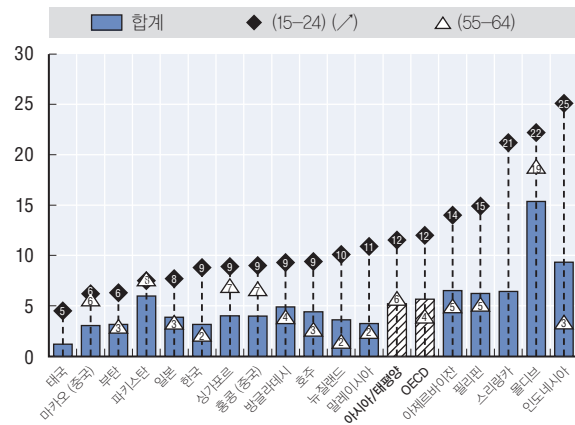
SS2.2. 성별에 따른 실업률

퍼센티지 포인트



SS2.3. 연령별 실업률

퍼센티지 포인트



주: 15세 이상 인구 자료.

출처: 아시아 개발은행 (www.adb.org), 2010년 아시아 태평양 주요 지표 (Key Indicators for Asia and the Pacific 2010), 국제노동기구 ILO LABORSTA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OECD 노동력 통계 데이터베이스.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546281>

SS3. 교육

국민의 교육수준은 인적자본량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인적자본량이 많다는 것은 노동 생산성이 높아 소득 창출 역량도 크다는 의미이다. 높은 교육수준은 성인과 아동 모두의 높은 건강수준과 연관되어 있다. 다양한 범위의 대상 국가들을 가장 손쉽게 비교할 수 있는 지표는 근로연령 인구의 총 교육 기간이다.

뉴질랜드의 교육기간은 네팔의 세 배에 달한다 (패널 A, SS3.1). 다른 아태지역의 OECD 회원국들도 10년을 초과하는 비슷한 교육기간을 보이고 있다. 인도와 라오스, 파푸아 뉴기니, 미얀마는 교육기간이 모두 5년 미만이다. 통가와 피지는 비교적 GDP가 낮은 국가이지만 (GE1), 인적자본의 수준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지난 30년간 아태지역에서는 평균 교육기간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패널 B, SS3.1). 평균적으로 아태지역 1인당 2년 이상 늘어났다. 뉴질랜드와 호주, 캄보디아는 1년 미만, 피지와 말레이시아는 4년의 증가세를 보였다.

1인당 GDP와 마찬가지로 (GE1), 국가간 교육기간도 하나로 수렴되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 있다 (SS3.2). 파키스탄과 인도처럼 1980년에 교육기간이 짧았던 국가들은 뉴질랜드와 호주처럼 당시 교육기간이 길었던 국가에 비해 교육기간이 급격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인적자본수준의 수렴은 위에서 관찰된 1인당 GDP 수렴에 있어 유일하지는 않지만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자들은 인구 전체와 비교해 교육기간이 짧은 경향이 있다 (SS3.3). 성별에 따른 교육기간 차이는 상당히 좁혀져 왔지만 인적자본의 누적은 반세기간의 투자를 의미하므로 불평등이 현재보다 훨씬 심했던 기간들도 포함한다. 필리핀은 여성들이 인구 평균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예외였고 뉴질랜드의 경우 남녀간 교육기간이 동일했다. 인도, 파키스탄, 중국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여성들이 불리한 쪽으로 좀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정의와 측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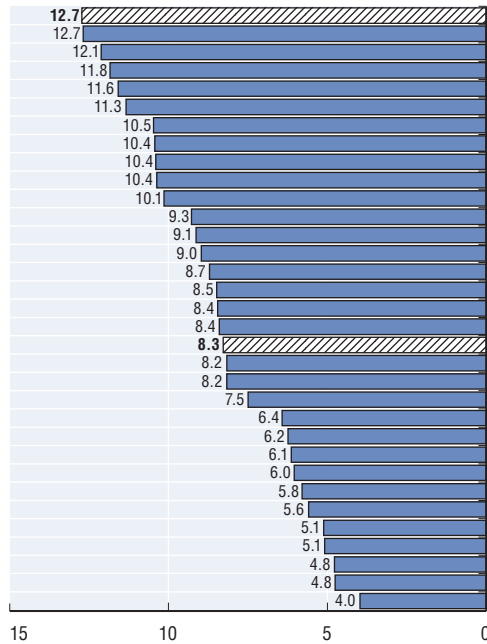
여기서 다루고 있는 국가들이 위치한 개발 단계가 서로 매우 다르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장 큰 비교성을 가진 핵심교육지표는 교육기간이다. 교육기간과 여성의 교육기간에 관한 자료는 Barro-Lee 데이터 셋 (Barro and Lee, 2010)을 근거로 했다. 여기에서는 남자들의 교육기간은 직접 포함하지 않고 있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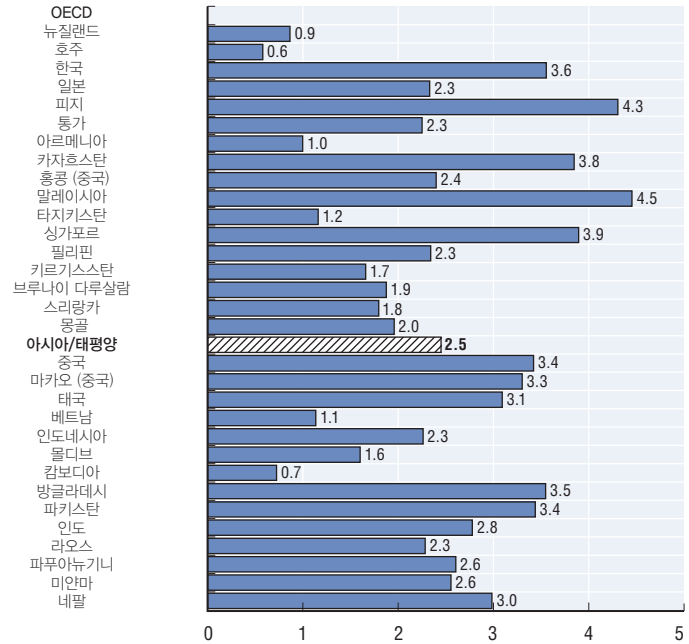
Barro, R. and J.W. Lee (2010), "A New Data Set of Educational Attainment in the World : 1950-2010", NBER Working Paper, No. 15902, Cambridge, MA, www.nber.org/papers/w15902.

SS3.1. 교육 수준 및 변화

패널 A. 평균 교육 기간, 2010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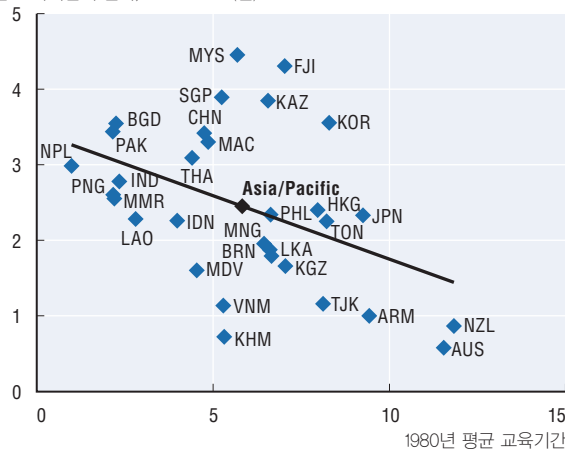


패널 B. 평균 교육기간의 변화, 1980-2010 (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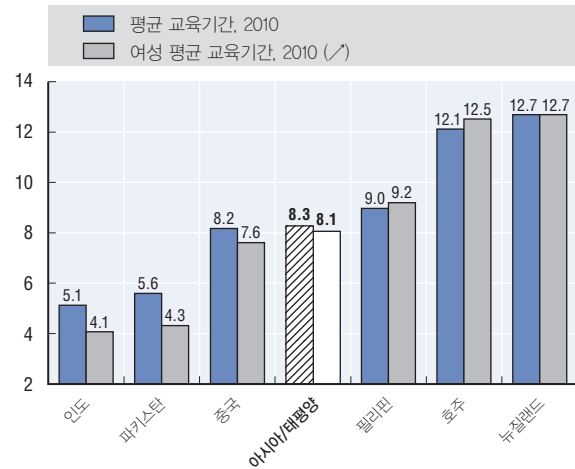


SS3.2. 교육기간의 수렴

평균 교육기간의 변화, 1980-2010 (년)



SS3.3. 성별에 따른 교육기간의 차이



주 : SS3.1 : OECD 자료는 인구의 90% 이상이 재학 중인 기간을 의미. 1980-2010 OECD 평균 총 교육기간의 변화 자료는 나와있지 않음.

출처 : Barro and Lee (2010); OECD (2010), Education at a Glance : OECD Indicator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546300>

SS4. 조기교육

조기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는 어린이들에게 향후의 삶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갖춰줘야 한다는 사회의 의지를 나타낸다. 조기교육은 또한 여성들로 하여금 육아와 유급 근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여성들의 자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조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취학 전 아동 비율은 국가 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패널 A, SS4.1). 자료를 보면 참여율이 가장 낮은 곳은 라오스 (3%)이었고 가장 높은 곳은 뉴질랜드 (95%)였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국가의 경우 조기교육 프로그램의 아동 참여율이 높았다. 그러나 몰디브와 태국, 베트남은 모두 비교적 소득이 낮은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참여율에 있어 소득이 높은 호주에 비해 크게 뒤쳐지지 않았다.

조기교육에의 참여는 최근 대부분의 국가에서 증가했다(패널 B, SS4.1). 이러한 증가는 인도와 네팔,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폭이 컸다. 방글라데시와 통가는 참여율이 하락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조기 교육 참여율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미미했다 (SS4.2). 대다수의 국가에서 성별에 따른 참여율 차이는 매우 작았고 이러한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도 여아의 참여율이 높았다. 다만 몰디브, 아제르바이잔, 타지키스탄, 라오스는 예외로, 남아의 참여율이 높았다. 비교적 격차가 뚜렷했던 곳은 카자흐스탄으로 남아의 재학률이 3.7% 높았다. 도시와 시골 지역간 참여율에도 차이가 있었다. 방글라데시를 제외하고는 도시지역의 조기교육 프로그램 참여율이 높았다.

조기교육 및 보육 비율이 높을수록 영아 사망률은 낮게 나타난다 (SS4.2). 이러한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은 부유한 국가일수록 어린 아이들에게 공적으로, 사적으로 더 많이 투자하고 이러한 투자는 낮은 유아사망률 및 높은 조기교육 참여율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의와 측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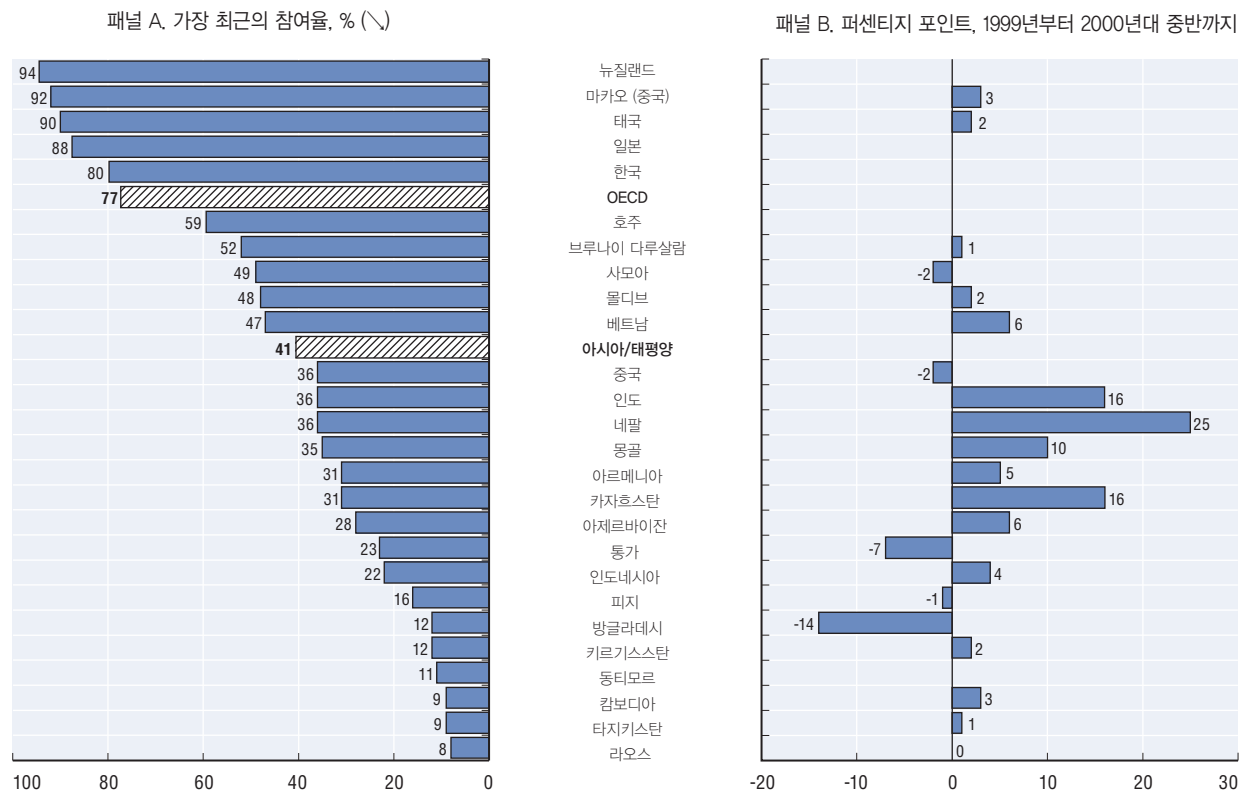
조기교육 (ECE) 참여 자료는 유네스코 (2006)과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 (OECD 4개 회원국)를 출처로 하고 있다. 이 지역의 OECD 비회원국 자료를 다룰 때에는 신중해야 하며 유네스코 간행물을 참조해야 한다. 다양한 연도에 대해 다양한 출처로부터 자료가 확보되었으며 서로 조금씩 다른 연령 집단을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아 국가간에 대략적으로만 비교가 가능하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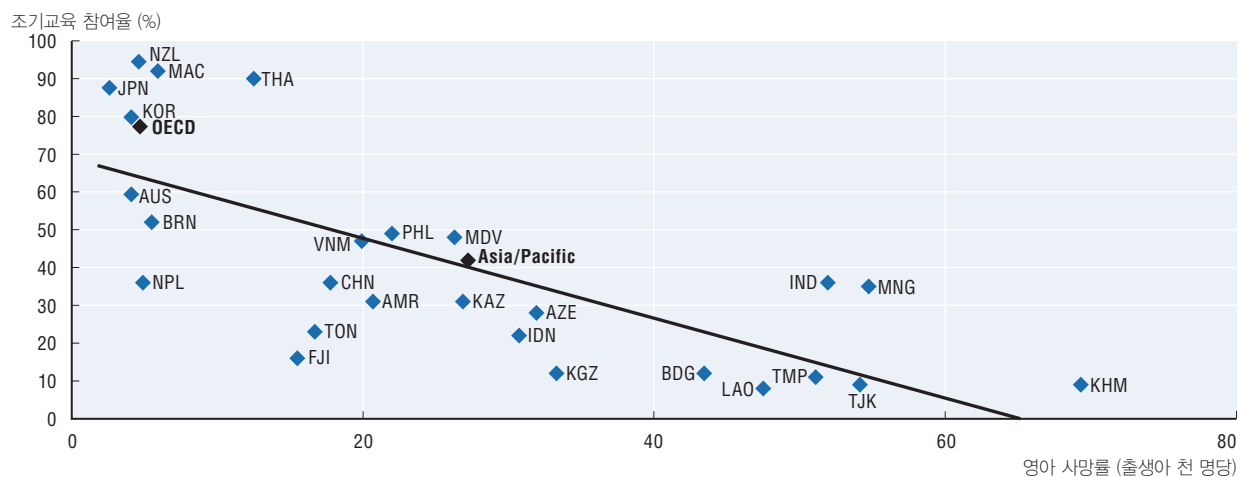
UNESCO (2006), Strong Foundations, UNESCO, Paris.

SS4.1. 조기교육 수준과 추이

3세부터 6세 사이의 조기교육 참여율, 2000년대 중반



SS4.2. 조기교육 참여율 및 영아사망률



출처 : UNESCO (2006), Strong Foundations ; OECD Family Database ; OECD Education Databas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546319>

SS5. 교육비지출

교육비 지출은 자활에 필요한 사회, 경제적 기술을 어린이들에게 제공하는데 대한 사회의 대응을 나타낸다. 교육 지출액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또한 아동의 교육과정 전체에 걸쳐 여러 방식으로 할당하는 자원도 국가별로 다르지만 이것은 본 보고서에서 다루지 않기로 한다.

공교육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태 지역 내에서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패널 A, SS5.1). 몰디브, 티모르, 키르기스스탄은 GDP의 상당부분을 공교육에 지출하지만 아제르바이잔, 캄보디아, 미얀마는 그 금액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를 공교육에 지출한다.

공교육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비교적 짧은 기간 중에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교육에 지출된 GDP 비율의 증가나 감소의 일반적인 패턴은 존재하지 않는다.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GDP의 3퍼센트 포인트만큼 크게 상승했고 이 국가와 인접한 아제르바이잔은 비슷한 폭으로 크게 감소했다.

1인당 GDP와 공교육지출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 (SS5.2). 부유한 국가들은 교육에 많은 비율을 지출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반면 몰디브 등 일부 빈국에서는 많은 액수를 공교육에

지출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나 미얀마 같은 국가들은 공교육에 거의 지출을 하지 않고 있다. 개발 전략이 서로 매우 다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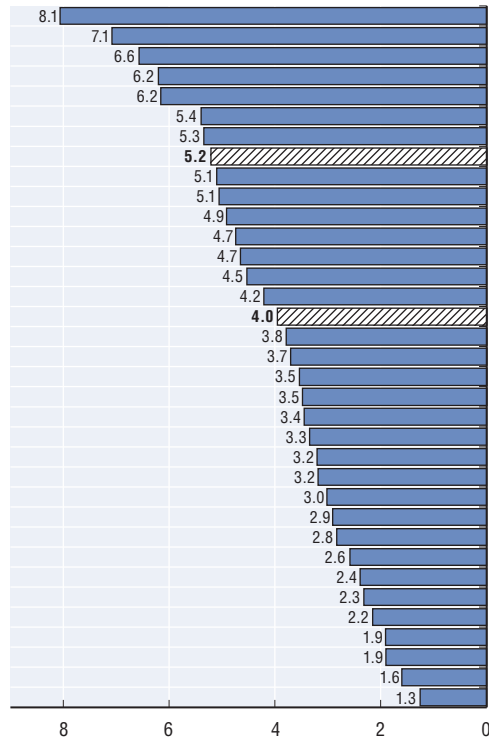
교육에 대한 공적 지출과 평균 교육기간 사이에는 약한 양의 상관관계만이 존재한다 (SS5.3). 캄보디아와 몰디브는 교육기간은 비슷하지만 몰디브가 교육에 투자하는 비율은 캄보디아의 네 배에 달한다. 좀더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교육비 지출이 평균 교육기간을 약간만 변화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의와 측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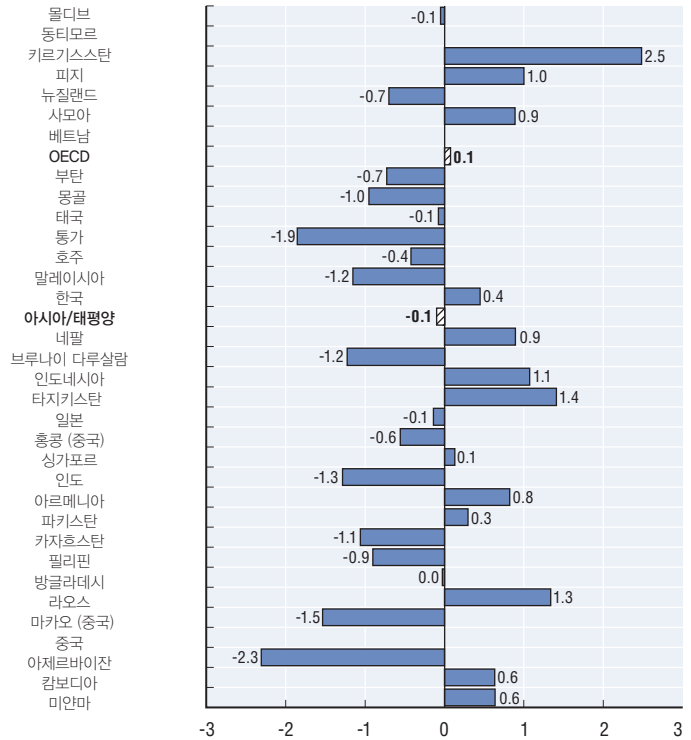
공적 교육비가 GDP중 차지하는 비율은 유네스코 통계연구소를 출처로 하고 있다. <http://stats.uis.unesco.org/unesco/TableViewer/TableView.aspx>

SS5.1. 교육비 지출 수준과 추이

패널 A. 교육에 관한 공적 지출이 GDP 중 차지하는 비율, 가장 최근연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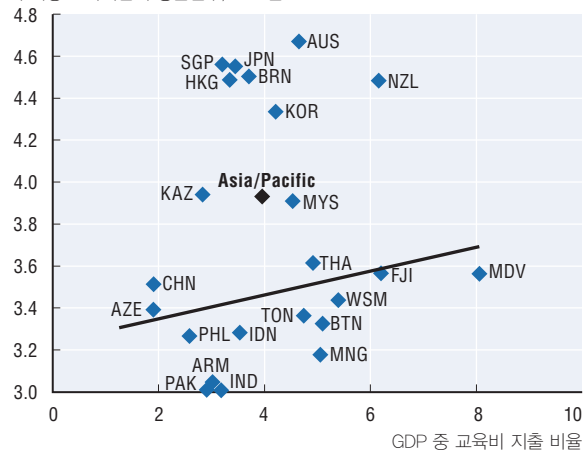


패널 B. GDP 중 교육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 (2000년대 초반부터 후반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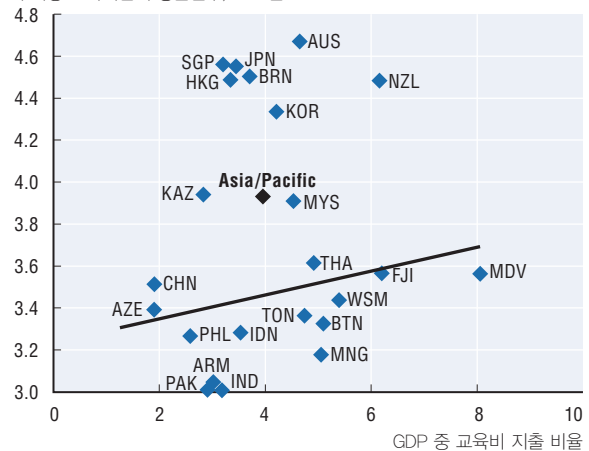
SS5.2. 부유한 국가는 교육에 그리 많이 지출하지 않는다.

15세 이상 교육기간의 평균연수, 2010년



SS5.3. 교육비 지출과 평균교육기간의 상관관계는 약하게 나타난다.

15세 이상 교육기간의 평균연수, 2010년

출처 : 유네스코 통계연구소, <http://stats.uis.unesco.org/unesco/TableViewer/TableView.aspx> ; OECD (2010), Education at a Glance.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546319>

제 6 장

형평성지표 (EQ)

EQ1. 빈곤
EQ2. 소득불균형
EQ3. 성비
EQ4. 연금
EQ5. 사회적 지출

EQ1. 빈곤

빈곤수준은 소득분포의 맨 아래쪽에 위치한 사람들의 상대적 수를 측정한다. 한 사회의 형평성 문제는 소외된 이들에게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서는 국가간 공통된 빈곤선을 사용한 절대적 빈곤에 초점을 둔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거의 절반이 빈곤 상태이며 5분의 1은 극빈층이다 (패널 A, EQ1.1). 이 지역의 빈곤인구 중 80% 이상이 방글라데시, 인도, 중국에 거주한다. 가장 빈곤한 국가는 방글라데시로 인구의 80% 이상이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다. 빈곤 수준은 아제르바이잔과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낮았다 (아태지역 4개 OECD 회원국들은 빈곤율이 0이므로 여기 포함시키지 않았다. 싱가포르, 마카오 (중국), 홍콩 (중국)도 같은 이유로 배제했다).

국가별로 감소속도는 달랐지만 지난 10년간 모든 아태지역 국가에서 빈곤율이 감소했다 (패널 B, EQ1.1). 키르기스스탄, 라오스와 말레이시아는 빈곤 감소의 속도가 가장 느렸다.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곳은 아제르바이잔, 베트남, 몽골, 중국이었다.

절대적 빈곤은 영양섭취를 포함해 생명유지의 기본적 욕구를 유지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그러나 영양결핍 비율은 2달러 빈곤선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구 비율과는 강한상관관계가 없다 (EQ1.2). 그러므로 빈곤은 기아와 동의어는 아니다. 이것은 식량안보에 초점을 맞춘 사회적 정책에 대한 여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아제르바이잔, 태국, 아르메니아, 몽골 등 일부 국가는 빈곤수준은 낮지만 영양결핍 비율은 걱정스러울만큼 높아 빈곤율을 훨씬 초과한다. 이는 빈곤인구로 간주되지 않는 이들 중 영양결핍을 겪는 이들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빈곤감소는 GDP 성장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속도가 빨랐다 (EQ1.3). 성장속도와 빈곤감소 속도는 모두 아제르바이잔에서 가장 빠르게 나타났는데 1995년에서 2008년 사이 1인당 GDP가 4배가 되었고 빈곤율은 35퍼센트 이상 감소했다. 그러나 성장과 빈곤 감소 간의 불완전한 상관관계는 성장에 대한 빈곤 탄력성이 다양함을 말해준다. 그래서 베트남의 경우 빈곤 감소가 성장에 미친 영향이 중국보다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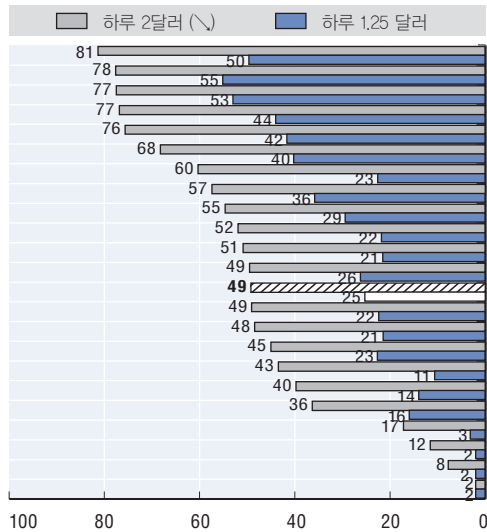
정의와 측정방법

빈곤은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나 소비수준으로 측정한다. 소비수준이나 소득수준이 사전에 정의한 빈곤선 아래로 떨어지면 그 사람은 빈곤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여기서 빈곤선은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최소 수준이다. 국제적 차원에서는 하루에 1인당 미화 1.25달러와 2달러라는 두 개의 기준 빈곤선이 설정되어 있다 (2005 구매력평가지수). 1.25 달러 빈곤선은 세계 10-20대 최빈국들의 국가 빈곤선 평균과 일치하며 2달러 빈곤선은 개발도상국 전체에서 나타나는 중위 빈곤선이다. 하루 1.25달러 미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극도의 또는 절대빈곤상태에서 살고 있다고 말한다. 영양결핍 관련 자료 역시 여기에 나타난다. 영양결핍은 식사를 통한 에너지 섭취가 일정한 신장과 수용 가능한 최소수준의 체중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가벼운 신체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 에너지 요구량을 계속해서 밀도는 상태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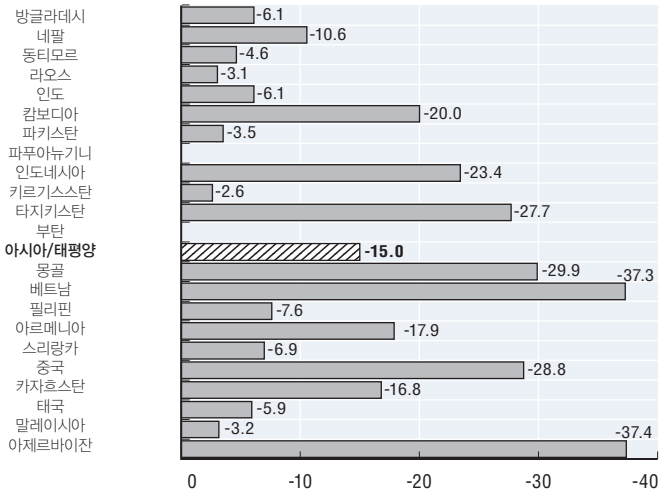
여기에 제시된 자료는 소득수준이나 소비수준이 빈곤선 아래인 사람들의 비율이다. 국가 및/또는 국제적 빈곤선 이하의 수준에서 살아가는 인구 비율에 관한 자료는 최저개발국들에 대한 자료만 나와있다. 자료는 세계은행의 세계 개발 지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2010,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와 아시아개발은행의 2010 아시아 태평양 핵심 지표를 출처로 했다. 자료는 가구조사를 참조하거나 정부 통계국 및 세계은행 국가 부서로부터 제공받았다. 빈곤이 소득이나 지출을 기준으로 측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빈곤인구 비율은 국가간 정확한 비교가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영양결핍 자료는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출처를 두고 있다 (www.fao.org/economic/ess/food-security-statistics/en/).

EQ1.1. 빈곤율과 추이

패널 A. 아태지역 국가 인구의 거의 절반이 빈곤상태이다.
1.25달러와 2달러 빈곤선 상의 사람들의 비율 (%) (최근연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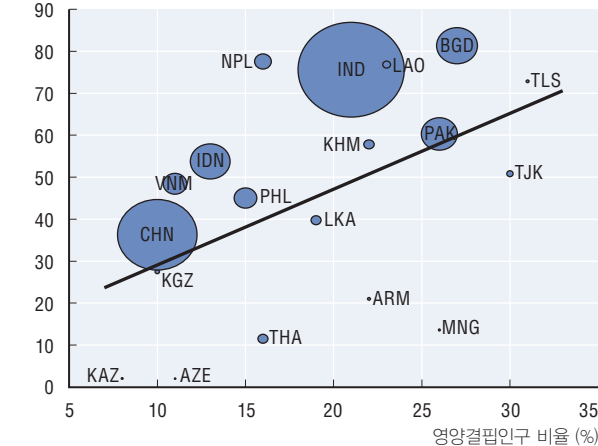


패널 B. 지난 10년간 모든 아태지역 국가에서 빈곤이 감소했다.
빈곤율 감소 비율 (2달러 빈곤선)

EQ1.2. 일부 국가의 경우 빈곤수준은 낮으나
영양결핍이 만연해 있다.

풍선의 크기는 빈곤인구 수에 비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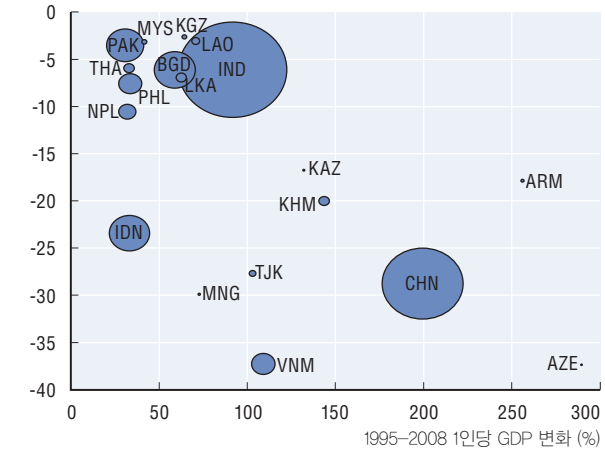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인구 비율



EQ1.3. 성장률이 높을수록 빈곤감소의 속도가 빠르다.

풍선의 크기는 빈곤인구 수에 비례

빈곤율 감소 비율 (1995 - 최근연도)



주 : EQ1.1, 패널 A : 동티모르 : 2001년 자료 ; 라오스, 스리랑카 : 2002년 자료 ; 아르메니아, 부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 2003년 자료 ;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말레이시아, 네팔, 타지키스탄, 태국 : 2004년 자료 ;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몽골, 파키스탄 : 2005년 자료 ; 필리핀, 베트남 : 2006년 자료.

정의 : 하루 1.25달러 미만 인구는 2005년 국제 물가로 하루 미화 1.25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인구 비율을 의미. PPP 환율 개정 결과 개별 국가의 빈곤율은 이전 판에 보고된 빈곤율과 비교할 수 없게 됨. 2.0으로 나타나는 자료는 빈곤율 2.0% 미만을 의미.

출처 : EQ1.1 : World Bank (2009), 세계 개발 지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http://ddp-ext.worldbank.org/ext/DDPQQ/member.do?method=getMembers&userid=1&queryId=6>). 세계은행 개발연구 그룹. 자료는 각국의 정부 통계처와 세계은행 국가 부서에서 확보한 주 가구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함. 고소득 국가 자료는 룩셈부르크 소득조사 데이터베이스에서 확보. EQ1.2와 EQ1.3 : 식량농업기구 (FAO), www.fao.org/economic/ess/food-security-statistics/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546357>

EQ2. 소득 불균형

소득불균형은 물질적 자원이 사회전반에 어떻게 분배되고 있는가를 나타낸다. 어떤 이들은 소득불균형이 크면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또 어떤 이들은 소득 불균형은 갈등을 유발하거나 협력을 제한하거나 심리적 스트레스, 궁극적으로는 신체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므로 나쁘다고 생각한다. 정책상 우려는 불균형 수준 자체보다는 불균형의 변화 방향에 초점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소득불균형은 OECD국가들에 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높게 나타난다 (패널 A, EQ2.1). 지니 계수는 인도네시아, 인도, 홍콩 (중국)에서 가장 불평등하게 나타난다. 인도의 경우 지니 계수는 무려 54로 OECD 평균보다 50% 더 높다. 지니 계수가 가장 평등하게 나타나는 곳은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등 구 소련 국가들이다. 지출 기준 불평등 지표는 예상대로 소득기준 지표보다 훨씬 낮았다. 10분위율은 극빈층 인구 10%와 부유층 인구 10% 간 비율로 소득 불균형을 측정하고 있다. 홍콩 (중국), 싱가포르, 파푸아뉴기니, 부탄 등에서는 사회가 빈부 간에 극단적으로 양극화되어 있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등 불평등이 가장 적은 국가들의 경우 상위 10%가 하위 10%보다 약 여섯 배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의 경우는 하위 10%에 비해 상위 10%가 불과 세 배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지난 10년간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불균형이 커졌다 (패널 B, EQ2.1). 불균형은 싱가포르와 홍콩 (중국)이라는 부유한 두 개 지역뿐 아니라 네팔, 캄보디아, 스리랑카 등 아태지역 일부 최빈국에서 증가했다. 구 소련 3개국인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에서는 불평등이 크게 감소했다.

경제 성장과 불평등 변화 간에는 명확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EQ2.2). 그러나 인구규모를 감안하여 조정하고 일부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GDP 성장과 불균형 증가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일부 존재한다.

정의와 측정방법

OECD의 불평등 지표는 소득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이 농사를 짓거나 단순 노동자인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소득 자료가 의미가 없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평등 지표는 지출기준이다. 지출기준 지표들은 소득 기준 지표에 비해 불평등성이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국가간 비교를 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사용된 주요 분포지표는 지니계수이다. 지니계수의 값은 “완전한 평등”의 0부터 (모든 사람이 동일한 소득을 올림) “완전한 불평등”의 1 (모든 소득이 최고소득을 올리는 인구에게 집중)까지 분포한다. 또한 상위 10%와 하위 10%를 비교한 10분위율도 사용되었다. 10분위 소득/지출 비율은 세계은행 개발연구 그룹 자료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를 참조했다. OECD 국가의 지니 계수는 OECD (2008)를 참조했다. 인도, 중국, 홍콩 (중국), 마카오 (중국), 피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자료는 정부 보고서나 간행된 연구 보고서를 인용하였다. 그 외 국가들은 2010 아시아 개발은행의 2010 아시아 태평양 주요 지표 보고서를 참조했다. 국가간 자료의 비교성은 샘플 크기의 차이, 소득지표와 지출지표 중 무엇을 선택했는가, 세전소득과 세후소득 중 무엇을 선택했는가, 개인/가구 간의 불평등, 가구 내 각 개인에게 소득을 할당할 때 사용한 균등화 지수 (equivalence scale)로 무엇을 선택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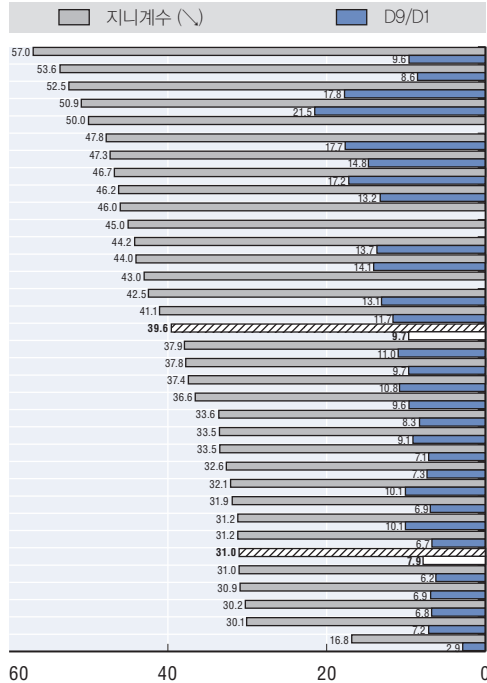
참고문헌

OECD (2008),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OECD Publishing, Paris, www.oecd.org/els/social/inequa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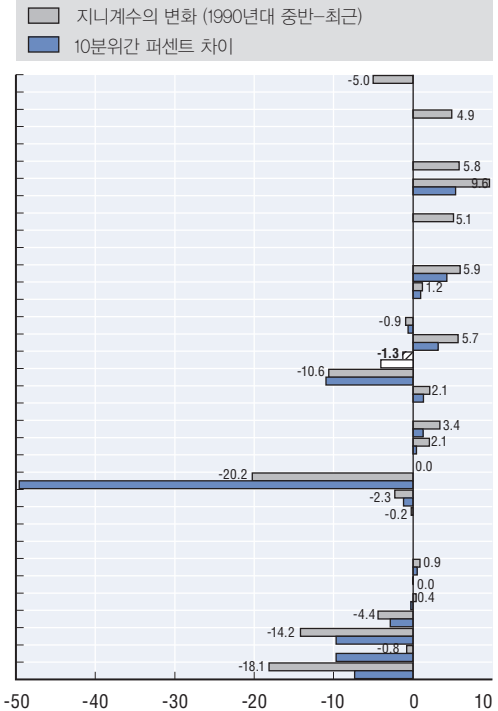
EQ2.1. 불평등 수준과 추이

패널 A. 불평등은 아태지역 국가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니계수와 D9/D1 비율, 최근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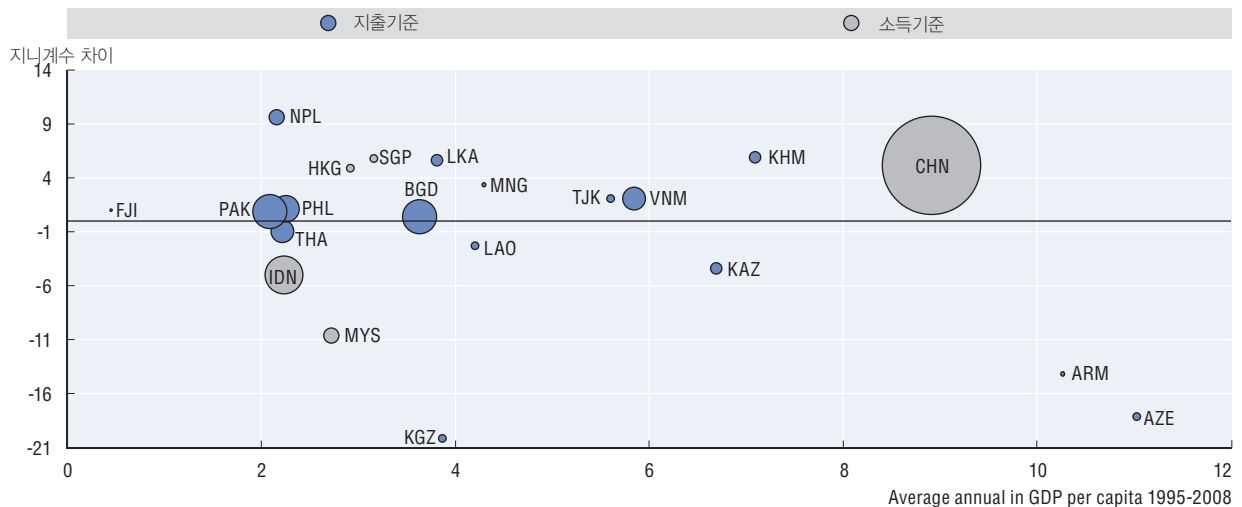


패널 B.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평등 수준은 상승했지만 변화는 불평등이 하락한 국가들이 가장 컸다.



EQ2.2. 성장과 불평등 간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풍선의 크기는 인구에 비례함



출처 : OECD (2008), Growing Unequal? -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and OECD (2011), 불평등 증대의 원인 ; 세계은행 개발 지표, <http://data.worldbank.org/>.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546376>

EQ3. 성비

여성인구비율부족 (Missing females)은 정상적인 출생비에 따른 예상 여아 수 대비 부족한 여아 수로 측정된다. 성비 불균형은 태아의 성 감별 낙태, 여아 영아살해, 또는 남자에 편중된 불평등한 의료서비스와 식량 할당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출생 시 자연스러운 남녀 비율은 여아 100명당 남아 105명에서 107명이다. 하지만 여자가 생물학적으로 생존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숫자가 점차 비슷해지거나 여자 쪽이 약간 많아지게 된다.

가장 어린 인구집단인 0-4세 집단에서 인구학적 불균형이 가장 심한 곳은 중국이다 (패널 A, EQ3.1). 중국은 0-4세 여아 100명당 남아 수가 122명이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에서도 남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그 외에도 자연적 비율의 상한선을 초과하는 비율을 보이는 국가에는 한국, 홍콩 (중국), 인도가 있다.

지난 20년간 거의 모든 국가에서 남성인구비율 증가추세가 나타났다 (패널 B, EQ3.1). 이는 이 기간 중 영아사망률이 크게 감소하면서 생물학적으로 좀 더 취약한 남아들이 많이 생존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도표를 보면 중국,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의 성비 불균형이 지난 30년 동안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1950년대 초반 중국의 성비는 급격히 하락했다가 1980년대 중반까지 점차 상승했다 (EQ3.2). 1980년대 후반부터 0-4세 인구 집단에서는 여성인구비율부족 현상이 매우 급격히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은 정점에 달했다가 다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료를 보면 한국은 중국과 대체로 유사한 패턴을 따르고 있으나 1980년대 후반 급격히 상승

하면서 두드러졌다 (EQ3.3).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성비는 상승할 때만큼이나 급속하게 하락했다. 그러나 그 시점부터 비율은 다시 상승을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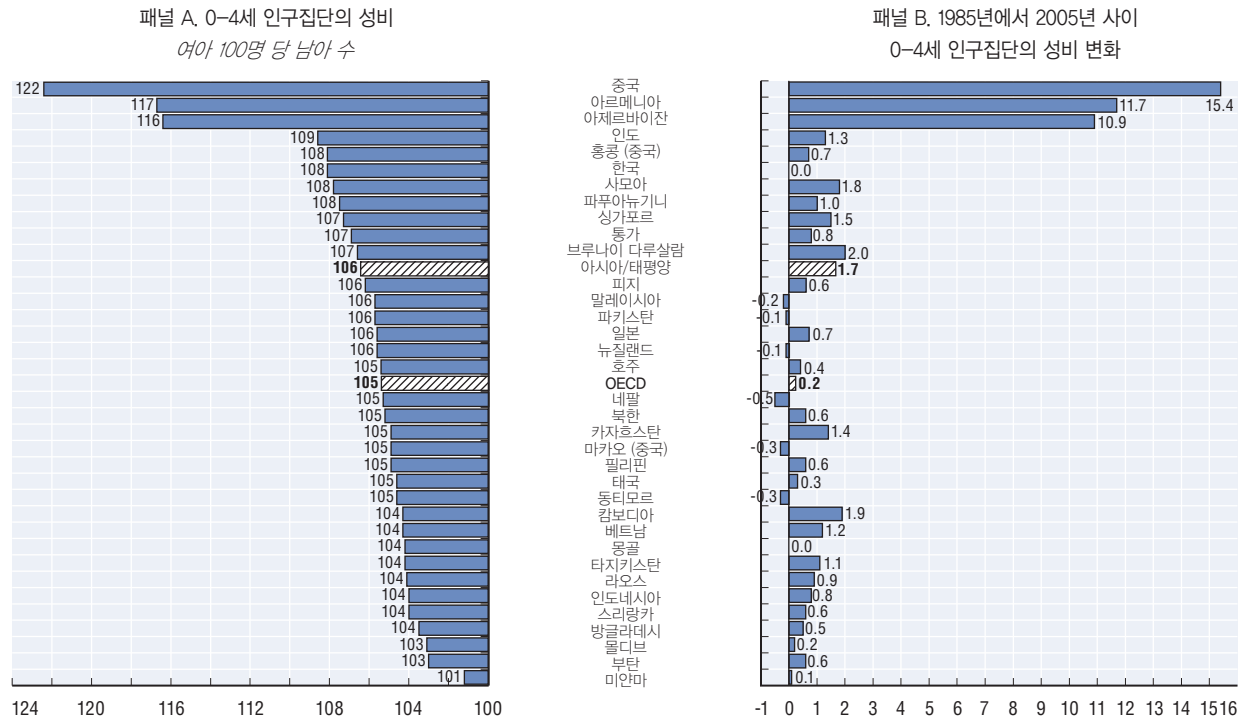
정의와 측정방법

인구 통계 값과 성비 계산에는 UN 경제사회처 자료가 사용되었다. 인구통계 자료는 80세 이상까지 5세 단위의 연령 집단으로 묶은 남자와 여자의 수로 매년 제시된다. “80세 이상”의 연령집단은 노인 집단을 이미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연령을 넘어서는 데이터는 더 이상 세분하여 분류하지 않는다. 성비는 주로 0-4세 집단에 대해 계산하는데 그것은 이 연령대가 성비불균형 (gender bias)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여아보다 남아가 더 많이 태어나지만 남아의 아동기 사망률이 더 높기 때문에 5세가 되면 수가 거의 비슷해지게 된다 (Hudson and Boer, 2004). 총합 기준으로 계산된 성비는 전반적으로 불균형한 성별 분포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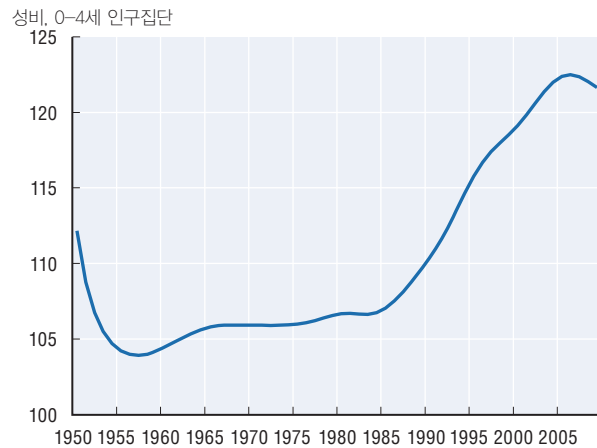
참고문헌

Hudson, V. and A.M. Den Boer (2004), Bare Branches : The Security Implications of Asia's Surplus Male Population, MIT Press, Cambridge, 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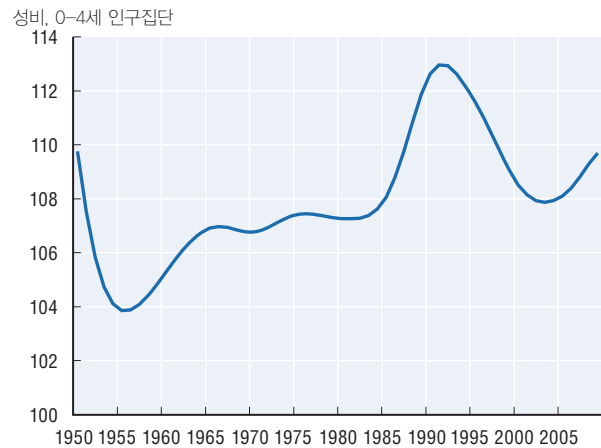
EQ3.1. 성비 현황 및 변화



EQ3.2. 1950년-2009년 사이 중국 최연소 인구집단의 성비



EQ3.3. 1950년-2009년 사이 한국 최연소 인구집단의 성비



출처 : UN 경제사회처, OECD 인구통계자료.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546395>

EQ4. 연금

노령연금은 사회가 노인들에게 퇴직 후 물질적으로 제공 하는 수단이 된다. 노령연금은 노후의 개인과 가족 부양을 부분적으로 대체한다. 여기에서는 연금의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을 다루고 있는데 첫번째는 인구 중 연금제도의 혜택을 받는 비율이고 두번째는 지급된 연금이 이전 소득을 얼마나 대체하는가이다.

연금 수혜자 비율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노동력의 90%부터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등의 10% 미만까지 다양하게 분포한다 (패널 A, EQ4.1). 후자는 일반적으로 노인들이 물질적으로 가족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들이다. 연금 지급은 항상 노동력 기준으로 봤을 때보다 근로연령 인구 기준으로 봤을 때 크게 낮아진다. 한국의 연금 가입율은 다른 OECD 회원국들보다 크게 낮아서 노동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구 두 명당 한 명 정도에 불과하다. 이것은 근로자들, 특히 여성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는데 그 이유는 이들은 노인 가족도 부양하고 자녀도 가져야 한다는 부담을 갖기 때문이다.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중국은 연금 가입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향후 수년간 노인들은 가족들의 부양에 크게 의존하게 될 전망이다.

소득대체율은 연금가입율보다 차이가 작다 (패널 B, EQ4.1). 대부분의 국가에서 저소득자일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아서 노인들의 소득불평등성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된다. 연금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을 단순히 대체해버리는 예외적인 국가로는 싱가포르 (대체율이 소득의 10%에 불과), 브루나이,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이 있다. 중국, 베트남, 파키스탄은 연금가입율이 매우 낮으면서 소득대체율이 비교적 높은 국가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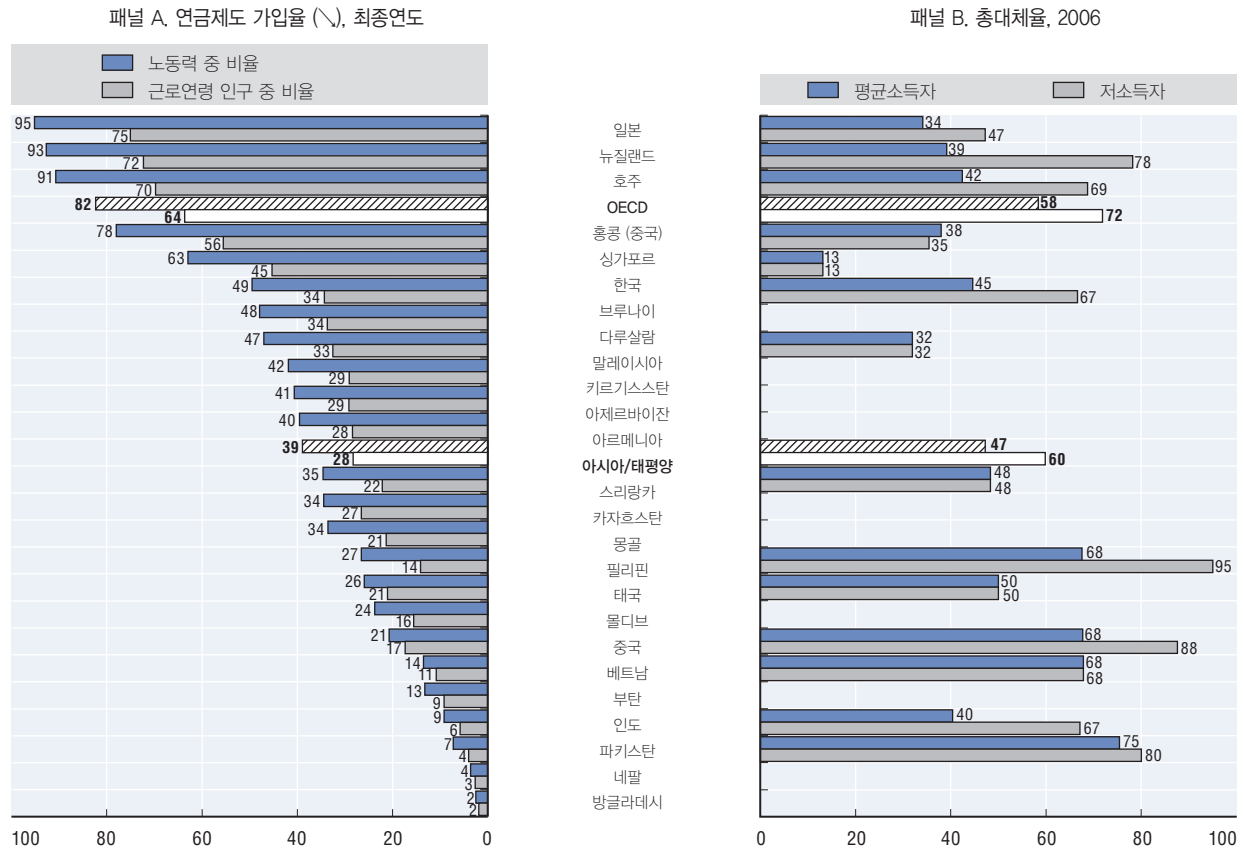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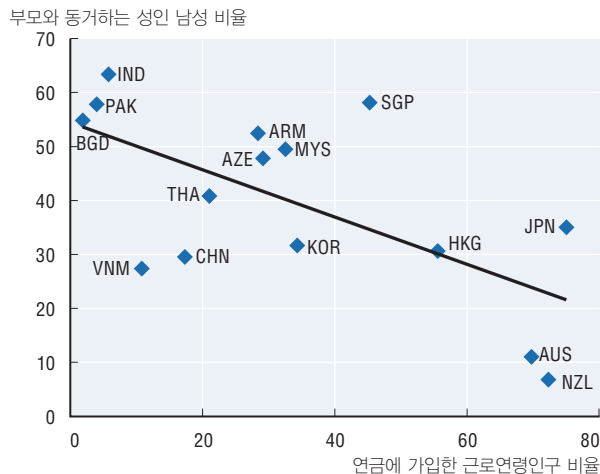
성인 남성이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높은 국가들은 연금 가입율이 낮았다 (EQ4.2). 부모와 동거하는 성인 남성을 세대간 성인 가족 유대의 지표로 볼 수 있다면 가족이 노인을 물질적으로 부양하는 경우는 연금가입율이 낮은 국가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사는 인구의 비율이 높은 국가일 수록 연금가입율이 낮았다 (EQ4.3). 절대적 빈곤이 큰 국가들은 유급노동급여액이 적고 비용이 발생하므로 연금목적으로 과세할 소득이 적은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입율이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에도 낮은 연금가입율은 높은 노령 빈곤율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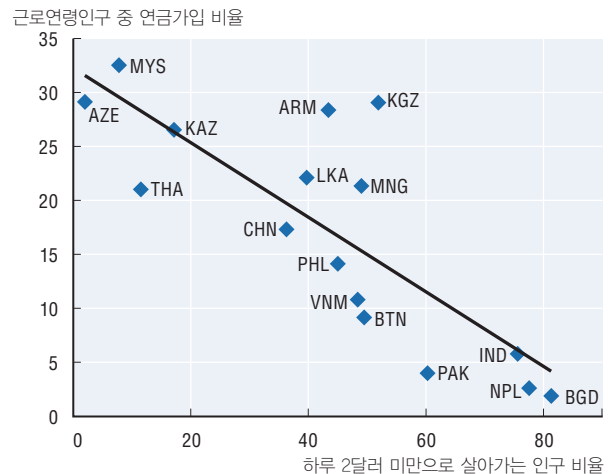
정의와 측정방법

연금 가입율 자료는 세계은행 데이터베이스를 출처로 한다. 대체율은 OECD의 한 눈에 보는 연금 2009 아시아/태평양 판에서 가져왔다. 부모와 동거하는 성인 남성 자료는 GE3에, 빈곤 자료는 EQ1에 설명되어 있다.

EQ4.1. 연금 가입율과 소득대체율

EQ4.2. 부모와 동거하는 성인 남성이 많을수록
연금 가입율은 낮다.

EQ4.3. 빈곤한 국가일수록 연금가입율이 낮다.



출처 : 연금가입율은 세계은행 데이터베이스, 대체율은 OECD Pensions at a Glance Asia/Pacific 2009.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546414>

EQ5. 사회적 지출

사회적 공공지출은 정부가 연금, 급여 (사회적 지원), 보건 분야에 할당하는 자원의 액수를 측정한다. 사회적 지출에 대한 전통적 논쟁의 상당 부분은 난점을 예방함으로써 형평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시아 지역의 GDP 대비 사회적 지출 비율은 국가별로 크게 다르다 (EQ5.1). 아태지역의 평균 사회적 지출은 OECD 전체 평균의 4분의 1이다. 아태지역 OECD 4개 회원국의 사회적 지출 모두 OECD 전체 평균 사회적 지출에 못 미친다. 사회적 지출 비율이 가장 높은 일본, 뉴질랜드, 호주의 사회적 지출은 각각 GDP의 18% 정도이다. 반면 아태지역의 9개국은 사회적 지출에 GDP의 2% 미만을 소비하며 파푸아뉴기니가 가장 낮아 0.3%에 불과하다.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지출의 분포 역시 국가별로 크게 다르다 (EQ3.2).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크게 지출하는 영역은 사회보험이며 방글라데시와 캄보디아는 미시 및 지역 기반 지출 정책이다. 많은 아태지역 국가의 경우 사회보험은 공적, 공식적 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불가피하게 빈곤층의 대부분 뿐 아니라 인구의 대다수를 배제하고 있다.

사회적 지출이 많은 국가들은 대체로 절대적 빈곤이 낮은 국가들이다 (EQ5.2). 절대적 빈곤이 높은 국가들은 사회적 비용은 낮은 경향을 보였는데 이것은 비용과, 유급노동량이 낮아 사회적 목적으로 과세할 소득도 적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낮은 사회적 지출은 높은 빈곤율의 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아태지역에서는 경제발전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보장지출이 많아지는 경향은 없었다 (EQ5.3). 최소한의 관련성이 나타난 국가는 부유한 3개 국가인 호주, 뉴질랜드, 일본이었다. 다른 국가에서는 어떤 상관관계도 나타나지 않았다. 아태 지역 국가들이 발전해가면서 부유한 OECD 국가 내에 존재

하는 것과 비슷한 복지제도가 자동적으로 발달할 것으로 주장할만한 근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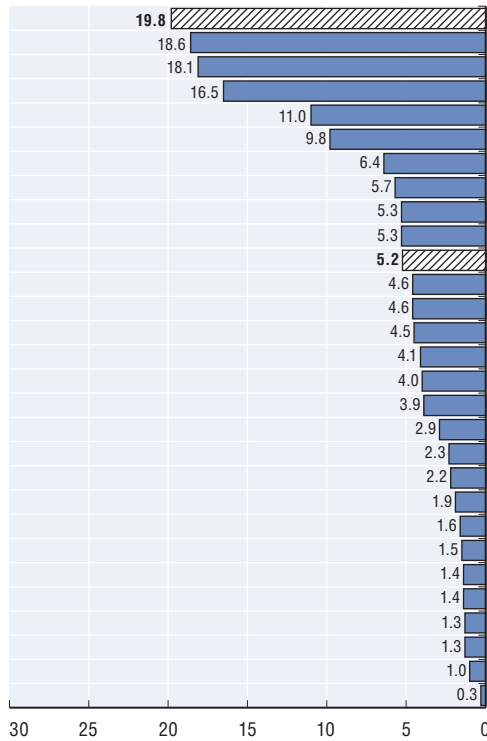
정의와 측정방법

빈곤계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가족, 지역사회 제도, 정부를 통해 제공된다. OECD 국가에서 이러한 지원 중 상당부분은 현금 급여, 세금 혜택, 그리고 상품과 서비스의 현물급여 지원을 포함한 사회적 지출의 형태를 띤다. 각종 급여 (benefits)가 사회적 지출에 포함되려면 저소득, 노령, 실업 또는 장애 등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사회복지혜택의 제공을 규정하는 프로그램들은 가정 및/또는 강제 참여 전반에 걸친 자원의 재분배와 연관된다. 사회적 비용은 정부가 관련 재정 흐름을 통제하면 공적인 재원으로 분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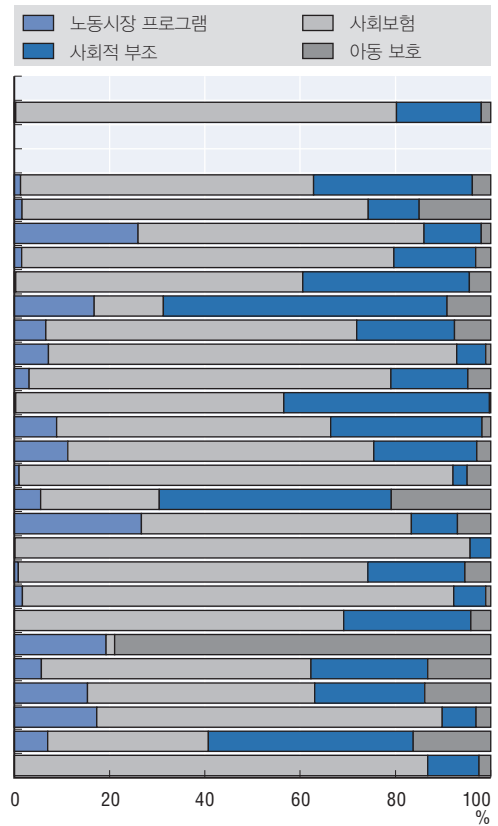
여기 제시된 자료는 아시아 개발은행의 빈곤 완화를 위한 사회보장지표 – 아시아 판 (Social Protection Index for Committed Poverty Reduction–Vol. 2: Asia) (2008, www.adb.org/Documents/Books/Social-Protection/Volume2)과 OECD의 사회적 지출 데이터베이스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에서 발췌했다. 아시아 개발은행은 사회보장을 노동시장 프로그램, 사회보험, 사회적 부조, 미시 및 지역차원 프로그램 (마이크로크레딧 포함)으로 나누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OECD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완전하게 비교하기는 어렵다.

EQ5.1. 사회적 지출의 수준 및 구성

패널 A. 사회보장지출 GDP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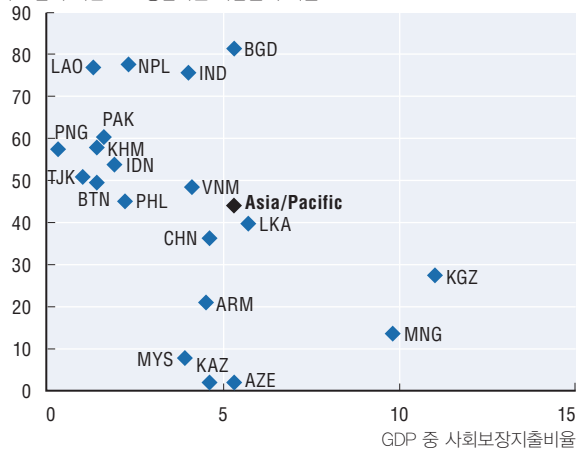


패널 B. 프로그램 카테고리 별 사회적 지출, 2004/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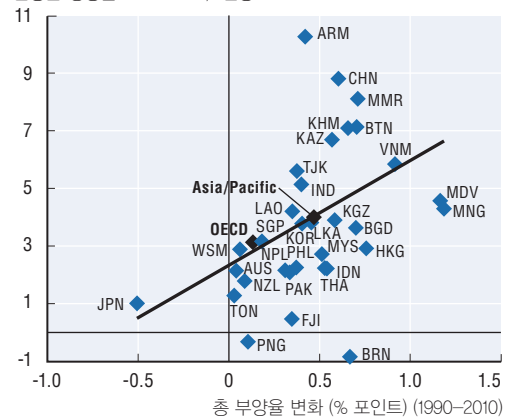
EQ5.2. 사회적 지출과 빈곤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비율



EQ5.3. 사회적 지출과 1인당 GDP

연평균 성장률 1995-2008, 1인당 GDP



출처 : ADB (2008), 빈곤완화를 위한 사회보장지표-아시아 판 (Social Protection Index for Committed Poverty Reduction, Vol. 2, Asia/Pacific Edition) ; OECD 사회적 지출 데이터베이스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546433>

제 7 장

보건지표 (HE)

HE1. 기대여명
HE2. 유아 사망률
HE3. 식수와 위생
HE4. 성인 신장 (height)
HE5. 의료비 지출

HE1. 기대여명

출생 시의 기대여명은 삶을 양적으로 측정하는 핵심적인 사회적 지표이며 국민의 건강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일반적이고 잘 알려진 지표이다.

22개 아시아 국가에서 인구 전체의 출생 시 기대여명은 2008년 평균 71.6세로 1970년 이후 14년 이상이 늘어났다. 비교해보면 OECD 국가의 경우 위의 같은기간 중 기대여명이 9년 늘어났다 (그림 HE1.1). 그러나 출생 시 기대여명에는 지역별로 큰 차이가 존재한다. 2008년 기대여명이 가장 길었던 국가는 일본으로 여성과 남성을 합치면 82.6세였다. 홍콩 (중국), 호주, 마카오 (중국), 싱가포르, 뉴질랜드 모두 총 기대여명이 80세를 넘었다. 반면 아태지역의 많은 국가에서는 총 기대여명이 70세가 못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캄보디아, 파푸아뉴기니, 미얀마에서는 2008년에 출생한 아기는 평균 62년도 생존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동아시아국가들 (중국, 일본, 한국)이 동남아국가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이나 남아시아 국가들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보다 출생 시 기대여명이 길었다.

아태지역 국가에서 출생 시 기대여명은 크게 늘어났으며 이것은 모든 연령에서 사망률이 크게 줄어든 현상을 반영한다. 기대여명의 증가에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생활수준 향상과 영양상태, 식수와 위생의 개선도 이에 포함된다. 생활습관 개선, 교육기간 연장 및 질 높은 보건 서비스에의 접근성 확대 역시 기대여명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건강상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남녀간, 그리고 국가 내 기대여명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한다. 거주국의 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오래 살며 65세까지의 생존율도 높다 (그림 HE1.2와 HE1.3). 기대여명의 성별차이는 2008년 아시아 지역에서 평균 4.4년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OECD의 평균 5.6년보다 짧았다.

국민소득이 높을수록 (1인당 GNI로 측정) 대개 출생 시 기대여명이 길었다 (HE1.2). 1인당 소득이 비슷한 국가들 간에 기대여명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베트남과 일본은 기대여명이 길었고 브루나이와 태국은 1인당 GNI로만 예상한 것과 비교해 실제 기대여명은 짧았다.

정의와 측정방법

출생 시 기대여명은 국민의 건강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잘 알려진 지표이며 한 국가의 보건발달을 측정하는데 자주 사용된다. 이 지표는 신생아 출생시의 지배적인 사망률 패턴이 평생동안 동일하게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신생아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생존하는가를 측정한다. 기대여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므로 편차는 오랜 시간에 걸쳐 평가하는 것이 가장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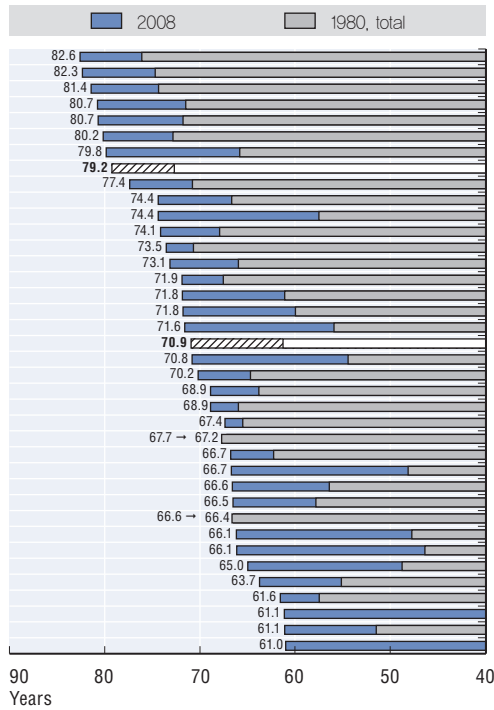
기대여명을 발췌하는 표를 구성하려면 연령별 사망률이 필요하다. 각국은 일정한 방법론에 따라 기대여명을 계산하는데 이 방법론은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1년까지의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 일부 국가는 실제 사망 신고자료가 아니라 인구통계와 조사에서 발췌한 추정치를 바탕으로 기대여명을 산정하기도 한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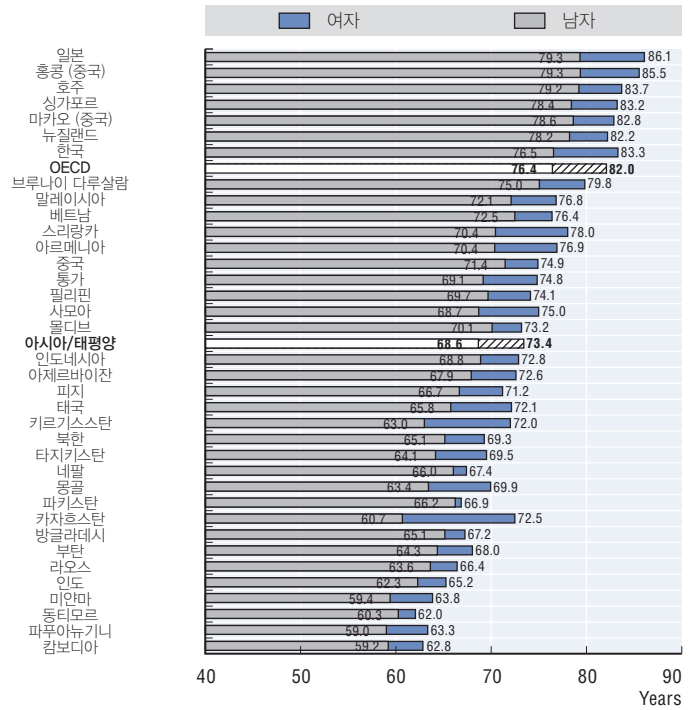
WHO (2008), Health in Asia and the Pacific, World Health Organization, Regional Office for South-east Asia, New Delhi.

HE1.1. 기대여명의 수준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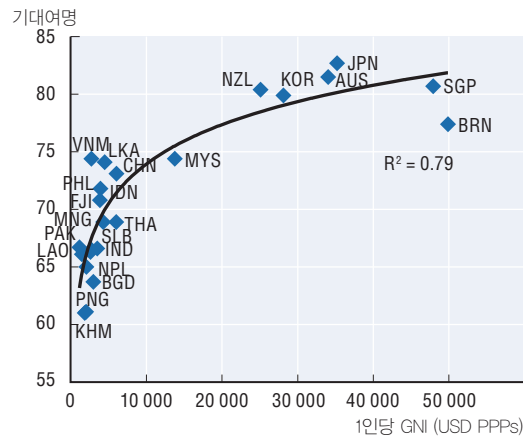
패널 A. 출생 시 기대여명, 총 인구, 1980년과 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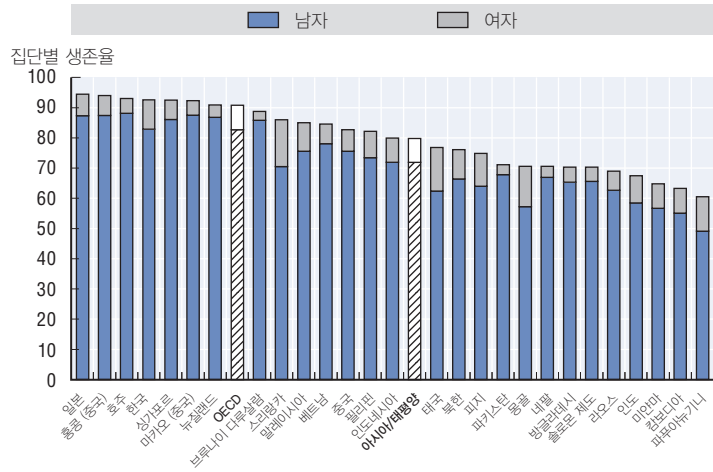
패널 B. 성별에 따른 출생 시 기대여명, 2008년



HE1.2. 출생 시 기대여명과 1인당 GNI, 2008



HE1.3. 65세까지의 생존율, 2008



출처 : OECD 2010년 보건 자료 ; 세계은행 온라인 세계 개발 지표.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546452>

HE2. 영아사망률

영아사망률은 영아의 건강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이다. 영아 사망률은 전반적인 기대여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데 영아사망률이 높은 국가에서 특히 그러하다. 영아사망률 감소는 기대여명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높은 영아사망률 수준에서 시작한 국가의 경우 그 경향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 영아사망률은 보건체계의 효과성뿐 아니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에 경제, 사회적 상황이 미치는 영향을 반영한다. 아태지역에서 출생 후 1년 이내에 발생하는 사망의 약 3분의 2는 신생아(즉, 출생 후 첫 4주간) 사망이다. 산모의 건강, 출산관리 및 출생 시 신생아 체중 등의 요소가 영아 사망의 중요한 결정요소이며 산모와 아기의 설사, 폐렴, 영양 실조 등이 사망의 원인인 경우가 많다.

경제발전수준이 높은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영아사망률이 낮다. 2008년, OECD 국가의 평균 영아사망률은 1,000명당 5명인 반면 19개 아시아 국가의 평균은 30명이었다(HE2.1). 지리적으로 영아사망률은 동아시아에서 낮게 나타나며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에서는 높게 나타난다. 싱가포르, 일본, 한국, 호주는 2008년, 1,000명당 5명 미만이었으며 파키스탄, 미얀마, 캄보디아, 파푸아뉴기니, 인도는 50명을 초과했다.

아태지역의 영아사망률은 지난 30년간 크게 감소했다.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많은 국가에서 50~70%의 감소를 보였다(HE2.1과 HE2.2).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한국, 베트남, 태국에서는 사망률이 4분의 3가량 줄어들었다. 미얀마, 솔로몬군도, 캄보디아, 파푸아뉴기니, 파키스탄의 경우 1980년에는 영아사망률이 높았으나 그 감소폭은 전자의 국가들보다 작았다. 이로 인해 아태 지역에서 이들 국가와 그 외 국가들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영아사망률의 불균형은 국가 내에도 존재하며(HE2.3) 인구 상위 5분위 집단은 극빈층에 비해 주요 의료 서비스를 빨리 받을 수 있다. 국가 간과 국가 내 존재하는 불평등을 감소시

키는 것은 아태지역의 영아사망률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정의와 측정방법

영아사망률은 국민의 건강을 측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통계 중 하나이다. 영아사망률은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첫 돌을 맞기 전에 사망하는 아기들의 수로 정의되며 출생아 1,000명당 숫자로 표현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영아사망률을 출생 및 사망신고서가 아니라 인구통계와 조사에서 발췌한 추정치를 기준으로 한다. 미숙아 등록의 국가별 차이도 영아사망률의 국가 간 차이에 약간 기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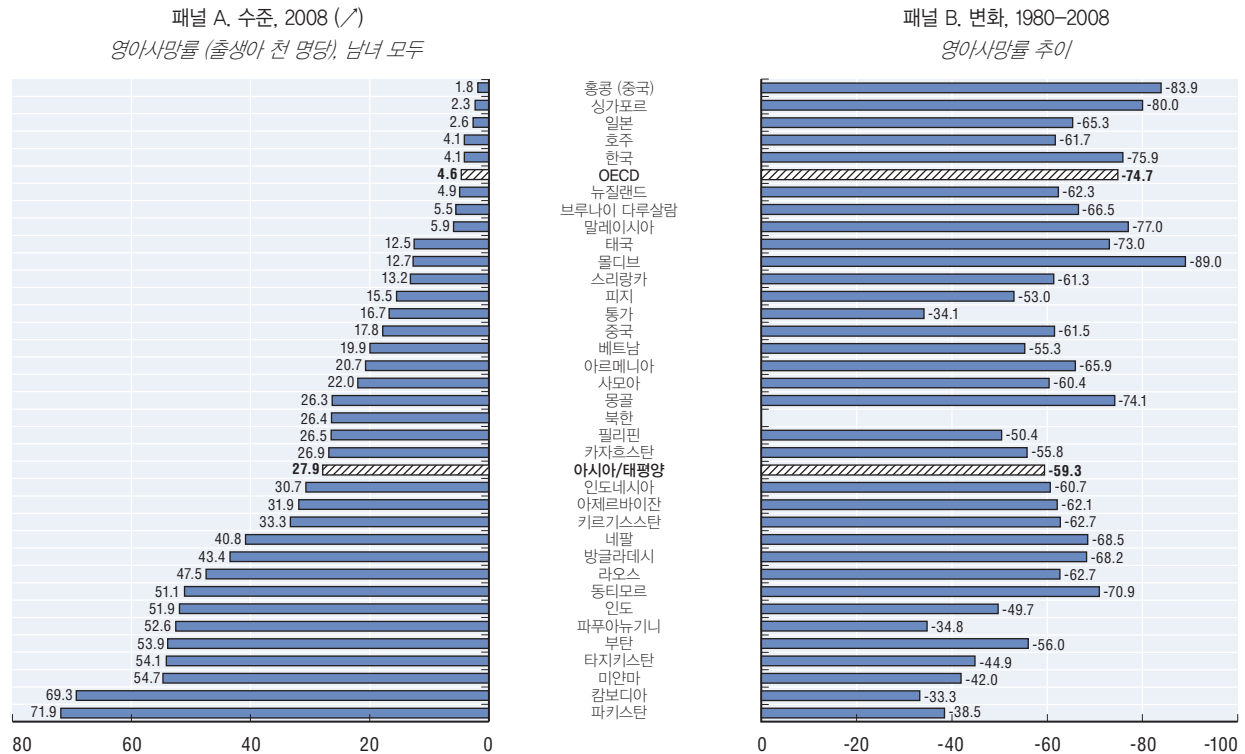
OECD 국가 자료는 OECD 보건 자료 2010을 출처로 한다. 홍콩 (중국) 자료는 1985년과 2008년 UN 인구학적 연감에서 발췌했다. 다른 국가들은 유니세프 아동 정보 데이터베이스 (www.childinfo.org/mortality.html)에서 발췌했다. 자산기준 5분위 집단별 영아 사망률 자료는 인구학 및 보건조사(Demographic and Health Surveys) (DHS 2006-2009)와 Gwatkin et al. (2007)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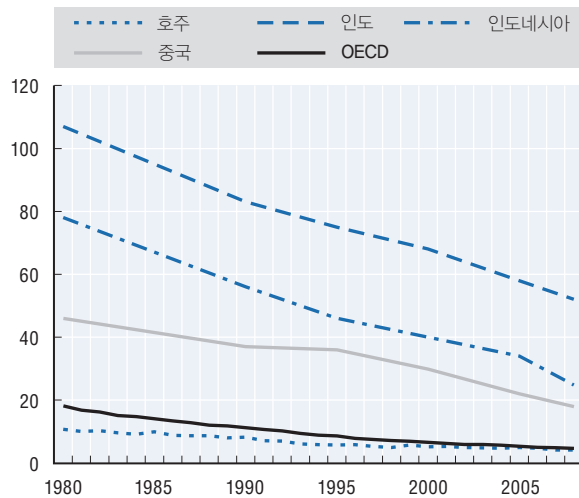
Gwatkin, D.R., S. Rutstein, K. Johnson, E. Suliman, A. Amouzou and A. Wagstaff (2007), "Socioeco-nomic Differences in Health, Nutrition and Poverty", HNP/Poverty Thematic Group of the World Bank, World Bank, Washington, DC.

UNICEF (2008), Tracking Progress in Maternal, New-born and Child Survival : The 2008 Report, UNICEF, New Y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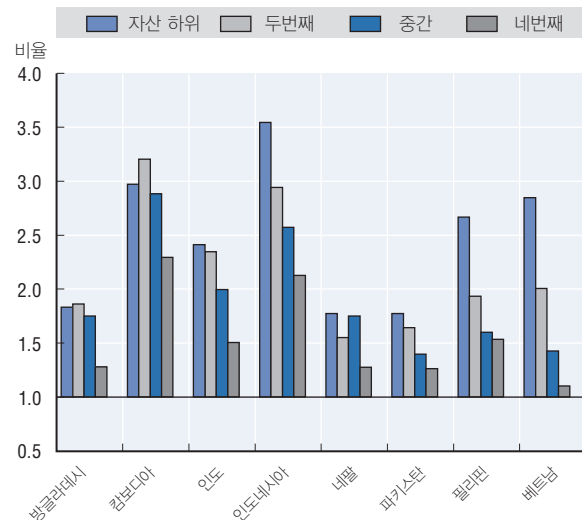
HE2.1. 영아 사망률 수준과 추이



HE2.2. 일부 국가의 영아 사망률, 1980-2008



HE2.3. 일부 국가의 자산기준 5분위 집단별 영아사망률



주: HE2.1: 한국의 2006년 자료. 사망률 변화는 1981-2006 자료.

출처: OECD 회원국 자료는 2010 OECD 보건자료. 비 OECD 회원국은 UN 인구학적 연감 2009-2010 (United Nations Demographic Yearbook 2009-2010), 유니세프 2008년 보고서, 인구학적 보건조사, Gwatkin et al. (2007).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546471>

HE3. 식수와 위생

깨끗한 환경을 확보하는 것은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중요하며 이 보고서에서는 개선된 식수와 위생을 확보할 수 있는 인구 비율로 그 접근성 정도를 측정한다. 공기와 수질이 열악하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깨끗한 식수와 위생시설을 확보한 인구 비율은 아태지역 내 OECD 회원국들이 가장 높다 (패널 A, HE3.1). 반면 인도와 네팔, 캄보디아의 경우 국민의 3분의 1 이하만이 개선된 위생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물을 확보한 인구 비율은 위생시설을 확보한 비율보다 높다. 그 외에 위생확보 비율이 높은 국가의 경우 깨끗한 물 확보 비율도 높은 경향이 있다.

1990년부터 2008년 사이, 식수와 위생의 수준은 대부분의 아태지역 국가에서 개선되어 왔다. 예를 들어 몽골에서는 개선된 위생 확보 비율이 50퍼센트 이상 증가한 반면 물은 18퍼센트 증가했다. 아제르바이잔도 비슷한데 위생은 45퍼센트, 물은 10퍼센트 증가했다. 베트남은 위생은 40퍼센트, 물은 36퍼센트였다.

위생과 물 상태의 개선율이 저조하면 영아 사망률이 높게 나타난다 (HE3.2와 HE3.3). 위생과 수질의 개선은 사망률, 특히 영아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공중보건 지표인데, 영아들은 설사에 특히 취약하며 이것이 사망 위험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이 관계는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세번

째 요소를 반영한다. 가장 명확한 요소는 경제발전의 수준인데 이것은 영아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검증된 의학 및 기타 공중보건의 발전을 제한할 뿐 아니라 깨끗한 식수와 위생을 손쉽게 확보하기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정의와 측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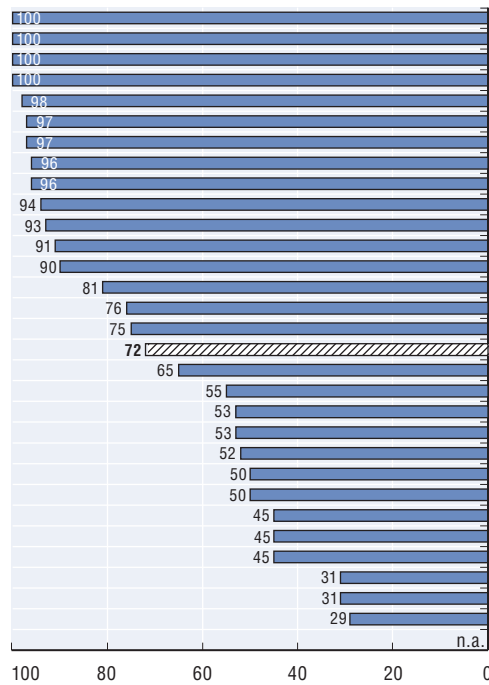
개선된 수자원 (수도, 보호된 우물, 우수)과 위생 (수세식 화장실, 정화조, 재래식 화장실, 비료처리 화장실 (composting toilet) 등) 시설을 확보한 인구 비율 자료는 WHO JMP 데이터 (www.wssinfo.org/datamining/introduction.html)를 출처로 한다. 정의는 WHO/UNICEF (2010)에서 상세하게 논의하고 있다. 영아사망률 자료의 출처는 HE2에 나와 있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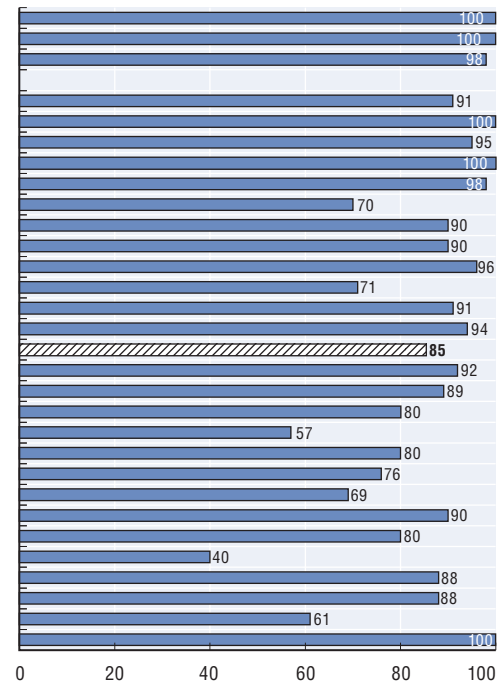
WHO/UNICEF (2010), “Joint Monitoring Programme for Water Supply and Sanitation. Progress on Sanitation and Drinking Water”, 2010 Update.

HE3.1. 식수와 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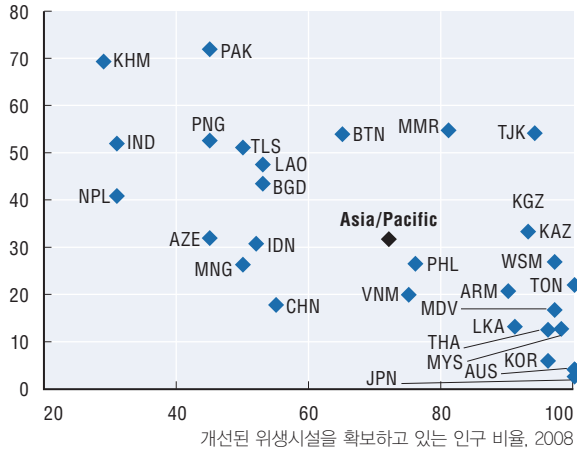
패널 A. 개선된 위생시설을 누리는 인구 비율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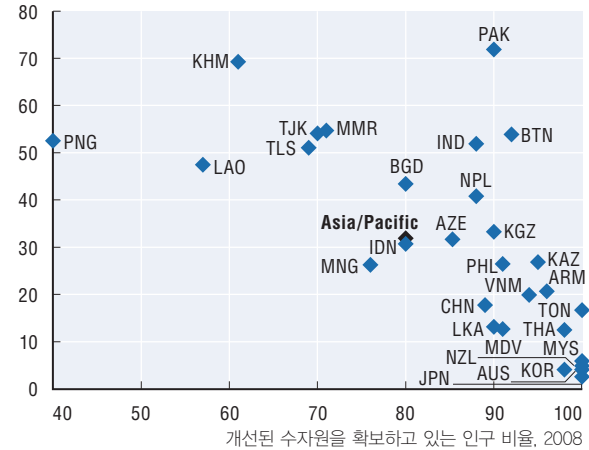
패널 B. 개선된 수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인구 비율 (%)

HE3.2. 낮은 위생시설 비율과
높은 영아사망률은 함께 나타난다.

출생아 천 명 당 영아사망률, 2008

HE3.3. 깨끗하지 못한 수자원 비율과
높은 영아사망률은 함께 나타난다.

출생아 천 명 당 영아사망률, 2008



주 : HE3.1 : 패널 A 뉴질랜드 자료는 없음.

출처 : 세계보건기구 JMP 데이터셋 (www.wssinfo.org/datamining/introduction.html). 상세한 정의는 WHO/UNICEF (2010) 참조.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546490>

HE4. 성인 신장(height)

성인 신장은 유전적 잠재력과 아동기 전체의 순영양에 의해 결정된다. 순영양이란 식품 섭취와 신체적 활동 및 질병으로 인한 손실 간의 균형인데 순 영양이 열악하면 성인 신장에 최대 10-15센티미터의 영향을 줄 수 있다 (Steckel, 2008). 성인이 최대 잠재신장에 도달하려면 6세대의 최적화된 성장 조건이 필요하다 (Cole, 2003). 부유한 국가의 경우 인구 내 신장 차이의 약 5분의 1이 가족 및 주변 환경에 의한 것이다. 빈국의 경우 이 비율이 더 높는데 그 이유는 인구 내 환경적 차이가 더 크고 최적 성장 조건의 이력이 더 짧기 때문이다.

아태지역 국가간에 성인 신장은 큰 차이를 보인다. 남녀 모두 호주, 통가, 뉴질랜드, 피지 등 남태평양 도서국가 사람들이 가장 크고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 아시아 도서국가와 인도 및 부근 지역 주민들이 가장 작다 (HE4.1과 HE4.2). 호주에서 남자가 1.78미터로 가장 크고 인도네시아 남자가 평균 1.62미터로 가장 작다. 통가 여성은 1.66 미터, 몰디브 여성은 1.50미터이다.

북한과 티모르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남녀 모두 신장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그러나 45-49세 인구집단과 0-24세 집단 간의 신장 차이는 국가별로 차이가 컸다 (HE4.3). 한국의 경우 젊은 남성들이 아버지 세대보다 거의 6센티미터 더 컸다. 북한에서는 젊은 남성들이 부모세대와 동일한 신장을 보였다. 몽골과 말레이시아를 제외하고 신장의 변화는 여자보다 남성들에게 크게 나타났다. OECD 내에서의 발전과는 대조적으로 신장이 작은 국가들은 신장이 큰 국가들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었다.

경제성장속도가 빠른 국가에서는 20-24세의 젊은 여성들이 아동기에 신장이 더 빨리 자란다 (HE4.4). 경제성장은 영양 상태의 개선과 깨끗한 물, 위생시설, 의료 서비스의 공급을 바탕으로 신장 증가를 가능케 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키가 크고 체력이 좋은 사람들은 좀 더 생산성있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므로 이것이 성장을 촉진하는 것일 수도 있다 (Deaton, 2007).

참고문헌

- Cole, T.J. (2003), "The Secular Trend in Human Physical Growth : A Biological View", *Economics and Human Biology*, Vol. 1, pp. 161-168.
- Deaton, A. (2007), "Height, Health, and Development",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Vol. 104, pp. 13232-13237.
- Gorber, S.C. et al. (2007), "A Comparison of Direct vs. Self-report Measures for Assessing Height, Weight, and BMI: A Systematic Review", *Obesity Reviews*, Vol. 8, No. 4, pp. 307-3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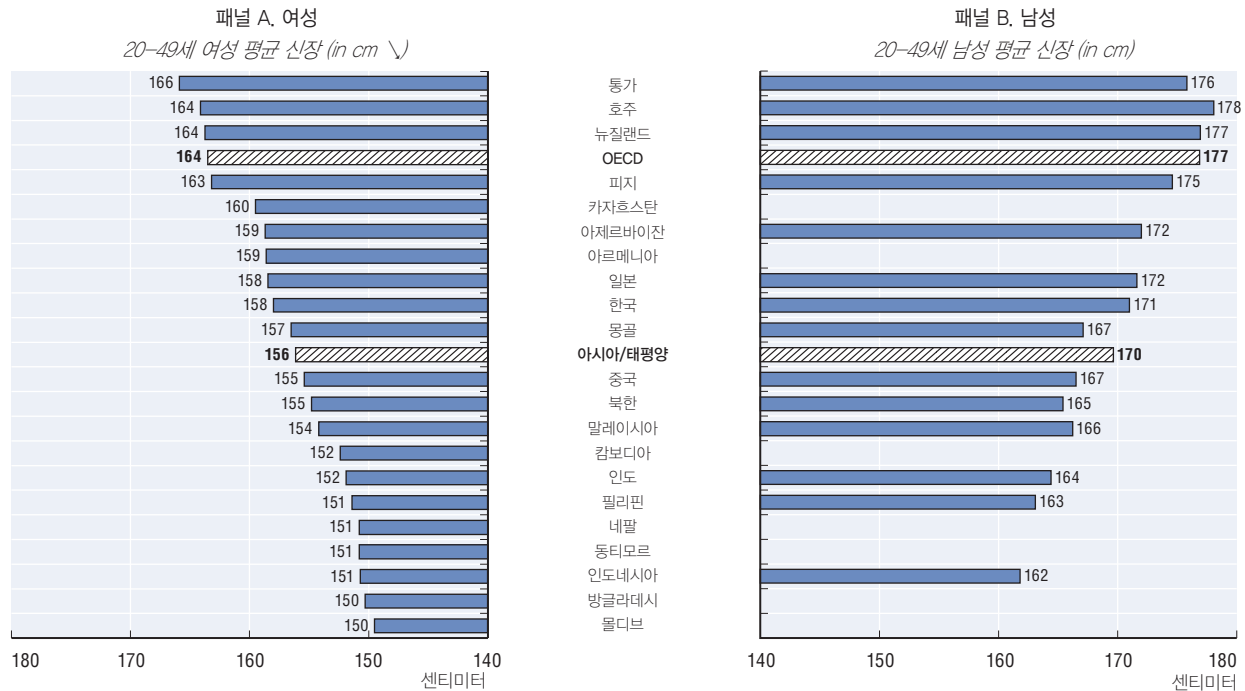
정의와 측정방법

이상적으로 성인신장 자료는 20세부터 49세 사이의 성인들에 대해 기록한다. 사람들은 20대 초반에 완전한 성인 신장에 도달하며 50세 이상이 되면 신장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Deaton, 2007). 사람들은 자신의 신장을 부풀려서 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기보다는 실제로 측정하는 것이 좋다 (Gorber et al., 2007 ; Lim et al., 2009). 호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실측 자료를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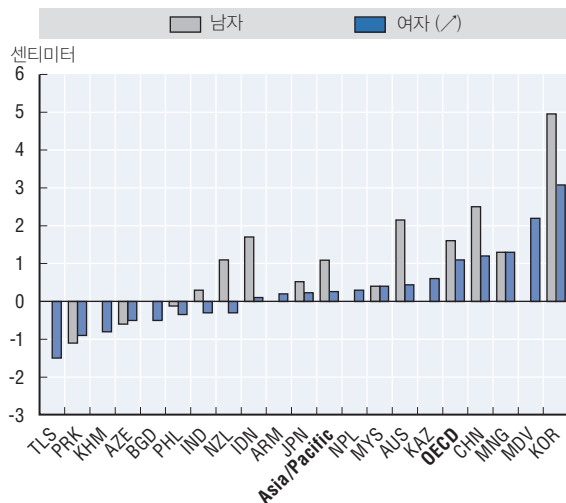
가능하면 자료는 특화된 보건 조사를 통해 직접 확보했다. 인도와 방글라데시, 네팔,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의 경우 자료는 인구 및 보건 조사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s)에서 발췌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한 가중치도 적용했다. 중국의 경우 자료는 중국 보건 영양 조사 (중국 Health and Nutrition Survey)에서 발췌했으며 여기에서는 대상인 아홉 개 성에서 조사된 샘플을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 다단계 클러스터 프로세스를 사용하고 있다. 추가적인 가중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자료는 가드자 마다 대학의 인구 정책 연구센터인 RAND에서 수행한 인도네시아 가족 생활 조사 (Indonesian Family Life Survey)와 METRE 조사를 출처로 하고 있으며 샘플은 인도네시아 인구의 약 83%를 대표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 1999년에서 2003년 사이 한국으로 탈북한 탈북자들을 조사한 것이다. 그러므로 표집편의 (selection-bias)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나머지 국가에 대한 자료는 국가 공식 보고서나 발행된 보건 논문을 이용했다. OECD 국가의 신장에 대한 상세자료는 OECD (2009)를 출처로 한다.

- Lim, L.Y., Sam-ang Seubsman and Sam-ang Sleight (2009), "Validity of Self-reported Weight, Height, and Body Mass Index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Thailand: Implications for Population Studies of Obesity in Developing Countries", *Population Health Metrics*, Vol. 7, No. 15.
- OECD (2009), *Society at a Glance: OECD Social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 Steckel, R.H. (2008), "Heights and Human Welfare: Recent Developments and New Directions", Working Paper, No. 14536,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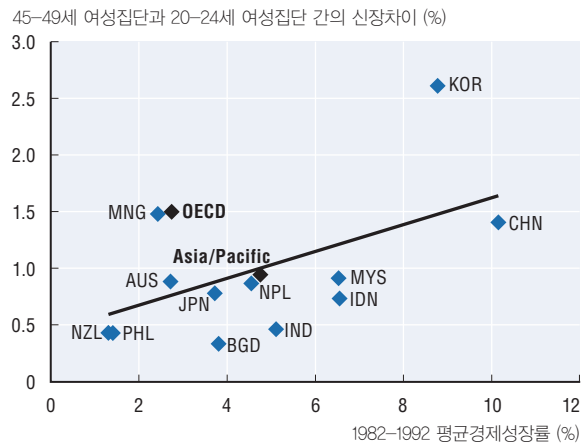
HE4.1. 남성과 여성의 신장



HE4.2. 20-24세 집단과 45-49세 집단간 신장 차



HE4.3. 신장 차이와 경제성장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다.



주 : 통가의 경우 평균 신장은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했다. 몽골은 25세-54세 인구가 대상이다. 몰디브와 북한은 20-24세 인구와 40-49세 인구집단을 비교했다. 말레이시아는 20-29세와 40-49세 집단을 비교했다. 필리핀은 20-39세와 40-59세 집단을 비교했으며 몽골은 25-34세와 45-54세 집단을 비교했다. 몰디브, 말레이시아, 북한의 경우 최고령 집단은 40-49세 집단을 포함한다. 필리핀의 최고령 집단은 40-59세, 몽골은 45-54세 집단을 포함한다. 경제성장자료는 세계은행을 출처로 하고 있다.

출처 : Craig, P., S. Colagiuri, Z. Hussain and T. Palu (2007), "Identifying Cut-points in Anthropometric Indexes for Predicting Previously Undiagnosed Diabetes and Cardiovascular Risk Factors in the Tongan Population", Obesit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Vol. 1, pp. 17-25 ; Food and Nutrition Research Institute (2003), Philippine Facts and Pictures 2003, Part II "Anthropometric Facts and Pictures" ; Ministry of Health, Republic of Maldives (2001),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MICS 2)" ; Ministry of Health and National Statistics Office, Timor-Leste, and University of Newcastle,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ACIL Australia Pty Ltd., Australia (2004), "Timor-Leste 2003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University of Newcastle, Australia ; My, A.R., R. Junidah, A. Siti Mariam et al. (2009), "Body Mass Index (BMI) of Adults: Findings of the Malaysian Adult Nutrition Survey (MANS)", Malaysian Journal of Nutrition, Vol. 15, No. 2, pp. 97-119 ; National Food and Nutrition Centre (2007), "2004 Fiji National Nutrition Survey", Main Report; Pak, S. (2004), "The Biological Standard of Living in the Two Koreas", Economics and Human Biology, Vol. 2, pp. 511-521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7), "Mongolian STEPS Survey on the Prevalence of Noncommunicable Disease Risk Factors 2006" ; OECD Health Data.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546509>

HE5. 의료비 지출

민간 및 공공 의료비 지출은 정부와 국민이 건강 개선에 자원을 사용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다. 그러므로 의료비 지출은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보건 성과 개선을 위한 중요한 사회적 대응이다.

GDP의 몇 퍼센트를 의료비에 지출하는가는 국가간 차이가 크다 (패널 A, HE5.1). 뉴질랜드와 호주는 GDP의 약 9%를 지출하는 반면 인도네시아와 미얀마는 약 2%만을 지출한다. 부유한 국가들이 GDP 중 의료비에 지출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1인당 GDP가 비교적 높은 싱가포르의 경우는 지출비율이 낮은 편이다.

OECD와 달리 아태지역의 의료비 지출은 지난 10년간 별로 증가하지 않았다 (패널 B, HE5.1). 베트남과 한국, 뉴질랜드가 가장 많이 상승했지만 의료비 지출상승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의료비 지출 비율의 하락은 여러 국가에서 나타났는데 브루나이와 네팔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소득 중 의료비 지출 비율이 높은 국가들은 기대여명으로 알 수 있듯이 건강이 더 좋은 경향이 있었다 (HE5.2). 그러나 이러한 상관관계는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기대여명이 높은 국가보다는 기대 여명이 낮은 국가에서 의료비지출 증가 폭이 컸다.

뿐만 아니라 의료비 지출 비율이 크게 높은 국가들은 GDP 수준이 높은 국가들이었다 (HE5.3). 그러나 GDP 비율을 보면 브루나이와 싱가포르의 경우 1인당 소득으로 추산한

것보다는 훨씬 적게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1인당 소득을 감안했을 때 예상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다.

정의와 측정방법

총 의료비 지출은 모든 주요 의료 서비스 기능—즉 총 의료 서비스, 외래환자에 사용되는 의료용품, 예방 및 공중보건 서비스, 보건 행정 및 건강 보험 등—에 관한 지출의 합계에 의료 서비스 제공 업체의 자본 형성을 더하여 계산한다. 이러한 기능에 대한 지출은 거주자 단위의 최종 사용을 위해 부담된 경우, 즉, 그것이 해당 국가나 해외에서 국민의 최종 소비인 경우 포함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최종 이용을 위한 수입은 포함되나 최종 이용을 위한 수출은 제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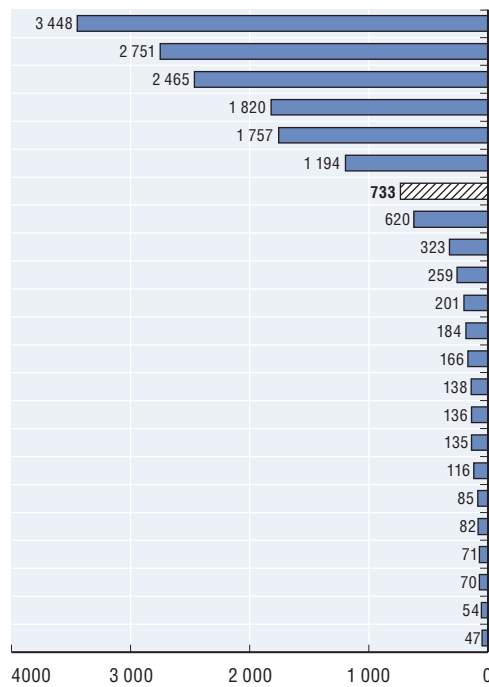
참고문헌

OECD (2000), A System of Health Accounts, version 1.0, OECD Publishing, Par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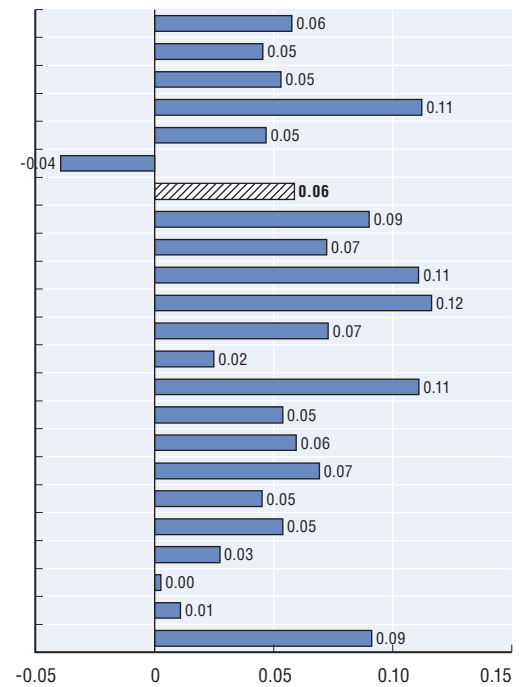
WHO (2010), National Health Accounts country data, World Health Organisation, Geneva.

HE5.1. 의료비 지출, 2008

패널 A. 1인당 총 실질 의료비 지출, USD PPP, 200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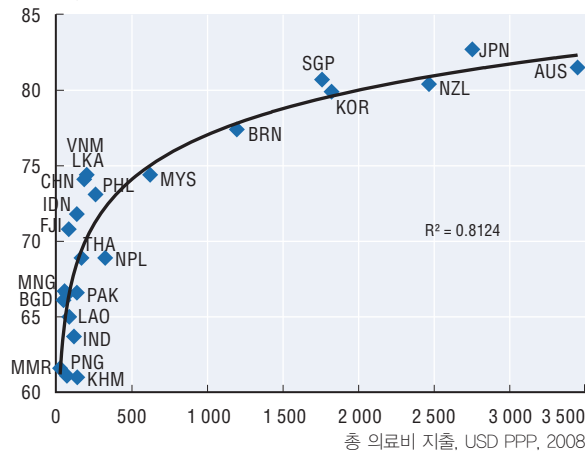


패널 B. 1인당 실질 의료비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 1998-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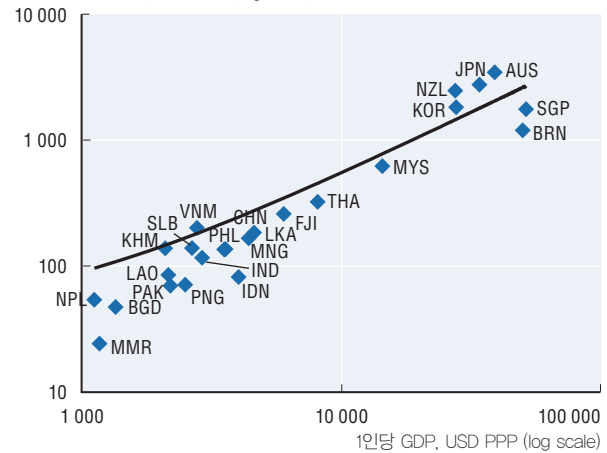
HE5.2. 의료비 지출과 기대여명, 2008

기대여명, 2008



HE5.3. 의료비 지출과 1인당 GDP, 2008

1인당 의료비 지출, USD PPP (log scale)



출처 : OECD Health Data, Paris ; WHO (2010), National Health Accounts Country Catalogue, World Health Organisation, Geneva ; WHO NHA Database (2010).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546528>

제 8 장

사회통합지표 (CO)

CO1. 삶의 만족도
CO2. 신뢰수준
CO3. 사회적 행동
CO4. 자살
CO5. 투표

CO1.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전반적인 삶에 대한 사람들의 만족도를 주관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삶의 만족도는 좋은 가족관계, 건강, 그리고 사회전반의 지배구조에 대한 신뢰와 긴밀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저소득 국가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의 삶의 만족도는 국가 차원의 소득과 연관되어 있다.

아태지역 국가들의 삶의 만족도는 OECD 회원국들보다 낮다 (패널 A, CO1.1). OECD 평균은 6.6인 반면 아태지역 국가들의 평균은 5.3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이 평균도 각각 7.4와 7.3을 기록하며 만족도 1, 2위를 차지한 호주와 뉴질랜드로 인해 상향된 것이다.

아태 지역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는 국가별로 차이가 크다.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뉴질랜드, 호주, 태국은 가장 낮은 스리랑카, 아르메니아, 캄보디아와 비교해 평균 세 단계가 더 높았다.

웰빙 점수가 높은 국가들은 만족기대여명도 길었다 (패널 B, CO1.2). 뿐만 아니라 만족기대여명의 차이는 삶의 만족도 차이보다 컸다. 뉴질랜드의 경우 만족기대여명은 최하위인 캄보디아보다 2.4배 높았다. 홍콩 (중국)에서는 기대여명이 비교적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만족도는 다소 낮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삶에 만족하면서 42년을 살 것으로 예상했고 이것은 아태지역 국가 평균보다 4년이 길다. 사실 홍콩 (중국)은 좀더 객관적인 건강상태 지표인 기대여명과 웰빙 간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예외적인 국가이다. 하지만 태국은 삶의 만족도가 출생 시 기대여명에 비해 비교적 높았다 (CO1.3).

부유한 국가에서는 사람들의 만족 기대여명 (satisfied life expectancy)이 더 길었다 (CO1.3). 1인당 GDP와 만족기대여명 간의 상관관계는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으며 몇몇 국가만 예외였다.

삶의 만족도는 부유한 국가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CO1.3). 그러나 태국처럼 회귀선에서 동떨어져 있는 국가들도 있었는데 1인당 GDP에 비해 높은 기대여명을 보인 국가들이었다. 한편 홍콩 (중국)은 1인당 부의 수준에 비해 웰빙점수가 낮았다. 소득 불평등과 삶의 만족도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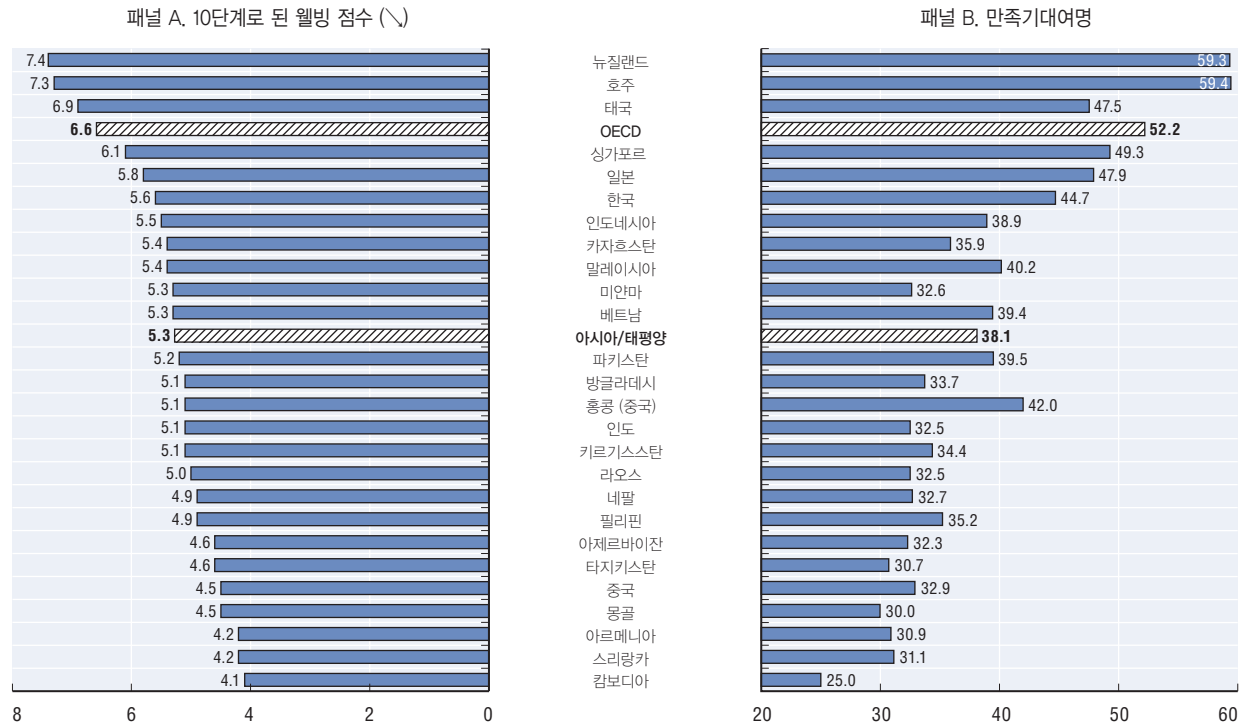
정의와 측정방법

삶의 만족도에 대한 주관적 지표들은 개인이 자신의 삶의 전반적인 상태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가를 나타낸다. 삶의 만족도에 관한 자료는 영국의 자선 구호단체 CAF (Charities Aid Foundation)와 갤럽의 월드 뷰 월드 폴 (World View World Poll (worldview.gallup.com))을 출처로 한다. 응답자에게는 최악의 0부터 최고의 10까지 10단계 척도를 사용해 평가하도록 했다. 샘플은 15세 이상의 인구를 대표하고 있다. 만족 기대여명지표는 Veenhooven (1996)에서처럼 표준 기대여명에 0부터 1까지 표준화된 웰빙 점수를 곱해서 산정됐다. 기대여명에 관한 자료는 세계은행자료를 인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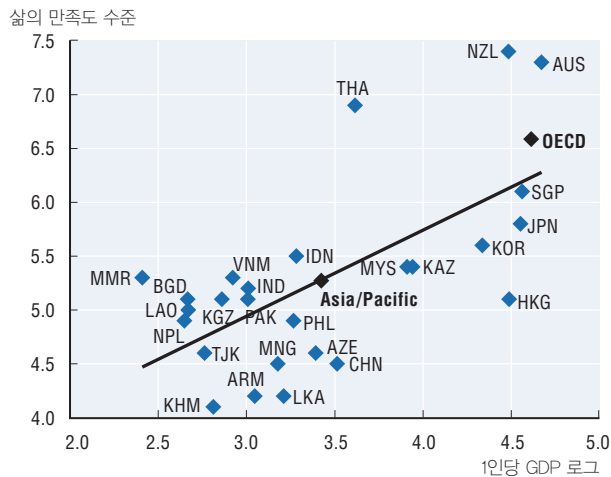
참고문헌

Veenhooven, R. (1996), "Happy Life Expectancy",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39, No. 1, pp. 2-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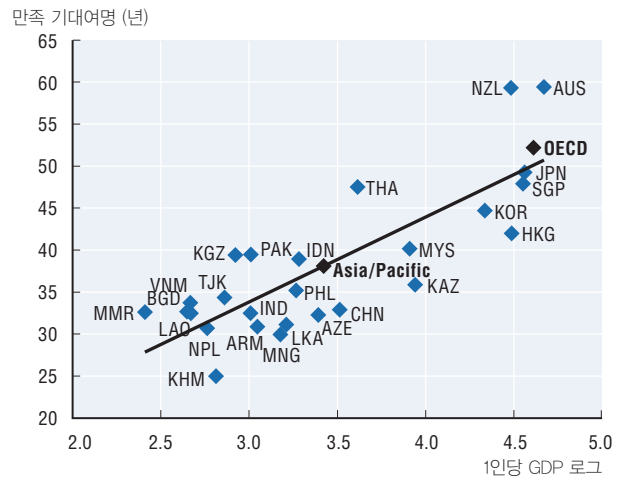
CO1.1. 삶의 만족도와 만족기대여명



CO1.2. 부유한 국가일수록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다.



CO1.3. 부유한 국가일수록 만족 기대여명이 길다.



주 : CO1.1. 만족 기대여명=표준 기대여명 x 0-1 행복지수.

CO1.2 : 1인당 GDP는 1인당 현재 미국달러 기준으로 표시. GDP를 각국통화에서 미국 달러로 환산한 후 총 인구로 나누어 계산. 2008년 자료는 그리스, 한국,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몽골, 사모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타지키스탄, 동티모르 제외. 2007년 자료는 베트남 제외. 2006년 자료는 스위스, 아제르바이잔, 피지, 미얀마, 통가 제외. 2005년 자료는 일본과 라오스 제외. 2004년 자료는 아르메니아, 2000년 자료는 파푸아 뉴기니 제외.

출처 : 2010 세계 기부 지수 (The World Giving Index 2010), 갤럽 월드 폴 데이터를 기반으로 CAF 재단에서 계산.

기대여명 자료 출처 : 세계은행지수 (World Bank indicators), IMF (2009), 세계경제전망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www.imi.org/external/ns.aspx?id=28.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546528>

CO2. 신뢰수준

신뢰는 사람들이 다른 이들의 신뢰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반영한다. 신뢰는 시장에서의 교역을 용이하게 하고 공적 제도의 기능을 촉진하며 집단적 행동의 역량을 증대함으로써 경제, 사회적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Morrone et al., 2009).

아태 지역 내에서 신뢰의 수준은 크게 차이가 난다 (패널 A, CO2.1). 신뢰는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인구의 절반을 약간 넘는 이들이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반면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에서는 이렇게 응답한 이들이 열 명 중 한 명도 되지 않았다.

신뢰에 대한 최근의 변화의 이면에 일반적인 패턴은 존재하지 않는다 (패널 B, CO2.1). 파키스탄과 필리핀은 크게 상승했으며 인도네시아와 인도는 크게 하락했다.

아태 지역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자보다 남자가 좀더 사람을 신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CO2.2). 차이는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두드러졌으나 키르기스스탄과 아르메니아에서는 반대로 여성들이 좀더 사람을 신뢰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의와 측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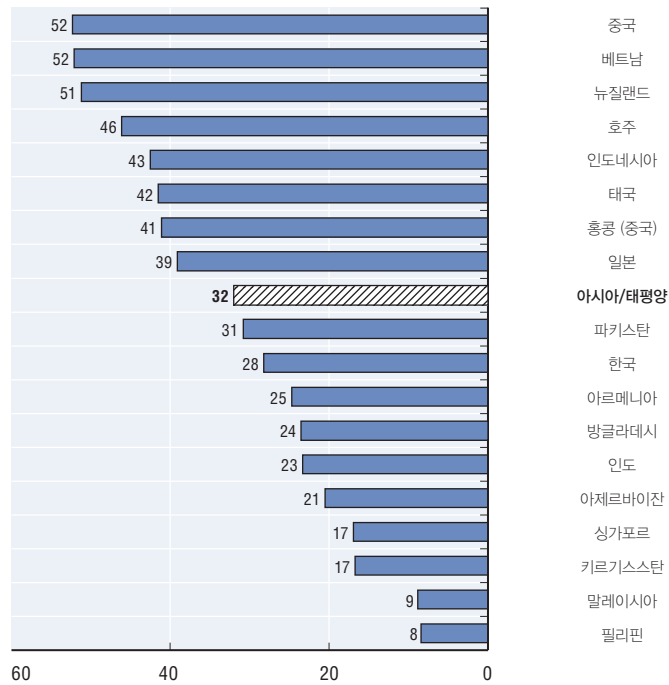
신뢰 자료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근거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뢰할만한 하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사람들을 대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자료는 세계 가치 조사 (World Values Survey) 를 출처로 한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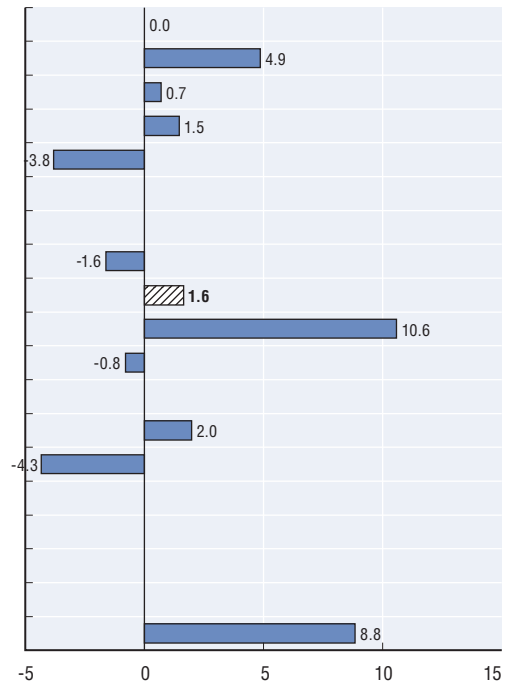
Morrone, A., N. Tontoranelli and G. Ranuzzi (2009), “How Good is Trust? Measuring Trust and its Role for the Progress of Societies”, OECD Statistics Working Paper, OECD Publishing, Paris.

CO2.1. 신뢰도 및 추이

패널 A. 타인에게 신뢰를 표한 사람들의 비율, 최근연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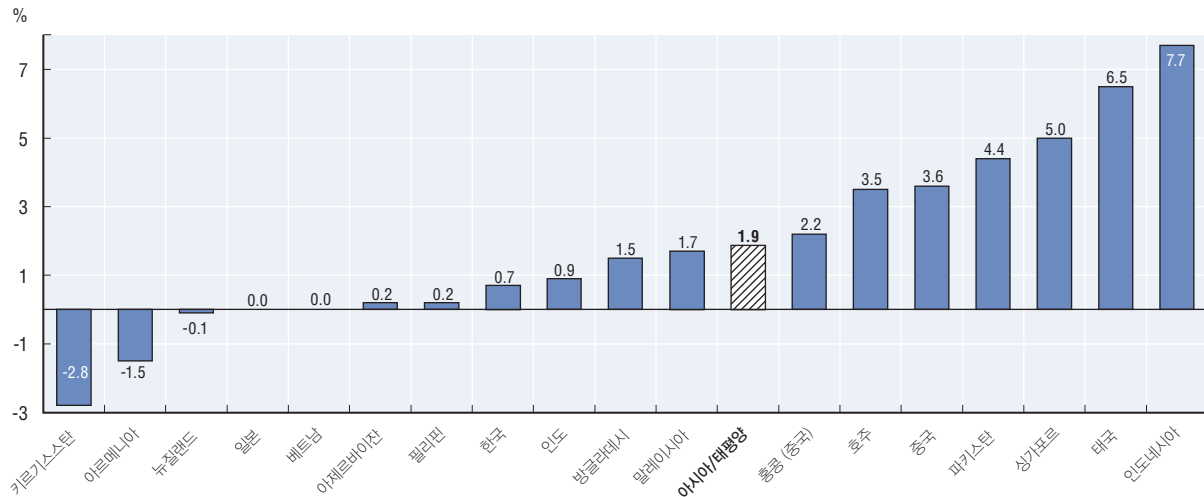


패널 B. 연평균 성장률, 1990년대 중반부터 최근 연도까지, %



CO2.2. 남자는 여자들보다 타인에 대한 신뢰가 큰 경향을 보였다.

타인에 대한 신뢰를 표시한 남성 비율과 여성 비율간 격차(퍼센티지 포인트)

출처 : 세계가치 조사 데이터뱅크 (World Values Survey Databank), 온라인 자료 분석 : www.wvsevsdb.com/wvs/WVSAnalyzeStudy.jsp.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546566>

CO3. 사회적 행동

친사회적 행동은 사회의 긍정적 기능에 기여하는 행동이며 반 사회적 행동의 반대현상이다. 친 사회적 행동은 사회통합의 중요한 긍정적 측면을 측정한다. 여기에서 지표는 자원봉사 시간, 금전적 기부와 타인을 돕는 행동 등 세가지 친사회적 행동을 다루고 있다. 반사회적 행동은 부패인식 지표에 의해 나타난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아태지역뿐 아니라 전세계적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친사회적 행동을 보인 국가들이다 (패널 A, CO3.1). 친사회적 행동은 스리랑카와 라오스에서 높게 나타난다. 친사회적 행동은 중국,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에서 특히 낮으며 아태지역에서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최하위 수준이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아태지역과 전세계에서 부패인식 수준으로 측정한 반사회적 행동이 가장 낮은 국가들이었다 (패널 B, CO3.1). 부패인식은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미얀마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부패의 형태를 띤 반사회적 행동 역시 이 세 개 국가에서 높게 나타났다. 홍콩 (중국)은 친사회적 행동이 꽤 높게 나타났는데 이를 보면 중국의 친사회적 행동이 단순히 문화로 인해 나타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싱가포르 역시 흥미로운데 친사회적 행동은 평균보다 낮지만 부패지수는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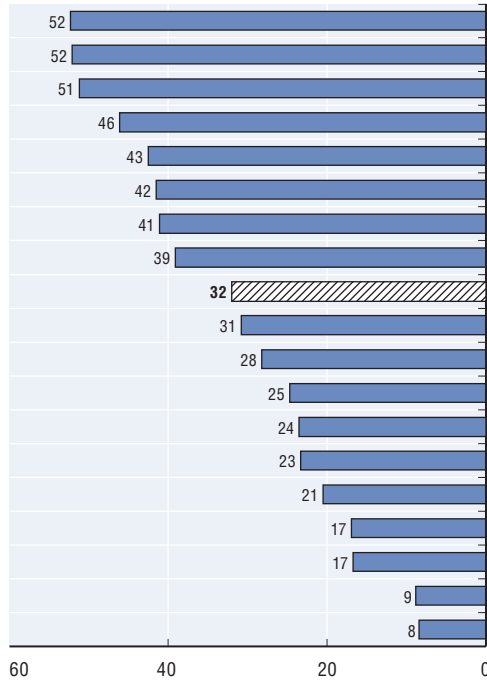
부유한 국가라고 기부지수가 더 높은 것은 아니었다 (CO3.2). 예상과 달리 부유한 국가들이 시간이나 돈, 타인을 돕는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좀더 관대하지는 않았다. 일본과 호주는 둘 다 부유한 국가지만 일본은 기부지수가 낮았고 호주는 높았다. 방글라데시와 라오스는 둘 다 빈국이지만 방글라데시는 기부지수가 낮았고 라오스는 높았다.

그러나 부유한 국가일수록 부패 인식지수는 높았다 (CO3.3). 1인당 GDP와 부패간의 상관관계는 매우 강했다. 낮은 부패지수는 부유한 국가들만이 누릴 수 있는 사치이기 때문이거나 부패의 감소가 일정 수준의 1인당 GDP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조건 중 하나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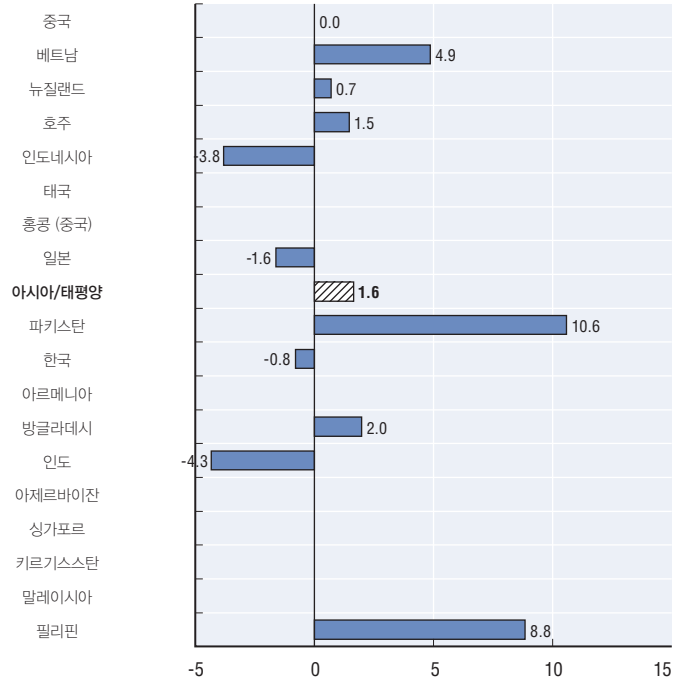
정의와 측정방법

친사회적 행동 자료는 세계 기부 지수를 출처로 하며 갤럽에서 취합했다. 부패 자료는 세계투명성기구의 부패 인식지수를 출처로 한다.

CO3.1. 친사회적 행동과 낮은 부패 인식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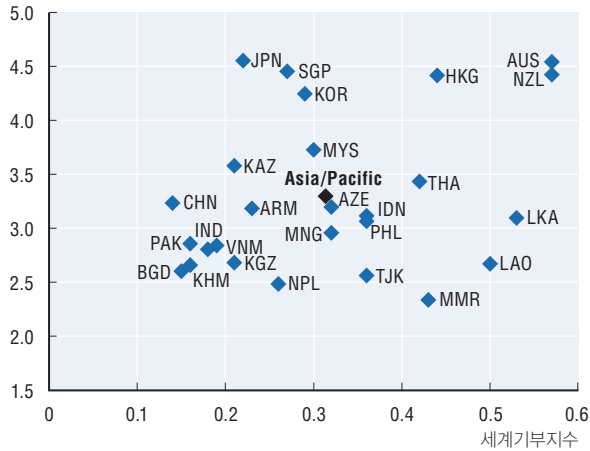
패널 A. 시간, 돈, 도움의 기부 : 친사회적 행동
세계 기부 지수 점수 (0부터 1까지)

패널 B. 연평균 성장률, 1990년대 중반부터 최근 연도까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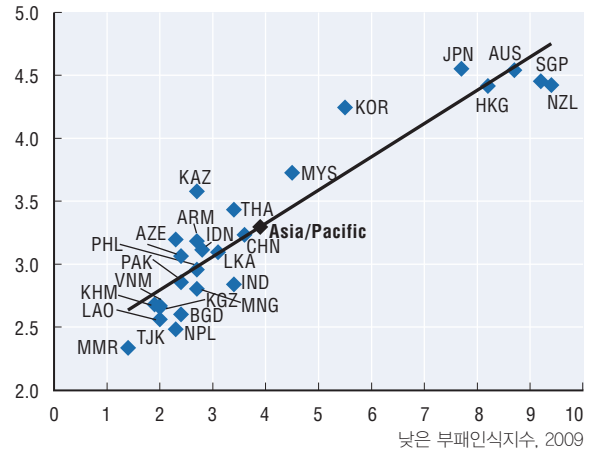
CO3.2. 기부와 국가의 부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

1인당 GDP, 2005 (로그), 2009 현재 미 달러 기준



CO3.3. 부유한 국가일수록 부패인식 지수가 양호하다.

1인당 GDP, 2005 (로그), 2009 현재 미 달러



출처 : 친 사회적 행동 자료는 세계기부지수를 출처로 하며 갤럽이 수집. 부패 지수는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를 출처로 함.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546585>

CO4. 자살

의도적으로 자신을 살해하는 행위는 개인적 붕괴뿐 아니라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분위기의 피폐함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자살은 이혼, 실업, 우울 또는 기타 형태의 정신적 질병과 연관된 위기의 순간에 발생할 확률이 가장 높다.

아태지역의 평균 자살률은 10만 명 당 12명에 육박한다 (CO4.1). 하지만 국가별로 차이가 크다. 카자흐스탄, 스리랑카, 라오스의 자살률은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필리핀의 여섯 배가 넘는다.

아태지역의 평균 자살률은 증가해왔다 (CO4.1). 한국의 경우 자살률이 거의 세배로 증가했다. 경기둔화, 사회통합의 약화, 노인에게 대한 전통적 가족 지원 기반 약화 등이 모두 한국의 최근 자살률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전세계적으로 여자보다 남자의 자살률이 높다 (CO4.2). 그러나 2004년 중국에서는 남자보다 여자의 자살 건수가 거의 10만 건 더 많았다. 중국은 전세계 여성 자살의 40%를 차지한다. 인도, 중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네팔 등 시골 지역 인구가 많은 국가의 경우 가장 흔히 사용되는 자살 방법은 농약 사용이다 (Gunnell et al., 2007). 치명적인 농약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동기가 낮은 자살 행동 (low-intent suicide behavior)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카자흐스탄과 뉴질랜드, 호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노인 자살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 중국인들 (중국, 홍콩 (중국), 마카오 (중국), 싱가포르)과 한국에서 노인 자살률이 특히 높다 (CO4.3). 한국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은 15-34세 인구 집단에 비해 다섯 배 이상 높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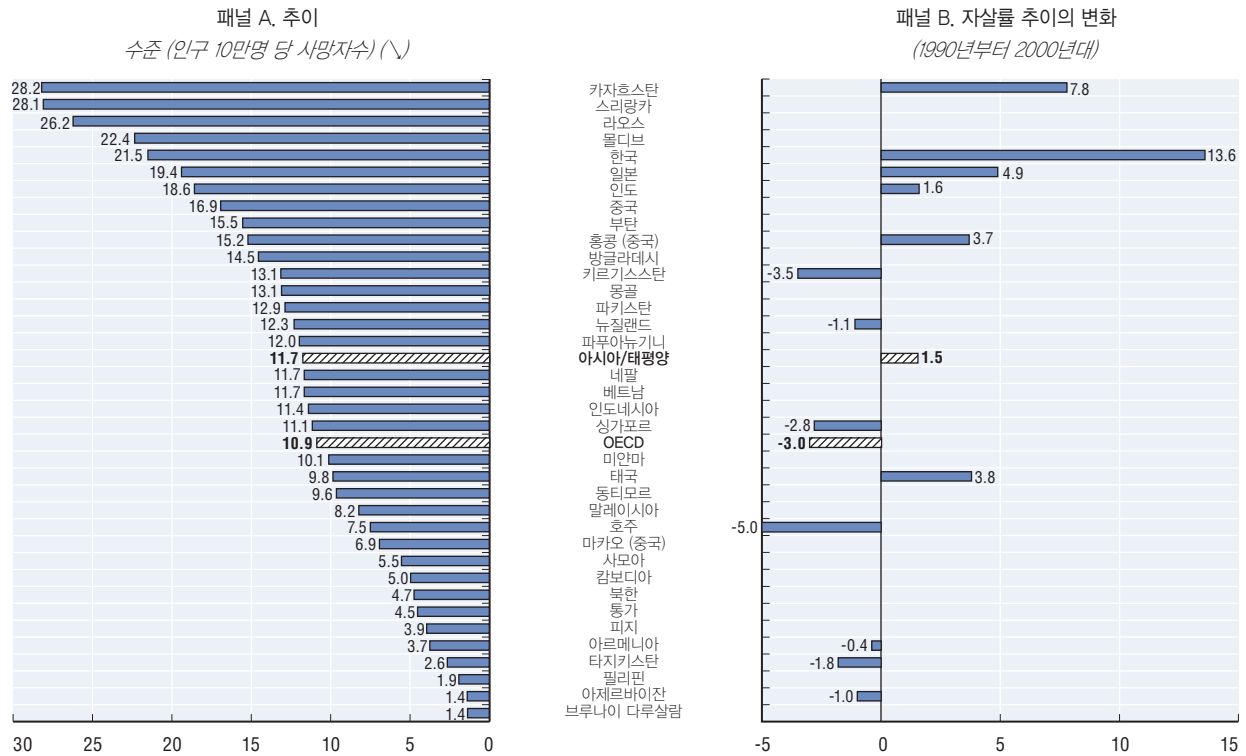
Gunnell, D., M. Eddleston, M. R. Phillips and F. Konradsen (2007), "The Global Distribution of Fatal Pesticide Self-poisoning: Systematic Review", BMC Public Health, Vol. 7, No. 357.

Yip, P., K.Y. Liu, Jianping Hu and X.M. Song (2005), "Suicide Rates in China During a Decade of Rapid Change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Vol. 40, pp. 792-798.

정의와 측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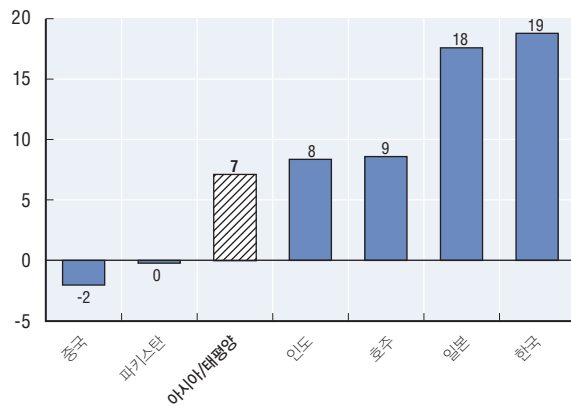
자살률은 자살에 의한 사망자 수를 총 인구수로 나눈 숫자에 근거한다. 자살률은 10만 명 당 숫자로 표시한다. 국가간 자살 자료의 비교성은 여러 보고기준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국가간 차이를 해석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아태 OECD 국가와 OECD 평균 성별에 따른 자살률 및 자살률 추이는 세계보건기구 사망 데이터베이스 (WHO Mortality Database)에서 가져 왔으며 국가간 연령구조의 차이와, 한 국가 내에서 시간의 흐름에 의해 발생하는 편차를 제거하기 위해 1980년 OECD 인구 자료에 맞춰 연령 표준화했다. 마카오(중국) 자료는 세계보건기구 사망 데이터베이스를 출처로 하고 있으나 연령표준화되지 않은 자료이다. 홍콩 특별행정구역의 자료는 WHO 국가 보고서 (www.who.int/mental_health/prevention/suicide/country_reports/en/index.html)에서 가져왔다. 다른 아태지역 국가 자료는 광범위한 출처로부터 자료를 끌어 모은 세계보건기구 질병 데이터베이스 (WHO Global Burden of Disease Database, GBD)에서 가지고 왔다. (www.who.int/healthinfo/global_burden_diseases/estimates_country/en/index.html) 자료를 이용했다. GBD의 가장 최근 평가자료는 2004년 자료이며 연령 표준화된 사망률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표준화에 사용된 연도의 인구자료가 빠져 있다. 비 OECD 아태지역 국가의 추이에 관한 자료는 WHO 국가 보고서를 출처로 한다. 중국의 경우 추이 및 연령 분할에 관한 자료는 각각 Yip et al. (2005)과 WHO 국가 보고서 내용을 인용했다. 연령 분할을 위한 자료는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세계보건기구 사망 데이터베이스 (WHO Mortality Database)를 출처로 한다

CO4.1. 친사회적 행동과 낮은 부패 인식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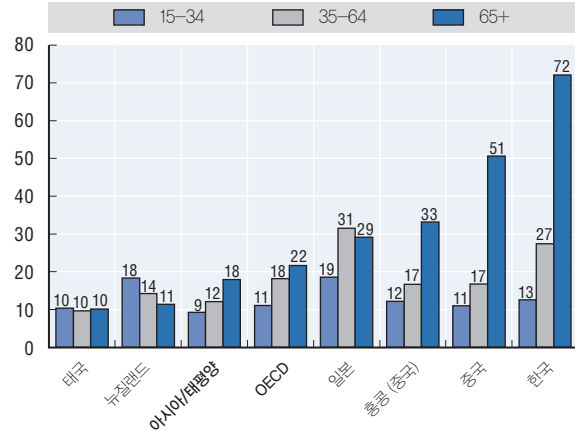
CO4.2. 여자보다 남자의 자살률이 높다.

일부 국가의 남녀 자살률 차이 (인구 10만명 당)



CO4.3. 자살률은 노인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일부 국가의 연령 집단 별 자살률 (10만명 당 사망자 수)



출처 : OECD Health Data 2010 ; 비 OECD 회원국 : WHO 국가보고서 : www.who.int/mental_health/prevention/suicide/country_reports/en/index.html; 마카오 (중국) : WHO 통계정보시스템 (WHOSIS) : <http://apps.who.int/whosis/database/mort/Table1.cf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546604>

CO5. 투표율

높은 투표율은 국가의 정치체제에 대한 국민 참여가 활발하다는 의미이다. 낮은 투표율은 해당 국가의 운영에 대한 만족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해당 정치체제가 한정된 시민들의 의지만을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아테 지역의 많은 국가에서는 민주적 선거를 택하지 않고 있어 고려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없었다.

투표율은 국가별로 차이가 컸다 (패널 A, CO5.1). 라오스, 베트남, 호주 (투표가 법적 의무임), 싱가포르의 경우 열명 중 아홉 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한 반면 이 지역 최저 투표율을 보인 한국과 파키스탄은 두 명 중 한 명 미만이었다.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자료가 존재하는 그 외 모든 국가에서는 선거권을 가진 인구의 절반 이상이 투표를 했다.

투표율은 지난 30년간 대부분의 국가에서 하락했다 (패널 B, CO5.1). 투표율 하락 패턴은 고르지 않았으며 보편적인 패턴은 나타나지 않았다. 네팔, 한국, 몽골은 투표권을 가진 인구의 5분의 1에서 4분의 1의 순서로 하락했다. 그러나 3분의 1이상의 국가는 실질적으로 투표율의 상승을 경험했는데 몇몇 경우엔 그 상승폭이 상당했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유권자의 거의 3분의 1만큼 상승했다. 그 외에 태국,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에서도 지난 30년간 투표율이 크게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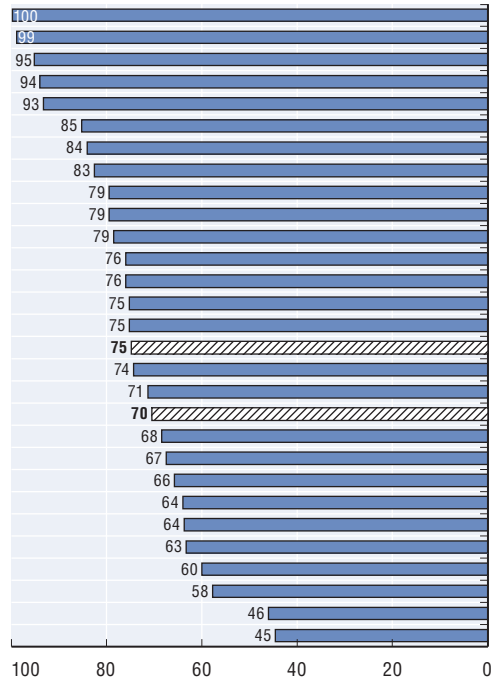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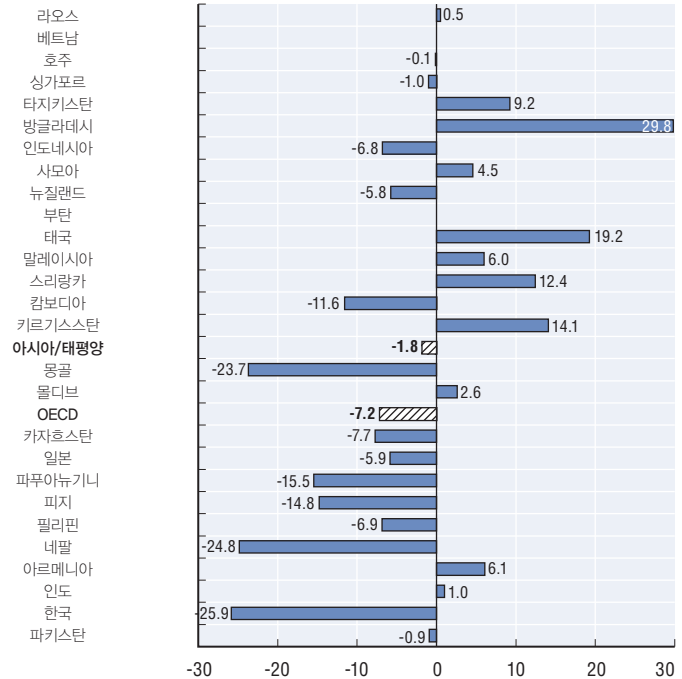
투표율은 친사회적 행동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CO5.2). 투표, 즉 정치적 참여는 부가적인 종류의 친사회적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친사회적 행동은 기부 지수의 측면에서 측정되는데 (CO3) 이것은 타인을 돕고 시간이나 돈을 기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그러나 관찰된 상관관계는 그리 크지 않았다. 투표율이 높은 국가는 광범위한 친사회적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들어 라오스의 경우 친사회적 행동이 매우 높게 나타났고 투표율도 높았다. 이웃 국가인 베트남에서도 투표율은 높았으나 친사회적 행동은 눈에 띄게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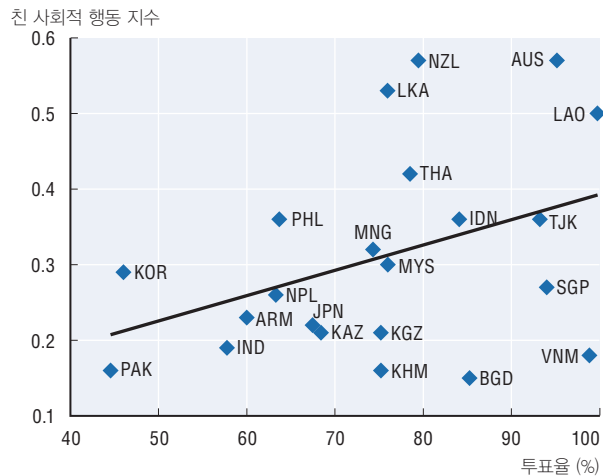
정의와 측정방법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국민들이 얼마나 참여하는가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이다. 여기에서 선거 과정에 대한 개인의 참여를 측정하는데 사용된 지표는 “유권자 투표율”, 즉, 선거연령—일반적으로 18세 이상-인구 중 비율로 선거 기간 중 투표한 개인의 수이며 회원국의 행정 기록을 통해 입수한다. 국가마다 체제구조와 서로 다른 행정구역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의 선거가 이루어진다. 일부 국가에서는 대통령 선거 투표율과 지역 선거 투표율이 국회의원 선거보다 높을 수 있는데 이러한 투표를 통해 선출된 이들이 헌법상으로 해당 국가들이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있어 더 큰 중요성을 갖기 때문이다. 투표율에 관한 자료는 Institute for Democratic and Electoral Assistance (IDEA)의 국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다.

CO5.1. 투표

패널 A. 가장 최근의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최근연도 (%) (\)패널 B. 투표율 변화
투표율 변화 (퍼센트)
1990년부터 최근 연도까지

CO5.2. 투표율은 다른 친사회적 행동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출처 : Institute for Democratic and Electoral Assistance (IDEA)의 국제 데이터베이스 www.idea.int/. 친사회적 행동 자료를 세계 기부 지수를 출처로 하며 갤럽에서 수집.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546623>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세계화에 따른 경제, 사회,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함께 모여 노력하는 포럼이다. OECD는 기업 지배구조, 정보 경제, 인구 고령화와 같은 새로운 변화와 문제에 대처하는 정부를 이해하고 돕는데 앞장서고 있다. OECD는 각국 정부가 각자의 정책경험을 비교하고 공통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며, 모범사례를 확인하고 국내외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OECD 회원국은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이다. 유럽 위원회도 OECD의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OECD 출판물은 회원국이 동의한 협약, 지침, 기준 뿐 아니라 경제, 사회, 환경적 사안에 관하여 수집된 통계와 연구 결과를 널리 전파한다.

한 눈에 보는 사회 2011
아시아/태평양 판

- 발행처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 발행인 김상희
- 발행일 2012. 2. 29
- 인쇄처 아이프리넷

<http://www.oecdkorea.org>

한 눈에 보는 사회 2011

아시아/태평양 판

목차

제1장. 아태지역 사람들의 시간사용 현황

제2장. OECD 사회지표 해석

제3장. 한 눈에 보는 사회 : 개요

제4장. 일반지표 (GE)

제5장. 자활지표 (SS)

제6장. 형평성지표 (EQ)

제7장. 보건지표 (HE)

제8장. 사회통합지표 (CO)

본 출판물의 영문 원본은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OECD (2011), Society at a Glance : Asia/Pacific 2011,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9789264106154-en>

본 간행물은 모든 OECD단행본, 연속간행물 및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는 OECD전자도서관에 게재됩니다.

OECD전자도서관 : www.oecd-ilibrary.org